Apologia Socrates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 《잔치》를 무비판적으로 쓰이던 역어 대신에 우리말로 쉽게 풀어썼다. 특히 《Symposion》을 '향연(婆娑)'이 아닌, '잔치'로 옮긴 유일한 번역본이다. 소크라테스의 인격과 신념을 배울 수 있는 소크라테스 철학의 진수가 담겨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해 성찰한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한다.



Apologia Socrates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v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완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소크라테스의 변명 외》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 SK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헤럴드미디어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출판 디자인 전문기업인 캠퍼스헤럴드는 편집디자인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교열 재능을 기부해 주신 서보상 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특히, 선친의 좋은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조윤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t) 02)720-8278 (h) www.olje.or.kr (e)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차례

소크라테스의 변명 / 크리톤	
옮긴이의 머리말	 7
소크라테스의 변명	 9
크리톤	 73
잔치	
옮긴이의 머리말	 102
잔치	 105



옮긴이의 머리말

내가 20세 전후해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 그리고 《파이돈》 이어서 《잔치》(Symposium) 등을 읽고서 받은 감격은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 후에도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해와 감동을 거듭하게 되었고 게다가 그것들의 번역, 그리고 개역을 진행시켜 가면서 더욱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었다.

오랜 동안 인류의 모진 비판을 견디면서, 오히려 그 비판에 근거나 원리를 준, 이른바 고전이랄 것이 적지 않지만, 이 《변명》과 《크리톤》은 지난 수천 년의 생명을 지녀왔고, 앞으로도 헤일 수 없는 세월의 생명을 인류와 더불어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의 지식이 아니다. 우리는 이 책들에서 생전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 철학적 술어는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학술적인 술어 대신에, 우리들은 여기서 철학적 정신이 무엇이며, 한 위대한 사상가이자 드물게 보는 인격인 소크라테스의 신념과 생활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젊어서 이런 책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기울여 보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가 인생이나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가의 갈림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몇 해 전에 개역해서 출판했던 것을 상당한 부분에 다시 손을 대어 새로 개판을 한 것이다. 이번에는 일반의 관례에 따라서 장(章)을 나누어 놓았다. 그것이 읽기도 편하고 내용을 파악하기에도 도움이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변명》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톤》은 나로서는 이번에 새로 옮긴 것이다. 원본은 역시 버네트(J. Bumet)가 교정한 옥스포드(Oxford)판의 플라톤 전집이다. 여기서도 버네트의 원본과는 달리, 장(章)을 나누는 관례에 따랐다. 《변명》에는 반드시 《크리톤》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이번기회에 그 소원이 풀린 셈이 되었다.

이 번역책의 페이지 외에 따로 여백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플라톤을 인용할 경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스테파누스(Stephanus)판의 페이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1982년3월 조우현

소크라테스의 변명

나오는 사람들 : 소크라테스, 멜레토스

1.

아테나이의 여러분¹, 나는 여러분이 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나를 잊을 만큼, 그들 의 말은 그럴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의 한마디도 참다운 말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허다한 거짓말 중에서도 한 가지 가장 기막힌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변론가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결코 대단한 변론가가 아님을 밝힌다면, 그들의 거짓말은 당장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 터인데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염치 없는 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웅변가라고 부른다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들의 말이 그런 뜻이라면, 그네들과는 훨씬 다르겠지만, 나도 변론가임을 스스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거의 한

¹ 으레 '재판관 여러분'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에게 무죄 투표를 한 사람들은 재판관이라 부르고 있다.(40a)

마디도 참다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은 나에게서 모든 진실 을 들을 것입니다--하기야. 제우스신께 맹세코 아테나이의 여러분. 여러분이 내게 서 듣는 말은 그들의 말처럼 선택된 말이나 일부러 꾸며서 화려하게 늘어놓은 말 다 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입에 떠오르는 대로 꾸밈없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그 것은, 내가 말하려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그런 만큼, 나는 여러분 중의 누구든지 그것과는 다른 말을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불려 나와서 젊은 애들처럼 핑계를 꾸며 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나 이엔 어울리지 않는 일이겠으니까요. 그런데 아테나이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단단 히 부탁해 두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소에 다른 곳에서, 또 는 장터에 있는 환전상(換錢商)의 탁자2 앞에서,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는 것을 많 은 여러분들이 들었겠는데, 이제 그런 말로 변명하는 것을 듣더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떠들썩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 다. 즉 내 나이 이미 70에 법정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쓰 d 는 말은 내겐 아주 생소한 말입니다. 이제 가령 내가 과연 딴 데서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써오던 말을 그대로 쓰고 그 말버릇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 도. 여러분은 사정을 헤아려서, 물론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² 환전상의 탁자가 있는 가게는 시장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해도, 어쨌든 나에게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서투른 말도 있겠고 제법 하는 말도 있겠지만—말버릇은 개의치 마 시고 다만 내가 옳은 말을 하는가 않는가만을 살펴서, 그것만을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재판관을 재판관답게 하는 것이며, 변론가의 훌륭함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그래서, 우선 내가 당연히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테나이의 여러분, 처음으로 나에게 제기된 거짓 고발과 첫 고발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의 고발과 그 다 음의 고발인들에 대한 것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 해 동안, 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터무니없는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게

는 아니토스³ 일파도 두렵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더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중의 많은 사람들을 이미 어렸을 적부터 사로잡고 설복시켜, 나에게 전혀 터무니없는 죄를 씌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크라테스라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하늘의 일에 머리를 쓰고, 땅 밑의모든 일을 탐구해서 약한 주장을 억지로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테나이의 여 여러분,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일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신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고발인들의 수는 많고,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나를 고발하는 소리를 퍼뜨려 오고 있고, 더욱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란, 여러분 중의 더러는 어리고 또더러는 젊어서, 남의 말을 가장 곧이듣기 쉬운 나이인지라, 말하자면 그들은 아무도 나를 변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결석재판 같은 데서 그런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3 아니토스(기원전 4~5세기): 수공업자 출신의 부유한 민주파 정치가. 기원전 409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장군으로서 필로스의 함략을 막지 못했으나, 뇌물을 써서 그 좌를 면했다고 전한다. 그 전쟁에서 아테나이가 패전한 뒤, 트라시불로스와 함께 독재적 공포 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 체제를 회복하였고, 여기서 그는 정직하고 온건한 정치가임을 보였다. 플라톤은((메논)편, 90a 이하) 그를 높은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나, 소피스트들에게는 맹렬히 적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소크라테스 일파에 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며, 그가 소크라테스의 주요한 고발인이 된 것은 개인적인 이유(그가 재주있는 아들에게 학문을 시키지는 않고 가죽 장사를 시킨 것을 소크라테스가 비난한 데 대한 원한보다는 아테나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고지식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고발에서는 멜레토스 등을 내세웠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리둥절한 일은, 그들 중에 마침 희극 작가한 사람이 있다는 것밖에는 그들의 이름조차 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새우고 헐뜯기 위해서 여러분을 곧이듣게 하려던 사람들, —그들 중엔 저도 믿고 남도 믿게 하려는 사람도 있겠는데—이 사람들이야말로 매우 성가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의 누구 하나 여기 데려다가 따져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변명하자니,마치 자기 그림자와 싸우듯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 없이 혼자 따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듯이, 내게 나타난 고발인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하나는 요즘에 나를 고발한 사람들이며,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먼젓번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분도 요즘 사람들보다고전 사람들의 고발을 더 일찍,그리고 훨씬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이젠 변명을 해야겠습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편견을 이렇게 짧은 동안⁵에 여러분에게서 뽑아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되는 것이, 만약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더

^{4 《}구름》이라는 희극 작품의 작자인 아리스토파네스를 생각하고 말했을 것이다. 나중에(19c) 아리스토파네스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를 희극화한 작품들은 이 밖에도 더러 있었는데, 그 즈음에 소크라테스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같다.

⁵ 저녁때까지는 판결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욱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내 변명이 얼마만큼이라도 보람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일은 신의 뜻에 맡기고 나는 법률에 따라서 변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3.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무고하여 그러한 악평이 생기게 했고, 멜레토스⁶도 b 민고서 이 고소를 제기하도록 한 그 애초의 고소란 대체 무엇인가를 묻기로 합시다. 그렇다면, 나를 무고한 사람들은 무슨 말로 나를 무고했단 말입니까? 그래서나는 그들을 마치 원고(原告)처럼 생각하고, 그 고소장을 읽어 보아야겠습니다.즉 '소크라테스는 땅 밑과 하늘의 일을 탐구하여,약한 주장을 강하게 만드는 따위의 부질 없는 짓을 하고, 또한 남에게도 그것과 같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범죄자이다.'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리스토파네스의 c

6 소크라테스의 명의상의 고발인. 그때 그는 젊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에우티프론》 2b) 한다. 이 고발에서는 아니토스의 앞잡이가 되었다. 후에 아테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만 확실치 않다.

희곡⁷ 속에서 직접 보셨으려니와, 거기서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나이가 무대 위를 돌면서 공중을 날아다닌다고 허풍을 떤다든가, 그 밖에 허다한 영문도 모를 군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는 크고 작고 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에 관해서 지혜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내가 그런 지식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다만 나는 멜레토스에게서 그렇게까지 엄청난 죄에 걸려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은, 아테나이의 여러분, 나는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의 대부분을 그중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언젠가 내 대화를 들은 적이 있는 여러분은—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이 많으니—서로 터놓고 가르쳐서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중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런 일에 관해서, 그것이 크건 작건 문답하는 것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7 (구름)을 말함. 기원전 423년, 즉 소크라테스가 고발되기 24년 전에 첫 공연을 가졌다. 이 연극의 첫 장면에서 소크라테스는 무대 위의 공중에 매달린 큰 소쿠리를 타고 익살스럽게 나타난다. 아리스토파네스에게는 기인(奇人) 소크라테스보다 더 좋은 희극의 소재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의 대표로 해서, 당시의 모든 새 풍조를 소크라테스 탓으로 돌려, 소크라테스 학교라는 것을 무대로 하여 연극을 펴나가는데, 줄거리는 간단하다. 즉 말[馬]도락에 빠진 아들의 빚에 대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시골 출신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빚쟁이를 이길 수 있는 신식 웅변술을 배우려고 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들어갔으나 낙제하고 만다. 그 대신 아들을 입학시켰더니 아들이 배워 온 것은 아버지를 때려 놓고는 그 잘못을 잘못 아닌 듯이 교묘하게 증명하는 논리여서, 화가 난 아버지는 학교에 불을 지른다는 얘기. 있는 일, 없는 일을 뒤섞어서 해롭다고 생각되는 새 교육 풍조를 소크라테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뭇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말하는 그 밖의 것도, 이것과 같은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4.

그러나 실은, 이런 것들은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고, 또 내가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나서서 그 값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여러분이 누구에게선가 들었다 해도, 그것 역 시 사실은 아닙니다. 하기야, 레온티노이 사람인 고르기아스⁸라든가, 케오스 사람

8 고르기아스(B.C. 483?~376): 다음의 두 사람과 함께 유명한 소피스트. 레온티노이는 시켈리아 섬의 동해안에 있는 도시. 아테나이에 모국의 사절로 와서(B.C. 427) 웅변으로 이름을 떨쳐, 청년들을 매혹시키고 각처에 수많은 추종자를 만들었다. 특히 아테나이에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서도 보이듯이, 자주 머물렀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소피스트가 돈을 받고 가르치는 직업적 교사임에는 틀림없었고, 인품도 소질도 상관없이 누구든 돈만 내면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일종의 창녀 같은 행위라고 이미 그 당시에도 비난한 측이 있었다. 그러나 특히 그들이 악명을 얻게 된 것은, 플라톤이나 크세노폰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소크라테스 계열 사람들이, 소피스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함이 없이, 다만 세상에서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설득하기에만 가울어졌다고 비난했기 때문이었다.

인 프로디코스⁶라든가, 엘리스 사람인 히피아스¹⁰처럼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이가 이다면, 그것도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모두, 여러 분, 어떤 나라에든지 가서 그곳의 젊은이들에게—제 나라 사람 중에서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사귈 수 있는데도—제 나라 사람과 사귀는 일은 버려두고, 자기들과 어울리도록 타일러서, 그것에 대해서 돈을 치르고, 게다가 고맙게까지 여기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또 한 사람, 팔로스에서 지혜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 은, 소피스트들에게 모든 사람 전부가 치른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치른 사람, 즉 합포니코스의 아들인 칼리아스¹¹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습

- 9 프로디코스: 데모크리토스(B.C 460?~370?)나 고르기아스와 같은 때에 생존했다고 전할 뿐, 정확한 연대는 분명치 않다. 케오스는 아테나이를 포함한 앗타카 지방의 동남쪽 바다에 있는 섬, 플라톤에 따르면, 그는 모국의 외교사절로 아테나이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사로이 연설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는 변론술로 상당한 명성도 얻었지만 남을 가르칠 경우에는 많은 보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 10 히피아스: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B.C 481?~411) 보다 약 40년 아래라고 추측된다. 엘리스는 희랍남쪽, 즉 펠로폰네소스 서북부의 유명한 올림피아의 성지가 있는 곳.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다만 외교 사절로서 각국, 특히 스파르타에 파견된 일이 있었다. 희랍의 전역을 여행하면서교사와 웅변가로서 큰 명성과 많은 수입을 올렸다. 수학·천문학·문법·시·음악·영웅시대의 역사와 그밖에 여러 가지 수공(手工) 등 다방면에 능했으며, 초인적인 기억력을 가졌었다고 한다.
- 11 칼리아스(B.C 450?~370): 그의 아버지 힙포니코스의 재산을 상속해서 아테나이의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재산을 탕진하여 만년에는 가난했다 하며, 희극 작가들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 안에서 프로타고라스, 히피아스, 프로디코스를 그의 집에서 대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다—그에게는 아들이 둘 있으니까요—'칼리아스 군'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의 아들들이 망아지나 송아지였다고 한다면, 그것들에 알맞은 덕을 갖춘, 훌륭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감독자를 찾아서, 그를 고용할 수 있겠는데, 그는 말에 관한 일이나 농사에 능한 사람이라야 했을 걸세. 그런데 실은 자네 아들들이 사 바람이나만큼 그들을 위해서 자네는 누구를 감독자로 택할 셈인가?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덕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 자넨, 아들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이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하네.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면 없었던가?'라고 내가 말하니까, '있고말고'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누군가?'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어디 사람이며, 얼마를 받고 가르치는 가?'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에우에노스일세, 소크라테스. 그는 팔로스 사람인데 5만나¹²로 가르치고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우에노스가 과연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적당한 값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팔자 좋은 사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면야 제법 보람을 느끼고 우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¹² 회랍의 무게와 돈의 단위. 1탈란톤=60므나, 1므나=100드라크메, 1드라크메=6오불로스. 은의 무게이면서 곧 돈의 단위.

5.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렇게 대들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소크라 테스.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란 무엇이요? 당신에 관한 이 악평은 어디서 나온 것이요? 왜냐하면 당신은 분명히 남들과 다른 부질없는 짓을 했었는데. 만약 당신 이 많은 사람들과 뭔가 다른 짓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에 관해서 이런 소문이나 말 이 펴졌을 리는 결코 없었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에게 들려 주기 바라오. 우리는 굳이 당신에 관해서 지레짐작하고 싶지는 않으니 d 까'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나 는 무엇이 이런 명성과 편견을 일게 했는지 여러분에게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내가 농담이나 하고 있는 듯이 생각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어 주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 은 모두가 진실이니까요. 왜 그런고 하니.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다만 나에게는 일종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지혜일까요? 아마 그것은 인간다운 지혜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란, 아마 그런 지혜뿐일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e 내가 말한 사람들은 뭔가 인간 이상의 지혜라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지 도 모르지요.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 실 나는 그런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를 헐뜯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테나이의 여러분, 비록 내가 무슨 큰소리나 하는 것처럼 여러 분에게 생각되더라도 떠들썩하게 가로막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 터 말하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은 충분히 믿을 만한 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게 무슨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혜인가에 관해서, 나는 델포이에 있는 신을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은 아마 카

이레폰¹⁸을 알고들 있을 겁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내 친구이며, 또 대부분의 여러 21분에게도 친구여서, 한때는 나라 밖으로 망명도 함께 갔었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돌아오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¹⁴ 그리고 카이레폰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에든지 얼마나 골똘하는 성질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델포이의 신전¹⁵에 가서, 감히 다음과 같은 신탁(神託)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즉 그는 나보다 더 지혜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무당은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일에 관해서는 여기 있는 그의 아우¹⁶가 여러분에게 증언할 것입니다. 그 자신은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요. ¹⁷

¹³ 카이레폰: 소크라테스의 가장 열렬한 제자이면서 친구.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 민주 정치의 회복에 힘쓴 민주파의 한 사람. 아니토스도 이 민주파의 실력자였다. 소크라테스는 카이레폰의 가까운 친구이긴 했지만, 민주파에 들진 않았다.

¹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해(B.C. 404) 봄, 스파르타의 장군이며 정치가인 류산드로스(B.C. ?~395)가 아테나이를 점령하여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크리티아스 등의 30인(Triakonta)이 독재 정권을 세웠을 때, 민주파의 지도자들은 나라 밖으로 망명했다가, 그 이듬해 트라시불로스(B.C. ?~388)가 그 정권을 쓰러뜨리고 민주 정치를 회복하자 되돌아왔다.

¹⁵ 회랍 사람은 신과 인간은 서로 직접 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신의 말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무녀(巫女)가 신전에 살고 있었다.

¹⁶ 카이레폰의 아우는 카이레크라테스 그는 곧 사실을 긍정하는 증언을 했을 것이다.

¹⁷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말은 일단 중단되고 증인의 증언이 있게 된다.

6.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즉 나에 관한 악평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기 때문 입니다. 그 신탁을 들었을 때,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신께서는 도대 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며, 그리고 무슨 수수께끼를 걸고 계시는 것일까? 왜 냐하면 나는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서나 지혜로운 사람이 못된다고 스스로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그런 나를 가장 지혜롭다고 한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며, 무슨 수수께끼를 걸고 있는 것일까? 설마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지. 신에게는 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나는 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오랫 동안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꺼림직한 마음으로 뭔가 그 의미 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즉 지혜가 있다는 명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었는데, 다른 데선 몰라도 거기서야말로, '이 사람이 저보 다 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제가 가장 지혜있는 사람이라고 말 c 씀하셨습니다'라고 하여, 신탁을 향해서 반박하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펴보니 굳이 이름을 들어서 말할 것까지 는 없겠지만, 그는 어느 정치가였는데, 그와 문답을 하면서 살펴보는 중에, 아테나 이의 여러분. 그에 관해서 나는 뭐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많은 사람들 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스로 누구 보다도 가장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못 하다고 생각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신이 지혜가 있는 듯이 믿고는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밝혀 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그에 게서도.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곳을 떠나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가 있다. 왜 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마 아름다움이나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

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름난 또 한 사람에게로 갔었지만, 역시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도 역시, 그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е

7.

그 후에도 오늘날까지 이곳 저곳 찾아 다녀 보았는데, 남의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괴롭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신의 일은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래서 신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또다시 모조리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에 맹세코¹⁸, 아테나이의 여러분—여러분에게는 진실을 말 2 해야 하니까—나는 장담하거니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즉 신의 명령에 따라 살펴보니.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오히려 가장 사려(思慮)가 부

¹⁸ 맹세하는 말에, 개나 거위나 플라타너스 등의 이름을 쓰는 것은 신들의 이름을 경솔하게 쓰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족하고, 그와 반대로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점에서는 오히려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신탁은 결국 뒤집힐 수 없는 것이 되었지만, 나는 갈수록 태산 같은 나의 고생스러웠던 편력(遍歷)¹⁹에 관해서 말해야 겠습니다. 즉 이번에야말로 내게 지혜가 없다는 증거를 당장에 잡을 것이라고 벼 르고, 정치가 다음에는 비극 작가나 디티람보스²⁰의 작가나 그 밖의 작가들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을 들였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작품을 들어서, 그것이 무 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캐물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배우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실대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즉 거기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그 작가 자신들보다도 그 작품에 관해서 설명을 더 잘 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작가들에 관해서도, 작가의 지혜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탁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타고난 바탕이나 신적인 힘으로 만든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하면 그들도 훌륭한 것을 많이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의 참뜻에 관

¹⁹ 힘과 용기와 참을성과 좋은 성품과 동정심으로 알려진 희랍의 가장 유명한 영웅인 헤라클레스의 열두 가지 신산스런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²⁰ 디티람보스라는 말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희랍에서 생긴 말이 아님은 거의 확실하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박쿠스)의 축제의 행사 중의 하나인 열광적인 워무(圓舞)의 합창.

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작가들도 거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고, 그와 동시에 내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작가로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 하면서, 다른 일에서도 가장 지혜가 있는 삶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치가보다 훌륭하다는 것과 똑같은 점에서, 이들보다는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떠났던 것입니다.

8.

끝으로 나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거의 아 로 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그들이 훌륭한 것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꼭 찾아낼 수가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나는 속질 않아서, 그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런 뜻에서는 그들이 나보다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그 선량한 기능공들까지도 작가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성싶었습니다—그들은 기술에 능하다고 해서 그 밖의 다른 중대한 일에 관해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게다가 이런 편견이 그나마 그들의 지혜를 가리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탁을 위해서 스 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대체 어느 편을 택해야 하는가?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하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들의 무식도 그대로 나 자신의 무식이 되고있지 못하니, 지금의 나대로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는가라고.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 신탁에 대해서 지금의 상태대로 있는 편이 나에겐 좋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9.

이렇게 따지다보니.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게는 숱한 미움이 생기게 되고 게다가 그것은 매우 귀찮고 극성스런 것이었는데. 그 결과 그들에게서 많은 악평이 생기 고, 또 내가 지혜있는 사람이라는 평판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무슨 일로 남을 몰아세울 때마다. 나 자신에게는 지 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실은 오직 신만이 참 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따라서 신은 그 신탁에서 인간의 지혜 따위는 거의 값어치 가 없거나 전혀 보잘것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 여기 있는 이 소크라테스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은 덤으로 쓰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은 마치 나를 한 본보기로 들어, '인간들 아. 소크라테스처럼 자기의 지혜는 진정 아무 값어치도 없다고 깨달은 그 사람이 야말로 너희들 중에서 가장 지혜있는 사람이니라'하고 말씀하시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이곳 시민이건 딴 나라 사람이건, 누 구든 나에게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을 찾 아서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경우엔. 신을 도와서 그가 지혜있는 사람이 아님을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나는 나랏일이건 집안 살림살이건 돌볼 겨름도 없이 신을 c 섬기기 위해서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10.

그 밖에 또 젊은이들—가장 한가하고, 또 매우 부유한 집의—이 스스로 나를 따라 와서, 사람들이 검토 당하고 있는 것을 자못 흥겹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가끔 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검토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제 딴에는 무엇인가 아는 듯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조금밖에 모르거

나 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검토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지는 않고 오히려 내게 화를 내서, 소크라테스라는 매우 괘씸한 자가 있는데, 그가 젊은이 네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르쳐서 그러냐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이 막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들이 궁지에 빠진 것을 감추려고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낡아빠진 비난을 끄집어냅니다. 즉, '공중이나 땅 밑의 일'이라느니, '신들을 믿지 않는다'느니, 또는 '약한 이론을 강하게 한다'는 따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진실을, 즉 아는 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고 싶지가 않기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심은 강한 데다가, 극성스럽게 많은 수로, 그 리고 한데 뭉쳐서 그럴 듯싶게 나에 관해서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격심한 험구로 여러분의 귀를 꽉 메워 온 것입니다. 이 바람에 멜레토스가 나를 공격했고, 아니토스나 리콘²¹도 그렇게 했는데, 멜레토스는 작가를 대신해서, 아니토스는 기능공과 정치가를 대신해서, 그리고 리콘은 변론가를 대신해서 선류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도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까지 깊이

²¹ 리콘 : 본시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계통 사람으로서 아테나이에 살았던 웅변가이지만, 희극 작가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가난했다고 전한다. 소크라테스를 고소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그가 맡아서 했다고 한다.

박힌 악평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서 뽑아 버릴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습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며,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에게 나는 숨김 없고 속임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까닭으로 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상을 말하고 있고, 또 나에 대한 악평도 지금 말한 바와 같은 것이고, 그 원인 도 내가 말한 바와 같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또는 훗날이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조사해 본다면, 지금 얘기한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1.

처음의 고발인들의 고발 내용에 관해서는 이만하면 여러분께 대한 변명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선량한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멜레토스를 비롯하여, 그 후의 고발인들에 대해서 변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다른 고발인으로 보고, 다시 한번 그들의 고소장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대강 이런 것입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죄인이다. 그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나라에서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따로 새로운 신령²² 따위를 믿고 있다. 이것이 그 고발입니다. 이제 이 고발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기로 합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내가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테나이의여러분, 도리어 멜레토스야말로 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던 일에 관해서 사뭇 성실하고 걱정이 되는 체하면서, 경솔하게도 사람들을 송사(訟事)에 끌어들여, 엄숙한 일을 장난삼아 하고 있기 때문입 오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사실이란 것을 여러분에게도 밝혀 드리겠습니다.

22 daimonia는 소크라테스의 일생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그가 형용사적으로 사용해서 신에 관계되는 모든 걸 뜻했다. 일반적으로 희랍 사람이 말하는 daimon이란 낮은 위치의 신들로서, 사람과 관계가 깊은 수호신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형용사이면서 명사로서도 쓰이는 daimonion (daimon적인 것)은 이성(理性)을 넘어선 것으로 마음속에 갑자기 암시적으로 알려지는 소리 없는 소리이다. 아마 소크라테스 자신도 무엇이라고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경고하고 막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열렬한 합리주의자였지만,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신의 전지전능한 이성을 향한 그의 종교적 경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이모나온은 아테나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소크라테스 개인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테나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혐의찍은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중오로까지 뻗치게 된 것이 었다.

12.

자, 멜레토스, 이리 나와서 말하게. 어떤가, 자네가 뭣보다도 대단하게 여기는 것 d 은 젊은이들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선량해지는 것이겠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말하게, 누가 젊은이들을 선량하게 만드는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자넨 알고 있을 터이니까. 왜냐하면, 자네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사람을 찾아내기나 했다는 듯이, 나를 고발해서 이 사람들 앞에 끌어냈으니 말일세. 자, 그렇다면 말하게나, 선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분들에게 알려주게—그것 보게, 멜레토스, 자넨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며, 내가 말한 것, 즉 자네는 여기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의 충분한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어쨌든 말해 주게, 이 사람아, 그들을 선량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란 무엇인가? 법률입니다.

e 그러나 그걸 묻고 있는 것은 아니야. 여보게, 나는 사람을 묻고 있는 것일세. 우선, 바로 그 법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

그건, 소크라테스 님, 저기 있는 재판관입니다.

무슨 소릴 하는 건가, 멜레토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더욱 선량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고말고요.

그들 모두가 그렇다는 건가? 아니면, 그들 중의 더러는 그렇고 더러는 안 그렇다 는 건가?

모두가 그렇죠.

이건, 헤라²³에 맹세코, 옳거니. 그러고 보면 선량하게 이끌어 주는 사람은 어지간 히 많기도 하군. 그렇다면 어떻겠나? 여기 있는 방청인들도 더욱 선량하게 이끌어 주는 사람인가, 아닌가?

25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의정원²⁴ 의원들은 어떤가?

의정원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멜레토스, 국민 의회²⁵ 사람들, 즉 그 의원들이 설마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일이야 없겠지? 아니, 그들도 모두 선량하게 이끌어 주겠지?

그들도 그렇죠.

그렇다면 나만 빼놓고는 아테나이 사람 전부가 그들을 훌륭하고 선량하게 만드는데, 나만이 그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로군. 그런 말이겠지?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적으로 내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자네는 내가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춰 낸 셈일세. 그러면 대답해 주게.

²³ 혜라 : 제우스의 아내로서 최고의 여신. 결혼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의 성생활의 수호신. 이 여신의 이름이 맹세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²⁴ 의정원(議政院: Boule)의 의원은 5백 명. 아테나이의 10부족에서 각각 50명씩 뽑힌 사람들로 구성되고, 각 부족은 추첨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의사(議事)의 당번이 된다. 다음에 나오는 국민 의회보다는 권한이 컸다.

²⁵ 국민 의회(Eklesia)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입법 기관. 실권이 없다가, 솔론의 개혁을 거쳐 차차 유력해졌다.

b 자네는 말[馬]에 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 길들이는데, 누군가 한 사람만이 나쁘게 만드는가? 또는 그와 반대로 말을 훌륭하게 할 수있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뿐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마술가(魔術家)들 뿐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을 다루거나 부려서 쓰면 도리어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어떤가, 멜레토스, 말이나 그 밖의 다른 짐승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가? 자네나아니토스가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네. 왜냐하면 만약 젊은이들에 관해서 단 한 사람만이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 밖의 사람들은 다 그들을이 이롭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는얼마나 다행스런일이겠나? 그러나 멜레토스, 자네가 젊은이들일에는 한번도 걱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고, 즉나를 여기다 끌어낸일에 관해서 자년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자네 자신의 무관심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네.

13.

그런데 제우스신께 맹세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 주게, 멜레토스. 함께 살기에는 좋은 국민과 나쁜 국민 중 어느 편이 더 좋을까? 자, 여보게, 대답해 주게. 내가 묻고 있는 건 별로 어려운 질문도 아니니. 나쁜 사람은 늘 이웃에게 나쁜 짓을하지만, 좋은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고말고요

d 그렇다면 자기와 사귀는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해를 입기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여보게, 대답하게나. 마침 법률도 자네에게 대답하기를 명령하고 있으니. 도대체 해를 입기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없죠

자,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더욱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나를 여기다 끌어냈는데. 내가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단 말인가?

일부러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멜레토스, 대체 어떻게 되는 셈인가? 자네는 젊은 나이로 늙은 나이의 나보다 그렇게까지 훨씬 지혜로우니, 나쁜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늘 뭣인가 해롭게 하고. 선량한 사람은 뭣인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자네 알고 있는데,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의 누군가를 나쁘게 만든다면, 나 자신도 e 그에게서 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조차 모를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무지해서, 그 결과 내가 일부러 그런 큰 앙화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자넨 주장하지 만, 그럴까? 자네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멜레토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믿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네. 오히려 나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지 않거나. 타 락시키고 있다 해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자네는 그 어느 36 것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일세. 그런데 만약 내가 일부러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본의 아닌 잘못 때문에 나를 이런 자리에 끌어내는 것은 옳지 못하고, 오히려 자네는 나를 사사로이 만나서, 가르쳐 일러주었어야 했네. 왜 그러 냐 하면, 내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일부러 하는 일이 아닌 바에야 나도 그만뒀을 것 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자네는 나를 만나서 가르쳐 주기가 싫어서 피하고. 그 대신 가르침이 아니라 처벌이나 받아야 할 사람이 불려 오도록 정해진 이런 자리에 나 를 끌어다 놓았네.

14.

그러나 어쨌든, 아테나이의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멜레토스가 이런 일에는 크건 작건 한 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젠 분명해졌으니, 그만해 둡시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 멜레토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자넨 주장하는 건가? 그야 물론 자네의 고소장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 따위를

믿으라고 가르쳤다는 것이겠지? 자네 말은 내가 그런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타락 시킨다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야말로 전적으로 내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멜레토스, 우리가 금방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신들께 맹세코,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이 자리의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 주게. 왜냐하면 나로서는 자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를 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즉 뭔가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나도 가르치고 있고—따라서 나 자신도 뭔가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 내가 철저히 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점에서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다만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믿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자네가 나를 고발하는 죄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도대체 신들을 믿지 않고, 또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자넨 주장하는 것이군?
 -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전혀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d 놀라운 일이로군, 멜레토스. 자넨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이 믿듯이, 해와 달이 신이라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단 말인가? 제우스에 맹세코, 그렇습니다. 재판관 여러분, 그는 해를 돌이라고, 달을 흙이라고 주장하니까요.

여보게, 멜레토스, 자넨 아낙사고라스²⁶를 고발하고 있는 셈인가? 자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업신여기고, 이 사람들이 클라조메나이 사람인 아낙사고라스의 책이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가? 게다가 젊은이들이 내게서 배우는 것은, 어쩌다가 오케스트라²⁷에 들러서 고작 1드라크메²⁸만 내면 살 수 있는 것인데도, 소크라테스가 만약 그것을 제 것인 여 체한다면, 더군다나 그것이 해괴한 학설일 경우엔 그를 비웃겠지? 어쨌든 제우스에 맹세코, 자네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떤 신의 존재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고말고요. 제우스에 맹세코. 당신은 전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네 말은 못 믿겠는걸. 멜레토스, 내 생각으론, 아마 자네 자신에게도 믿어지지

²⁶ 아낙사고라스(B.C. 500~428): 자연 철학자. 기원전 468~467년 다아다넬스 해협에 떨어진 운석(隕石)으로 해서, 천체에 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페리클레스의 식객으로 30년 동안 아테나이에 머물면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며, 소크라테스도 그의 제자에게서 배웠다 한다. 그러나 그는 페리클레스의 정적들로부터 그의 천문학설, 즉 여기서 멜레토스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학설 때문에 불경좌에 걸려, 만년에는 희랍북쪽 지방으로 은퇴하였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²⁷ 오케스트라: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극장의 무대 앞에 가무단歐舞團이 노래에 곁들여서 춤도 추는 자리. 또 하나는 '아고라'라고 하는, 전 국민이 모이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 이 경우에는, 그중앙의 광장에 있는 시장에서 책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했을 것이다. 그곳에 서점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본문의 말로 보아서 달리 해석할 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²⁸ 주석12를 참조.

27 않을 걸세.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아테나이의 여러분, 매우 건방지고 버릇없는 사람 같고, 바로 이 건방지고 버릇없고 젊은 혈기로 이 고소장을 적어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사람이 수수께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시험에 걸고 있는 듯싶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내가 농담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 과연 그것을 알아챌까? 또는 그이와 그 밖에 다른 청중까지 도 속일 수 있을까?'하는 셈이겠지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고소장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믿지 않으면서, 신들을 믿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으로 나 할 말입니다.

15.

그러면 여러분, 그의 그 말이 어째서 내게 그렇게 생각되었는지 나와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멜레토스, 자넨 우리에게 대답해 주게.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처음엔 부탁드린²⁹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늘 하는 버릇대로 말하더라도 소란하게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9 17c의 '여러분에게 단단히 부탁해 두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멜레토스, 도대체 이 세상에 사람에 관계되는 일은 믿으면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가 있을까? 여러분, 그에게 대답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 러쿵저러쿵 언제까지나 떠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말[馬]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말에 관계되는 일은 믿는 이가 있을까? 또 피리 부는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피리 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가 있을까? 이 사람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네. 자네가 대답하기 싫다면, 자네를 위해서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그것을 말하겠네. 그러나 다음의 질문에는 대답해 주게. 즉, 신령에 관계되는 일을 믿으면서, 신령이 있다는 것 으을 믿지 않는 이가 있을까?

없습니다

참 고마운 말일세. 자네가 이 사람들에게 눌려서 억지로라도 겨우 대답을 했으니. 그런데 내가 새 것이건 오래된 것이건, 그건 어떻든 간에, 신령이 하는 일을 믿고, 그 믿음을 가르친다고 자넨 주장하네만, 그렇다면 자네 말에 따르면 어쨌든 신령 이 하는 일을 믿고 있고, 그것을 자네는 고소장에서도 서약하고 있네. 그러나 만약 내가 신령이 하는 일을 믿는다면, 신령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일일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고말고. 자네가 대답을 안하니 찬성하는 것 으로 보겠네. 그런데 신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들, 또는 신들의 자손이라고 믿고 d 있지 않은가? 그런가, 안 그런가?

과연 그렇죠.

그러면 자네가 주장하듯이 내가 신령들을 믿고 있고 또 그 신령들이 일종의 신들이라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네는 수수께끼를 갖고 농담을 하는 셈이 될 걸세. 즉. 내가 신들을 믿지 않으면서 신령들을 믿고 있는 한. 결국 나는 또다시 신들을

민는다는 것이 자네 주장이 되는 걸세. 그러나 또 한편, 만약 신령이 신들과 님페³⁰나 또는 전설에 있는 다른 여신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庶子)라고 한다면, 신들의 자손이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 신들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것은 마치 말과 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말과 나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어긋난 것이겠지. 그러니 멜레토스, 자네가 이런 고소장을 적어낸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를 무슨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정당할는지 몰라 당황해서 저지른 결과라고 밖엔 생각되지 않네. 자네가 조금이라도 분별 있는 어느 사람에게 대해서, 신령에 관계되는 것과 신에 관계되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이 신령도 신들도 영웅신³¹도 믿지 않을 수 있다고 설득시키려 해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세.

³⁰ 님페: 젊고 아름다운, 그리고 미혼인 자연의 여신. 산, 물, 숲, 나무 또한 장소, 고장, 도시 그리고 나라의 신적인 힘을 나타냄.

³¹ 헤로스(heros): 반은 신, 반은 사람, 또는 신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숭배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초인간적인 영웅이라는 뜻도 여기서 나왔다.

16.

자, 그러면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멜레토스의 고소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님은 다 변명치 않아도 이만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나에 대한 숱한 미움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씌운다면, 그 씌우는 것은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아니고, 바로 이것, 즉 많은 사람들의 중상과시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죄를 씌워 왔고, 아마 앞으로도 죄를 씌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게서 마지막이 되는 일은, 아마 결코 방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요.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크라 테스? 지금 그대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니!'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즉, 자네 말은 옳지 않아, 이 사람아. 자네가 만약, 조금이라도 무슨 쓸모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가 일을 할 경우엔 그 행위가 과연 옳은가 그른가, 또는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인가, 악한 사람이 하는 일인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 말일

세. 왜냐하면 자네의 논법에 따르면, 트로이아 성(城)³² 죽은 모든 영웅신들, 특히 테티스³³의 아들까지도 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겠으니 말일세. 헥토르³⁴를 죽일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그에게 여신인 그의 어머니가 타일렀는데도 욕을 당하는 일에다 비하면, 위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세. 그 여신의 말은, 내 생각으로는 대충 이랬을 걸세. '내 아들아, 네가 죽은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헥토르를 죽이면 너도 죽게 된다—헥토르에 이어서 당장 죽는다는 것이 너의 타고난 운명이니까'—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듣고서도 죽음이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비겁하게 살면서 친구의 복수도 못 하는 것을 오히려 훨씬 더두려워해서 그는 말하기를, '옳지 못한 짓을 한 자에게 벌을 줄 수만 있다면, 당장 축어도 한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서 땅 위의 짐이 되어, 뱃머리가 굽은 배 옆에서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⁵⁵하고. 그대는 설마, 그때 그가 죽음이나 위험을 걱정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³² 트로이아 전쟁(희랍 사람의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1184년에 일어났다 함)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다. 희랍 사람이 다아다넬스 해협 입구의 아시아 쪽에 있는 트로이아를 원정하여 이것을 정복시킨 전쟁. 이 전쟁 중의 두 가지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주제가 되고 있다.

³³ 테티스:바다의 여신.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와의 사이에서 《일리아스》의 주인공 아킬레우스가 태어났다.

³⁴ 헥토르:《일리아스》에서, 트로이아 측의 주인공, 희랍 측의 아킬레우스와 결정하여 죽는다.

^{35 《}일리아스》 XVIII, 94 이하 참조.

아테나이의 여러분, 그건 사실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스스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고서 거기에 있는 것이든, 또는 그곳이 윗사람이 정해준 곳이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거기 머물러야 하며, 죽음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도 우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17.

아테나이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뽑아낸 내 지휘관의 명령으로 배치된 곳에서는 포테이다이아³⁶에서든, 암피폴리스³⁷에서든, 또는 델리온³⁸에서든, 다른 많은 사람 e

- 36 포테이다이아: 다음 두 고장과 함께 소크라테스가 전투에 참가했던 곳. 포테이다이아는 북부 발간의 마케도니아의 동남쪽 반도 끝에 있는 도시. 코린토스의 식민지였는데, 델로스 동맹에 가입하여 아테나이와 코린토스 사이에서 난처해졌지만, 결국 아테나이의 원정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 싸움터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인내력과 용기에 관해서는 플라톤의 《잔치》 참조.
- 37 암퍼폴리스 : 북부 발간의 트라케 지방 서쪽에 있는 도시. 페리클레스 정권 때(B.C. 426), 아테나이 사람들이 건설한 주요 도시들 중의 하나. 기원전 424년에 스파르타에 빼앗겼다가, 기원전 422년에 아테나이가 원정군을 보냈으나, 아테나이의 니키아스 장군에 의해서 일단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 당시 47세가 되는 소크라테스가 종군했다고 전해지지만 분명치는 않다.
- 38 델리온은 보이오티아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고장. 기원전 424년, 아테나이는 이 요지를 점령하려 했으나, 그 계획이 적에게 새어 작전은 실패하고 점령했다가 다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보이오티아의 추적으로 매우 고전을 겪었다. 이 때의 소크라테스의 침착한 용기가 전해지고 있다.

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굳게 지켜 죽음의 위험을 당했던 나였는데, 내가 믿고 해 석하는 바로는, 이제 만약 신께서 나 자신도 남도 검토하여 지혜를 사랑하면서 살 29 아가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도. 거기서 죽음이나 그 밖의 위험이 두려워서 맡은 곳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때야말로 내가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나를 법정으로 끌어내 는 것이 정당한 이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을 믿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 고, 또한 지혜가 없으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서 지혜가 있는 듯이 생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일이니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가 장 나쁜 것임을 잘 알고 있기나 한 것처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말로 가장 비난 받을 만한 무식, 즉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는 무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도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고, 따 라서 만약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즉. 나는 저승의 일에 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는 점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신에게든 사람에 게든 훨씬 선량한 자에게 따르지 않는 것은 악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악하다고 알고 있는 그 악 대신에 선일는지도 모르는 것을 c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여러분이 이제 아니토 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놓아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억하겠지만, 그 가 '여러분이 애당초 그를 이 법정에 끌어내지를 않았었거나, 일단 끌어냈으면 결 단코 그를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건 그가 이제와서 풀려 나 간다면, 여러분의 자제들은 곧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실행하여, 모두들 아주 타 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는데—여기 관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 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소크라테스, 이번엔 아니토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을 놓

아 주겠지만, 그러나 거기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런 따지는 생활을 하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오. 만약 또다시 그런 짓을 하다가 잡히면, 그때는 죽을 줄 아오'—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바와 같은 조건으로 나를 놓아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즉, 아데테나이의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깊은 정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신을 따르겠고, 또 이목숨 다할 때까지, 그리고 힘닿는 데까지 지혜를 사랑할 것이며,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타이르고 밝혀낼 것이며, 내가 늘하는 말로 이렇게 가르치기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이 훌륭한 사람아, 자네는 지혜와 세력에서 그토록 이름 높은 이위대한 나라인 아테나이의 국민이면서, 될 수만 있으면 재물이나 많이 차지하고 싶다든가, 명예나 지위 으를 얻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뿐, 사려라든가, 진리라든가, 또한 자기의 정신을 될 수 있는 데까지 훌륭하도록 하기에는 마음도 쓰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는가'?" 라고,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이것과는 의견을 달리해서, 자기는 그것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놓아 보내지는 않고—나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서, 오히려 그에게 묻고,

³⁹ 재물을 구하는 자, 명예를 구하는 자, 지혜와 진리를 구하는 자—이 세 구별은 이미 피타고라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구별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따지고, 또 시험하여, 그가 만약 덕⁴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가지고 있다고 주 장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홀히 생각하고 오히려 가장 보잘 것없는 것을 귀히 여긴다고 그를 나무랄 것입니다. 나는 늙은이건 젊은이건 딴 나라 사람이건 내 나라 사람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더욱이 핏줄이 나와 같이 가까운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할 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신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인데, 이 점을 잘 알아두기 바라고, 또한 당신들을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이 봉사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아직 이 나라에 한 번도 없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중의 늙은이건 젊은이건 누구에게나, 될 수 있는 데까지 정신이 훌륭해지도록 열심히 마음을 써야 하고 그보다 먼저 또는 그만큼 열심히 육체나 재물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한 '아무리 재물을 쌓아 올려도 거기서 훌륭한 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도, 그 밖에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들도, 공사 간에 정신의 훌륭함에서 생긴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말로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해로운 일일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만약 이것과는 다른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⁴⁰ 덕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 도덕의 그것을 생각하지만, 희랍사람의 arete란 일반적으로 무엇이든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에 갖춘 훌륭함(優秀性, 卓越性)을 말한다. 도덕의 덕은 그 특수한 경우, 즉 사람의 의지와 행위에 있어서의 훌륭함을 의미한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점에서, 아테나이의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토스의 말에 따르건 말건, 또 나를 놓아 주건 말건, 어쨌든 간에, 비록 이 몸이 여러 번 고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이 밖의 일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 주기 바랍니다.

18.

떠들지 말기 바랍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아무쪼록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 을 지켜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내 말을 들어 주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말 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좀 더 말할 것이 있는 데, 아마 그것을 들으면 여러분은 소릴 지르겠지만, 결코 그렇겐 하지 말기 바랍니 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기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 나를 사형에 처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말하는 바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보다도 오히려 여러 분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레토스도 아니토스도 d 결코 나를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되니까요--그 까닭은, 훌륭한 사람이 그만 못한 사람에게서 해를 입는 일은 허 락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그가 나를 아마 사형에 처하 거나 추방하거나, 또는 시민권을 빼앗거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아마 그도 남 들처럼 그런 일이 매우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 고, 오히려 나에게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짓, 즉 사람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죽이 려는 일이 더욱 악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 해서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나 는 훨씬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를 벌함으로써. 신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에 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 다. 왜냐하면 만약 나를 죽인다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

이기 때문이며, 아닌 게 아니라—좀 우습게 들릴는지도 모르지만—나라는 사람은 신이 이 나라에 붙여 놓은 것인데. 이 나라는 마치 덩치가 크고 혈통이 좋은 말과 같아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둔하여, 깨어 있으려면 무엇인가 따끔한 등에 같 은 것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가서 여러분들과 마주앉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온종일 그침없이 타이르고 나무라도록 하기 위해 신께서 나를 이 나라에 그 등에처럼 붙여 놓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시는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니, 여러분, 내 말을 알아 듣는다면 나를 아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선잠을 깬 사람처럼 화를 내고. 아니토스의 말을 믿고서 나를 때려잡아 경솔하게 죽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신께서 여 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 주시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 를 늘 졸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신께서 이 나라에 보낸 사람 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보아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즉. 내가 나 자 b 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 해 동안 집안일을 돌보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고, 아 무에게나 사사로이 다가가서,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정신을 훌륭히 하기에 마음 을 쓰도록 타이르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에서 무엇인 가 얻는 것이라도 있고, 내 휴계에 보수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런 일을 하여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자신도 보시다시피, 나의 고소인들은 다른 모 든 일에서는 그렇게도 염치없이 고소를 하면서도, 이 문제에서만은 내가 지금까지 c 어느 누구에게서 보수를 받았다거나 요구했다고 증인이라도 댈 만큼. 그렇게까지 염치없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 거를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나의 가난입니다.

19.

내가 바삐 돌아다니면서 사사로이 그렇게 충고를 하면서 부질없는 참견을 하지 만. 공적인 모임에 나타나서 나라에 대해서는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을 아마 이상하 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여기저기서 내가 말하는 것을 자주 들은 적이 있는 바로 그것, 즉 나에게 자주 나타나는 일종 ₫ 의 신의 알림이라든가, 신령스런 것인데, 그것은 멜레토스도 고소장에다 익살스럽 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어려서부터 시작된 일로서, 일종의 목소 리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늘 무엇이건 내가 하려는 것을 막으려 는 때이며, 결코 무엇을 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정치에 관여 하기를 반대하고 있거니와, 그 반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 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일찍이 어지러운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더라면 틀림없이 벌 써 몸을 망치고. 여러분이나 나 자신에게나 아무 이로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런데 내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 많은 사람들에게도 외곬으로 반대해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불법적 인 일을 막으려는 사람은 누구이건 그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정녕 정의를 위해서 싸우려는 사람은, 그가 잠시라도 목숨을 부지하려면 반드시 사사로 이 살아갈 것이지. 공적인 사람으로 처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

나는 여기에 관한 유력한 증거, 말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더욱 존중하는 것, 즉 사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일어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것은 내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이 두려워서 정의를 어기면서까지 굽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굽히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십

사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은, 법정에서 흔히 듣는 속된 것이 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 아테나이의 여러분, 나는 이 나 라에서 지금까지 어떤 공직에도 있었던 일이 없지만, 의정원의 한 사람이 됐던 일 ⁴¹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안티오키스 부족(部族)이 의사(議事) 담당 차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열 명의 장군들을 그 해전(海戰)이 끝난 다음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다 해서 한꺼번에 재판할 것을 의결했었지만, ⁴² 그 후에 여러분이다 인정했듯이 ⁴³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원 중에서 오직 나한 사람만이 여러분에게 반대하여, 국법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의원들은 나를 사뭇 당장에라도 고발하여 구속하려 들 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구속이나 죽음이 두려워서 잘

- 41 주석24 참조. 각 부족은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여 1년의 10분의 1, 즉 35일 또는 36일 동안(이 기간을 Prytaneia라 함)을 돌아가면서 50명의 의장단(Prytaneis)이 정무를 담당한다. 이 의장단에서 의장(Epistates) 한 사람을 제비로 뽑는데, 24시간만 근무하고 그 이상이나 재임은 안 된다. 소크라테스도 한 번 의장이 된 일이 있었으리라 한다.
- 42 기원전 406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날 무렴, 소아시아의 해안과 레스보스 섬에서 가까운 아르기누사이 섬 앞에서 해전이 벌어져, 아테나이가 이기긴 했지만, 다소 손실도 있었다. 그때 파손된 배의 승무원들이 폭풍우 때문에 구조되지 못했다 하여, 열 사람의 장군들 중 실제로는 여섯 사람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각자의 진술도 듣고 개별적으로 판결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재판관들은 당파심에 치우쳐, 피고들을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내려 처형하고 말았다.
- 43 여섯 사람의 장군들이 사형된지 얼마 안 되어, 아테나이 사람들은 그 처사를 뉘우치고 국민을 속였다 하여 유죄 판결을 결의한 사람들을 도리어 고소하게 되었다.

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여러분과 한패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법률과 정의의 편에 서서 모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아직민주 제도 밑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과두(寡頭)⁴⁴정치가 행해진 다음에는, 이번에 그 '30인의 의원'이 또다시 나와 다른 네 사람을 그들의 정청(政廳)⁴⁵으로 불러들여, 살라미스 사람인 레온을 죽이기 위해서 살라미스로부터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자기들과 같은 죄로 몰아넣으려고 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많이 내렸던 것입니다. ⁴⁶ 그러 여나 그때도 나는, 죽음이라는 말이 과히 거친 표현이 아니라면,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결코 부정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나의 온갖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한번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

⁴⁴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아테나이의 패전으로 끝나자, 아테나이에서는 스파르타의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망명에서 돌아온 크리티아스를 중심으로 이른바 30인 독재 정치가 시행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새 헌법의 제정 위원이었는데, 전시 중의 범법자들을 찾아내서 처벌한다던 것이 점차 공포 정치로 변모해 갔다.

⁴⁵ 여기서 일반 용어로 관청이라고 옮긴 원말 Tholos는 둘레가 둥글고 자붕이 우산 같은 건물, 곧 원당圓堂)을 말함. 건물의 생김새를 따서 붙인 이름이지만, 건물에는 의정원(議政院)의 의사당, 그리고 의원들을 위한 식당도 있었다.

^{46 &#}x27;30'인 의원들의 혁명 바람에, 죄없는 사람들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어간 일이 적지 않았었는데, 특히 정직한 시민으로 알려진 아테나이의 장군 레온도 그 억울한 사람들 중의 하나인 듯하며, 그를 잡으러 간 사람 중에 멜레토스라는 이름이 있으나, 그가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멜레토스와 같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나 하면, 그 정권이 그토록 강력하긴 했지만, 나에게 부정한 일을 하도록 위협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청을 물러나온 다음, 다른 네 사람은 살라미스로 가서 레온을 데려왔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정권이 곧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일로 해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다. 이 일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증인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47

21.

그런데 내가 공직에 있다고 치고 거기서 선량한 사람답게 일을 하여 옳은 사람을 돕고, 또한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면, 내가 그러고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남을 수 있었으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아테나이의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 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통해서 공적으로 무엇인가 한 일이 있다 해도, 나는 언제나 지금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

⁴⁷ 여기 이어서 증인의 증언이 있다.

지만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또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내 제자⁴⁸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도, 정의를 어기면서까지 굽힌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한 번도 어느 누구의 스승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 자신이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젊은이건 늙은이건 누구에게도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고 또 돈을 받으면 문답을 하지만, 안 받으면 안 한다는 일도 없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의 질문에도 나 자신을 내맡길 뿐만 아니라, 내가 질문을 하길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답하게 하고, 무엇이든 내가 말하려는 것에 관해서 귀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중에 누가 잘 되건 못 되건,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학문을 가르치겠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어느 누군가가, 다른 모든 사람이 배우거나 듣거나 하지 못했던 뭔가를 내게서 사사로이 배웠다든가 들었다고 말한다 해도. 그 말은 정말이 아닙니다.

⁴⁸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은연중 알키비아데스나 크리티아스 같이 혁명을 일으킨 범죄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잔치》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알키비아데스의 찬사를 읽을 수 있는데, 그가 소크라테스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때는 아직 열다섯도 안 된 소년이었다.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가 장성해서도 여전히 소크라테스를 열렬하게 숭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긴 하지만, 결코 소크라테스의 제자라든가, 하물며 그의 측근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크리티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2.

- 그런데 도대체, 어째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나하고 지내길 좋아합니까? 여러분 은 이미 그 까닭을 들었습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남김 없이 말했으니까요. 즉,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검토되는 이야기를 듣기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것은 재미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로 말하면, 신탁이나 꿈을 통해서, 또 그 밖 에 신의 섭리로 인간에게 무엇이든 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전달의 방법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 이것은, 아테나이의 여러분, 사실이기도 하려니와, 따져보기도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과연 어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거나, 또는 이미 다른 사람 를을 타락시켰다면, 그들 중에는 장성한 다음에, 자기가 젊었을 때, 내게는 무슨 나쁜 권유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 나 와서, 나를 고소해서 보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는 원치 않더라도 그들 의 집안의 누군가가, 즉 아버지나 형제나 그 밖에 다른 가까운 친척들이라도, 그들

중 어떤 사람이 내게서 무슨 화를 입었다면, 이젠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복수를 해

야 할 줄 압니다. 과연 여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나와 동갑이며 같은 구(區)에 살고 있고, 여기 있는 크리토불로스의 아버지인 저 크리톤, ⁴⁹ 다음에는 은 여기 있는 아이스키네스⁵⁰의 아버지이고 스페토스 구의 사람인 류사니아스, 그리고 저편에는 안티폰이 있는데, 그는 에피게네스⁵¹의 아버지이며, 케피소스 구의 사람이고 그 밖에도 앞서 말한 방법으로 나와 문답을 즐겼던 사람들의 형제가 저쪽에 보입니다. 테오조티데스의 아들이며 테오도토스와 형제간인 니코스트라토스―테오도토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가 이 사람에게 부탁해서 고소를 못하게했을 리는 없습니다—그리고 또 여기에 데모도코스⁵²의 아들이며 테아게스와 형제인 파랄리오스, 그리고 여기 또 아데이만토스가 있는데, 그는 아리스톤의 아들

⁴⁹ 크리톤: 소크라테스에 대한 헌신적인 친구로서 플라톤의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에게 도망가라고 권했고, 《파이돈》에서는 그의 임종 때에 눈을 감겨 주었으며, 《에우티데모스》에서도 그의 대화의 상대로 등장하고 있다.

⁵⁰ 아이스키네스: 소크라테스의 헌신적인 측근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임종 때에도 있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대화편》의 저자로서 잘 알려져 있고, 이는 그의 표현과 소크라테스의 성격, 또 화술話術)에 대한 충실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단편斷片들이 남아 있다.

⁵¹ 에피게네스 : 역사 소크라테스의 임종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몸이 약해서 소크라테스가 운동을 권했다고도 한다.

^{52 《}테아게스》(플라톤을 모방해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인 듯)에 보면, 데모도코스는 소크라테스보다 나이가 많고 국정(國政)의 최고위층에 있었다 한다. 테아게스도 이 재판(裁判) 때는 이미 죽어서 없었는데, 플라톤의 《국가》에서 보면, 그는 병때문에 정치 생활을 단념하고 철학을 하게 되었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하고 있다.

이며, 그와 형제가 되는 사람인 저기 있는 플라톤, 58 그리고 여기 있는 아폴로도로 스, 54 그리고 그와 형제간인 아이안토도로스도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멜레토스는 그의 변론 가운데서 이들 중의 누군가를 중인으로 내세워야 옳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잊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들을 내세워야지요—내가 발언을 양보할 터이니—무엇인가 그런 증거가 있거든, 그가 말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와 전혀 반대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멜레토스나 아니토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 친척들에게 해를 끼치는 나를, 실은 모두들 도우려고 온 것입니다. 해를 입은 사람들 자신에게는 나를 도울 만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해를 입지도 않고, 이미 나이도 든 그들의 친척들이, 나를 도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들이, 나는 진실을 말하고 멜레토스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는, 옳고 바른 이유 밖에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55

⁵³ 플라톤 자신이 자기 이름을 그의 저작((편지) 이외에)에서 들고 있는 것은, 이 《변명》에서 두 번, 《파이돈》(59b10)에서 한 번, 합해서 세 번뿐이다. 이 재판 때, 플라톤은 28세쯤이었다.

⁵⁴ 아폴로도로스: 플라톤의 《잔치》에서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소크라테스의 측근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의 열렬한 숭배자로 나타나고 있다. 《파이돈》에서 보면 그도 소크라테스의 임종을 지켰고, 그때 매우 애통해 했었다 한다.

⁵⁵ 계속해서 증인이 증언을 한다.

23.

자, 여러분, 그건 그렇다 합시다. 내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이고 더 말한다 해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 한 일이 생각나서, 아마 비위를 거슬린 사람도 있겠지요. 그는 이보다 작은 송사(訟事)에 걸려들 어었어도, 숱한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관들에게 애걸복걸하여, 조금이라도 더 동정을 얻을까 해서 자기의 애들, 친척, 친구들을 많이 끌어들였지만, 나로 말하면, 이렇게 크나큰 위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서도, 조금도 그런 짓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런 일이 생각나서 나에 대해 울화가 치밀어, 바로 그 일로 해서 화를 내고, 홧김에 유죄 투표를 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지요. 만약 여러분 중에 과연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지는 여 않지만, 만약에 있다면—그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보시오, 나에게도 가족이 몇 사람은 있습니다. 나라고 해서, 마침 호메로스의 말에도 있듯이, '나무나 돌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56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 가족도 있고, 아들도, 아테나이의 여러분, 셋이 있는데, 한 애는 이미 장성했지만, 두 애는 아직

^{56 《}오디세이아》 XIX, 163 참조.

어립니다. 57 그러나 어느 한 애라도 여기 데려다가 여러분에게 무죄가 되기 위한 투표를 애걸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어째서 나는 그 어느 한 가지도 하려 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고집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테나이의 여러 e 분. 여러분을 업신여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태연한지 않은지 는 그만 두고라도, 체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이건 거짓말이건, 내가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이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또 나라 전체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니와, 그것은 어쨌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이 어딘가 뭇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미 정해진 세평(世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지혜나 용기나 또는 그 밖에 어떤 덕성에서든지 남보다 뛰어 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런 몰골이라면, 그건 창피한 노릇일 겁니다. 나는, 이 렇다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사람이, 막상 재판을 받게 될 때는 여러분이 사형에만 처하지 않는다면 영영 죽지 않을 것처럼. 사형이라는 것을 무슨 큰 일이 나 되는 듯이 생각해서. 망측하게 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b 런 사람들은 이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들이고.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 리 아테나이 사람 중에 훌륭한 덕성을 지녀서 국민들이 나라의 중요한 벼슬이나 그 밖의 영광스런 자리에 자기들 중에서 뽑아 놓은 사람이라 해도, 부녀자나 조금

⁵⁷ 큰 아들은 람프로클레스, 그 아래로 소프로니스코스와 메네크세노스, 큰 아들과 다른 아들들 사이에는 나이 차가 많다. 소크라테스의 재혼설로 보아. 배다른 형제들이라고도 전한다.

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테나이의 여러분, 다소라도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오히려 그런 불쌍한 연극을 해서, 이 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은, 태연하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

명성에 관해서는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재판관에게 청탁을 한다든가. 청탁으로 벌을 면한다든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관은 정당한 일에서 정실(情實)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해서 정실에 끌릴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재 판하기를 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 서약을 저버리는 버릇을 붙여 주어도 안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런 버릇에 빠져서도 안 됩니 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두 가지가 다 신을 공경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 니다. 그러니,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보기에 좋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나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제우스에 맹세코 부탁인데. 내가 바로 불경스럽다고 해서. 여기 있는 멜레 토스에게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왜 그러 냐 하면, 내가 여러분을 설복시켜서, 여러분이 일껏 서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갓요한다면, 분명히 나는 여러분에게 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 는 일이 되고, 따라서 내가 변명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나 자신이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스스로 고발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테나이의 여러분. 나는 내 고발인들 중의 어느 누구보다도 신들

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떻게든 가장 좋 도록 나를 심판해 주길 여러분과 신께 맡깁니다.⁵⁸

25.

e 아테나이의 여러분, 50 여러분은 내게 유죄 투표를 했는데, 내가 이 결과를 분하게 50 느끼지 않는 데에는,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더욱이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 짐작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훨씬 이상히 여겨지는 것은, 여기 나타난 양편의 표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이렇게 표수의 차가 적을 줄은 몰랐고, 더 큰 차가 있으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30표만이라도 반대편으로 갔더라면, 나는 무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50 그래서 나는 멜레토스에 대해서만은, 지금도 전적으로 무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죄일 뿐만 아니

⁵⁸ 여기 이어서 죄의 유무가 투표로 결정된다.

⁵⁹ 이 말이 끝나고서, 이어서 형량을 정하기 위하여 또다시 피고인 소크라테스의 진술이 있게 된다.

⁶⁰ 아테나이의 법률에서는 찬반 투표가 똑같을 경우에, 즉 의정원 의원 5백 명의 반인 2백 50표씩이면 무죄가 되었을 것인데, 30표의 차이라니까 유죄 투표를 한 사람은 2백 80표, 무죄 투표를 한 사람은 2백 20표가 되어야 한다. 250+30=280, 500-280=220, 따라서 '30표만이라도 반대편으로 갔더라면'이란 말은 '찬반 동수가 되었더라면'의 뜻이 된다. 그러나 이 5백 명 제도가 나중에는, 동수의 경우를 막고 찬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5백 1명 제도로 바뀌었다.

라, 어쨌든 누구에게나 분명한 일이지만, 만약 아니토스와 리콘이 나를 고발하러 여기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표수의 5분의 1도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1 \ b$ 천 드라크메의 벌금을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61

26.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사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그 대신 나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형을 제의해야 합니까?⁶² 내게 맞는 형량이라야겠지요. 그러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흔히들 마음을 쓰고 있는 돈벌이라든가, 살림이라든가, 군대의 지휘라든가, 정치 활동이라든가, 그 밖의 모든 벼슬자리라든가, 나라에서 생기고 있는 파벌이나 당파에 무심했다고 해서, 말하자면 이런 일들에 관여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내가 진정 너무나 선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

⁶¹ 원고가 5백의 5분의 1, 즉 1백 표를 얻지 못하면 1천 드라크메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경솔한 고소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그런데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이 얻은 표가 2백 80표니까, 만약 원고가 멜레토스 한 사람이었다면, 그 3분의 1, 즉 93과 3분의 1표 밖에 안 되어, 전 투표자의 5분의 1, 즉 1백 표에 미달이었을 것이다.

⁶² 앞서의 투표로 소크라테스의 유죄는 결정되었지만 형벌의 종류는 재판관이 정하되, 원고 측의 제의와 피고 측의 반대 제의를 듣고 그중의 하나를 선고한다.

□ 고 있다고 해서, 나는 무슨 형을 받고 무엇을 치러야 마땅하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된 곳에는 가지를 않았고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 곳에만 갔던 것입니다. 즉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에 마음을 쓰기보다 앞서서, 우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써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선량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나라에 속해 있는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앞서서, 먼저 나라자체에 마음을 쓰도록, 또한 그 밖의 다른 것에도 이와 같이 마음을 쓰도록, 여러분 중의 각 사람을 설득시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그러면 그런 사람인 나는 대체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아테나이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이라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내게 알맞은, 그런 좋은 것이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사람에게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테나이의 여러분, 영빈관 ⁶³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보다 더 알맞은 것은 없는데, 그것은 여러분 중의 누군 가가 올림피아의 경기에서 승마로, 또는 두 필이나 네 필의 마차로 우승했을 때에

⁶³ 영빈관(Prytaneion)은 의정원 의장단(Prytaneis)의 회의장, 나라의 공식적 잔치 때 외국 사절,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전몰유가족, 올림피아 경기의 우승자 등이 초청되는 곳. 의정원 의장단의 식당이 있는 원당個堂 : Tholos)은 따로 있었던 것 같다.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여러분을 행복한 듯이 여기게 해주지만, 나는 실제로 행복하게 해주며, 게다가 그에게는 음식의 대접이 필요없지만, 나에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e에 따라서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제의합니다. 즉 영빈관에서 37의 음식의 대접입니다.

27.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앞서 내가 동정을 받기 위한 애결복걸에 관해서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집을 부려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테나이의 여러분, 실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일부러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적은 없다고 확신하지만, 단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확신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딴 나라⁶⁴에서 처럼, 사형에 관한 재판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야 한다는 법률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더라면, 아마 여러분에게 확신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

64 여기서 다른 나라란, 스파르타의 제도를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b 금은 이렇게 짧은 시간⁶⁵에 그렇게 크나큰 중상을 벗겨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옳지 못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옳지 않게 해서, 나 자신이 무엇인가 해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스스로 말하여, 나 자신에게 그런 벌을 주자고 제의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나에 대한 멜레토스의 구형을 당하기가 두려워선가요? 그런 것 대신에, 무엇인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택해서, 그것을 구형해 달라고 제의해야 할까요? 구류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째서 그때 그때의 관리, 즉 열한 사람의 관리⁶⁶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히려 벌금형을 제의하고, 그것을 치를 때까지 구류되어 있어야 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방금 내가말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에게는 치를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라 밖으로 추방당하는 형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구형할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같은 국민인데도,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늘 하는 일과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견뎌 내기 어렵고 싫증나는 것이라서, 지금

⁶⁵ 주석5 참조. 아테나이의 법정에서는 재판은 저녁때를 넘길 수 없고 게다가 원고와 피고에게 일정한 발언 시간이 배정된다. 시간을 물시계로 재며, 당사자 이외에 증인 등이 나와서 발언하는 동안은 물시계를 멈추게 한다.

⁶⁶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형무위원冊務委員이 10부족에서 한 명씩 추첨으로 임명되고 여기다 한 사람의 서기를 두는 조직이 되어 있었다. 간수일 뿐이 아니고 사건에 따라 임무가 많았다.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모를 만큼, 내게 사리를 분간하는 힘이 없다면 나는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딴 나라 사람이라면, 그것을 쉽사리 참아 줄까요? 그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추방된 신세가 되어,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 다니면서 쫓기는 생활을 한다면, 그건 내게는 멋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랬듯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들을 쫓아 버린다면, 이번엔 그들 편에서 어른들을 설복시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버지나 가족들이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를 쫓아낼 것입니다.

28.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요. '우리에게서 떠나거든, 소크라테스, 제발 입 좀 다물고 조용히 살아갈 수 없겠느냐?'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당신들 중의어떤 사람을 설복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만약그것은 신을 거역하는 일이라서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해도, 여러분은 곧이듣질 않고 농담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덕이나 그 밖의 것들에 관해서 날마다 얘기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최대의 선이며, 그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문답하면서 나와 남들을 따져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따져보지 않는 생활이란 사람으로서 사는보람이 없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다 해도, 여러분은 더욱 그 말을 곧이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을 그렇게 믿도록 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뿐만 아니라, 나로서는 내가 무슨 해로운 일을 당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일엔 조금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만약 돈이 있다면, 치를 수 있을 만한 벌금형을 제의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해를

b 입는 일은 없을 터이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겐 그런 돈이 없으니까요. 하기야 여러분이 내가 낼 수 있을 만큼만 벌금을 매기려고 한다면 몰라도 아마 은(銀) 1므나라면, 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그만한 벌금을 제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플라톤과 아테나이의 여러분, 크리톤과 크리토불로스와 아폴로도로스는, 30므나를 제의하라고 내게 권하면서, 자기들이 그 보증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만한 벌금을 제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은화의 믿을 만한 보증인이 될 것입니다. 67

29,

c 길지도 않은 시간으로 해서, 아테나이의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를 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서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악명과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여러분을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록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니까요—만약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저절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내 이미 오래 살아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여러분

67 여기 이어서 판결의 투표가 있다.

전부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내게 사형투표를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그 d 사람들에게는 또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아테나이의 여러분, 무죄가 되기 위해 서는 무슨 짓,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했었더라도 여러분을 설복시 킬 만한 그런 말이 모자라서 유죄가 되었다고.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요. 그 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기야 무엇인가 모자라서 유죄가 되긴 했겠지만, 그것 은 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후안(厚顔)과 무치(無恥)와. 그리고 여러분의 비위에 맞도록 말할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나는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거나 하 e 지도 않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답지 않다고 내가 주장하는 그런 일, 그리고 여러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어오던 그런 일들을 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나는,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어떤 천한 짓을 해도 좋 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변명한 것을 뉘우치지도 않으며, 오히려 나 는 달리 변명하고서 살기보다는. 이렇게 변명하고서 차라리 죽는 편이 훨씬 낫다 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정에서나 싸움터에서나 무슨 일을 해서든지 죽 음을 면하려고 꾀를 부리는 짓은, 나건 누구건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싸움터에서도 무기를 버리고 또 뒤쫓는 적에게 애걸해서 쉽게 죽음을 면하는 39 일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서도, 무슨 짓이든 무슨 말이든 할 생각만 있다면, 죽음을 면하는 길은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란, 여러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편이 죽음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는, 느리고 늙어서 더욱 느린 b 죽음에 잡혔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영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더욱 빠른 것, 즉 악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러분으로부터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지만 여러부은 진리로부터 악과 부정의 선고를 받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도 이 판결에 따르고, 여러분들도 그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겠고. 그래도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30.

그러면 다음엔, 나에게 유죄 투표를 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예언해 두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나도, 사람이 가장 잘 예언하는 바로 그 계제, 즉 죽을 계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형의 판결을 내린 여러분, 나는 말하거니와, 나를 죽인 바로 다음에는 여러분은 내게 내린 사형보다, 제우스께 맹세코, 훨씬 더 괴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활을 따지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반대가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따지려고 드는 사람은 더욱 많아질 것인데, 여러분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그들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젊기 때문에, 더욱 사나워서, 여러분은 더욱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옳지 못하다는 남의 책망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벗어나기란 결코 가능한 일도 아니려니와 훌륭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쉬운 길은, 남을 억누르기보다는 될 수 있는 데까지 스스로 선하도록 힘쓰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형을 투표한 여러분에게는 이만큼 예언하고, 나는 여러분과 작별하렵니다.

31.

그러나 담당 직원들에겐 아직 볼일이 남아 있고, ⁶⁸ 나도 죽을 자리에 가기 전에, 여 은 기서 일어난 일에 관해서, 내게 무죄 투표를 해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동안만 함께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된 동안에 서로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아무 지장도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을 친구로 여겨,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판관⁶⁹ 여러분—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40분들이니까요—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평소에 흔히 듣는 그 신령스런 예언적인 알림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 일생을 통해서 매우 자주 들려와서 내가 하려는 일이 옳지 못할 경우에는, 극히 작은 일에서도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여러분도 직접 보아서 아는 바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흔히 그렇게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아 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 여기 와서 이 법정으로 들어서려고 했을 때도, 또 변론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할 때에도, 신의 그 낌새는 나에게 반대하지 않았던

⁶⁸ 판결의 기록을 만들고, 소크라테스를 구금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동안을 말한다.

⁶⁹ 소크라테스가 '재판관'이라고 부르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의식적으로 그 말을 쓰지 않았던 까닭도 그 다음 말에서 알 수 있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한참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내 말을 중간에 가로막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이 일에 관해서만은, 행동에서나 말에서나, 결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마 좋은 것인 성싶고, 그리고 죽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생각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 큰 증거는 내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만나려는 일이 뭔가 복된 것이 아니라면, 늘 있는 그 낌새가 반대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까요.

32.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큰 희망을 가질 만하다는 것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죽음이란, 다음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이라서, 죽은 사람은 전혀 아무 감각도 없거나, 또는 전해 내려오는 말처럼, 그것은 영혼이 여기서 다른 곳으로 마치 자리를 바꿔서 옮아사는 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아무 감각도 없어서 꿈 한번 꾸지도 않는 잠 같은 것이라면, 죽음 은 놀랄 만한 이득일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생각으론, 만약 사람이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었던 밤을 골라내서, 그 한 밤과 그의 일생 중의 다른 모든 밤낮과 비교해 보고 깊이 생각한 다음, 평생에 몇 낮, 몇 밤을 그 한 밤보

다 더욱 좋게, 더욱 즐겁게 지냈는지 말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대왕⁷⁰ 자신조차도 그런 밤낮은 다른 밤낮과 비교해서, 겨우 손꼽을 정도밖에는 찾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죽음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 전체는, 이렇게 본다면, 하룻밤보다더 길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 죽음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사는 것이고, 따라서 죽은 사람은 다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승에서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저승에서 재판한고 있다는 참다운 재판관들, 미노스라든가, 라다만티스라든가, 아이아코스라든가, 트립톨레모스라든가, 그 밖에 그들의 일생에서 의로웠던 영웅신들을 찾아낸다면, 그렇게 옮아사는 것은 과연 보잘것없는 일일까요?⁷¹ 또는 오르페우스⁷²나 무

⁷⁰ 대왕이란 페르시아 왕, 희랍에서도 세속적 행복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⁷¹ 미노스는 크레타 섬의 왕. 라다만티스는 그 아우. 아이아코스는 아이기나 섬의 입법자. 트립톨레모스는 농사 일의 반신(牛神). 모두 생전에 현명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여, 저승에서 죽은 자의 재판관이 되었다 한다.

⁷² 오르페우스: 호메로스 이전의 최대의 시인이며 음악가. 영혼의 윤화를 교리로 세우고, 금욕을 계율로 정한 오르페우스교의 창설자로 알려져 있다.

사이오스⁷⁸나 헤시오도스⁷⁴나 호메로스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든지 큰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 곳에서 지내는 일은 멋진 것이겠으니까요. 즉 팔라메데스⁷⁵라든가 텔라몬의 아들인 아이아스⁷⁶라든가, 그 밖에도 옳지 못한 재판으로 죽은 옛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겪은 것과 그들이 겪은 것과 비교해 본다면—그건 즐겁지 않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더욱이 가장 큰 즐거움은, 이승 사람들을 그렇게 했듯이, 저승 사람들을 그들 중의 누가 지혜롭고, 누가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지, 문고 따져

- 73 무사이오스: 호메로스 이전의 전설적 시인. 오르페우스의 제자라고도 한다. 그의 이름으로 전하는 신탁집 (神紀集)이 있었는데, 종교적·철학적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플라톤은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해서 말하고 있다.
- 74 해시오도스 : 기원전 700년 무렵의 서사시인. 호메로스보다 좀 뒤의 사람. 많은 작품의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오늘날 남은 것은 《일과 나날》 《신통기(神統記》) 둘 뿐이다.
- 75 팔라메데스: 트로이아 전쟁 때의 지략에 뛰어난 용사. 트로이 측에 내통했다는 배신죄로 사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고한 죄였고 오디세우스가 개인적 감정으로 복수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트로이아를 정복하기로 결정했을 때, 오디세우스가 참가를 꺼려하여 미친 체하는 것을 팔라메데스의 폭로로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한다. 오늘날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고르기아스의 (팔라메데스의 변론)에서 팔라메데스가 자기 변론을 전개한 것은, 흡사 이 《변명》을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운명과 비교해 보게 된다. 플라톤은 물론 그 책을 읽었을 것이다.
- 76 아이아스: 역시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 살라미스 텔라몬의 아들. 아킬레우스가 죽은 뒤 그 유물을 분배할 때 오디세우스와 싸우다가 실패하여, 미쳐서 자살한다.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것. 같은 이름의 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통 텔라몬의 아들이라 하여 다른 아이아스와 구별하다.

보면서 지내는 일입니다. 재판관 여러분, 저 트로이아에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간사람이라든가, 오디세우스라든가, 시시포스⁷⁷라든가, 또는 그 밖에도 수많은 남녀 ©의 이름을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따져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사람들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문답하고 친히 사귀고, 따져보는 것은 무한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곳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이는 일이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 사람들은 다른 점에서도 이곳 사람들보다 행복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과연 옳다면, 특히 앞으로의 삶은 이미 죽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3.

그러나,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좋은 희망을 품어야 하고, 또 이한 가지만은 참된 일로서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즉, 선량한 사람에게 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신들께서도 그의 어떤 일에서든 무심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도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

⁷⁷ 시시포스: 전설로는 코린토스의 왕. 일설로는 오디세우스의 아버지라고도 한다. 항해 무역을 시작했는데, 간계와 부정만 일삼아 저승에 가서 큰 바위를 산마루로 밀어올리는 일을 해야 했다. 그 바위는 위로 밀어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하여, 영원히 그고생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오히려 지금 죽어서 성가신 일을 면하는 편이, 나로서는 분명히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 알림도 결코 나를 막지 않았고 또한 나로서는 나를 유죄라고투표한 사람들이나 고발인들에게 격분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에서 유죄 투표를 하거나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책망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장성해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생각에, 그들이 덕성보다도 재산이나 그 밖의 것에 마음을 쓰는 것 같거든, 내가 여러분을 괴롭힌 것과 똑같이, 그들을 괴롭혀서 보복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만약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이미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 내가 여러분을 나무랐듯이, 마음을 써야 할 데에 마음을 쓰지 않고 또 아무 값어치도 없으면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을 나무래 주기 바랍니다. 여러 분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내 자식들도 여러분에게서 정당한 대접을 받은 셈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위해서,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느 편이 더욱 좋은 일을 만날는지, 그건 신밖엔 아무도 모릅니다.



크리톤

나오는 사람들: 소크라테스, 크리톤1

43 소크라테스 자넨 왜 이 시간에 왔는가, 크리톤. 아직도 꽤 이르지 않은가?

크리톤 하기야 이르긴 하군.

소크라테스 대체 어느 때쯤이나 되었을까?

크리톤 아직 밝기 직전일세.

소크라테스 거 이상한데, 감옥의 문지기가 자넬 들여보낼 생각이 들었다니.

크리톤 나하곤 이미 친숙해졌네, 소크라테스. 내가 여길 자주 오니까. 게다가 내가 그에게 뭔가 손을 쓰고 있거든.

소크라테스 그런데 자넨 방금 왔는가, 아니면 한참 되었는가?

크리톤 한참 됐지.

b 소크라테스 그러면서도 왜 그 즉시 나를 깨우지 않고, 말도 없이 옆에 앉아만 있었나?

1 크리톤: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알로페케 구(圖) 사람. 소크라테스와는 어려서부터 친구이고 나이도 같은 또래이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부터 감옥 생활, 그리고 사형되는 마지막 날까지 온갖 일을 돌보아 주고 있다. 철학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실제적 재능이 있어서, 재산도 넉넉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청탁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다.

크리톤 온 천만에. 소크라테스, 내가 자네 처지라면, 이런 괴로움 속에 자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걸세. 그뿐인가? 자네가 그토록 단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아까부터 감탄하고 있는 터일세. 그리고 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지낼수 있도록, 일부러 깨우지 않았던 걸세. 그리고 이제까지 자네 일생을 통해서 자넬행복한 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주 생각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불행에서 더욱 그걸 느꼈네. 자네가 대수롭지 않게 그걸 견뎌내고 태연하니 말일세.

소크라테스 그야, 크리톤, 이 나이에 정작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몸부림 치는 것도 우스운 일일세.

크리톤 하지만, 소크라테스, 그런 나이로 이 같은 불행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지 c만, 그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한 몸부림을 막지는 못하네.

소크라테스 하긴 그렇지. 헌데 뭣하러 이렇게 일찍 왔는가?

크리톤 소식을, 소크라테스,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네. 그건, 내가 보기엔 자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게도 또 자네가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소식일세. 누구보다도 내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소식이라고 생각되는 것일세.

d 소크라테스 그게 무슨 소식이란 말인가? 그 배²가 델로스로부터 돌아왔다는 건가? 그것이 돌아오면, 내가 사형을 집행 당하기로 된 그 배 말일세.

크리톤 아냐, 아직 도착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는 오늘 중에는 돌아올 걸세. 수니온³에서 배를 내리고 거기서 온 사람들의 얘기론 말일세. 그 얘기로는 배가 오늘 도착할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크라테스, 내일이 자네 일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셈일세.

2.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크리톤, 그건 고마운 행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신들의 44 뜻이라면, 그렇게 되라지,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오늘은 배가 들어오지 않을 걸세.

- 2 그 배:아테나이 사람들은, 테세우스가 승리하여 크레테 섬으로부터 살아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테세우스가 맹세한 대로 해마다 델로스 섬의 축제에 대표단을 태운 배를 보내서, 아폴론신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배가 떠났다가 돌아올 동안에는, 아테나이에서는 일체 부정(不浄)한 일을 금지하여 형(刑)을 집행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우연하게도 기원전 399년의 봄 그 배가 떠나기 하루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30일 후에 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형의 집행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 3 수니온: 앗티카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포세이돈(바다의 신)의 신전이 있다.

크리톤 자넨 무엇으로 그렇게 짐작하는가?

소크라테스 그럼 말해 주지. 그 배가 돌아오는 그 이튿날이 내 사형날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크리톤 그야 그렇지. 어쨌든 당국자들은 그렇게 말하고들 있지.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배가 들어오는 것은 오늘 중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되네. 이건 간밤에 조금전 꾼 꿈으로 짐작하는 걸세. 그러니 자네가 나를 깨우지 않은 것은 아마 마침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크리톤 그런데 그 꿈이란 어떤 것이었나?

소크라테스 소복(素服)을 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내곁으로 와서, 나를 부 b 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되네

'소크라테스여, 그대는 사흘만에 기름진 피티아의 땅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말일세. 크리톤 그건 이상한 꿈일세.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아냐.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분명한 꿈이야. 크리톤.

⁴ 사흘만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IX 363행(行)에 아킬레우스가 그 고향인 피티아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한 것을, 소크라테스로 바꿔서 말한 것.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저승이야말로 자기가 살 곳이라고 희망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도 신의 지시가 전해지고 있었다.

3.

- 크리톤 과연 너무나 분명할는지 모르지. 하지만, 그건 그렇다 하고 다이몬의 친구 5인 소크라테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으니 제발 내 말을 받아들여서, 자네 자신을 구해 주게나. 자네가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는 한 가지 불행으로 그치는 일이 아닐세. 내가 결코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친구를 잃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자네나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돈을 쓸 생각만 있다면, 자네를 구해낼 수가 있었겠는데도, 자네 일에 소홀했다는 생각도 들겠지. 그러나 친구들보다도 돈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되다니, 여기서 더 불명예스런 일이 어디 있겠나?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대개 우리가 자넬 여기서 나가도록 열심히 도우려고 했지만, 자네가 거절했다고 해도, 그런 것을 믿지 않겠으니 말일세.
- d 소크라테스 하지만 여보게, 크리톤, 왜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고려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생각을 가진 가장 사리에 밝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건 사실상 행한 대로 생각해 줄 것이기 때문일세.

⁵ 다이몬의 친구: 소크라테스에게는 일찍부터 남모르게 다이몬(神靈)의 소리가 들려왔다 한다. 주로 어떤 행위에 앞서서 그것을 막는 소리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변명)에서 그 스스로 이것에 관한 말을 자주 하고 있다.((변명)의 주석22 참조)

⁶ 지금이라도……: 앞의 주석2에서 보듯이, 아직 배가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톤 그러나 대중의 의견이란 것에도, 소크라테스,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네도 알 걸세. 이번 일이 무엇보다도 그것을 밝혀 주고 있네. 만약 대중이 악평을 하는 날에는, 그들이 주는 앙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거의 가장큰 앙화를 입할 수 있다네.

소크라테스 과연, 크리톤, 나는 오히려 대중이란 것이 그런 가장 큰 앙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하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또 가장 큰 선복(善福)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다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정작 그들은 어느 쪽도 할 수 없네. 그들은 남들을 지혜롭게도, 또 지혜를 잃게도 할 능력이 없고, 무엇이건 그저그 닥치는 대로 하네.

4.

크리톤 그건 그렇다 해도 좋을는지 모르지. 하지만, 소크라테스, 이건 어떨는지 e 말해 주게나. 설마 자네는 나나 다른 친구들의 일로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만약 자네가 여기서 도망을 친다면, 자네를 여기서 몰래 데려 나갔다고 해서, 가짜 고발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즉 우리들이 재산을 몽땅, 또는 엄청난 돈을 잃어야 한다든가, 게다가 또 다른 해를 입지나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 해서 말일세. 왜 그런고 하니, 자네가 걱정하는 것이 뭔가 이런 일이라면, 그건 염려 놓게. 우린 자네를 구해내기 위해선, 그까짓 따위의 위험을 무 45 릅쓰기는 커녕, 필요하다면, 그보다 더한 위험을 무릅쓴다 해도, 그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일세. 그러니 제발 내 말대로 해주게나.

소크라테스 그렇지, 그런 자네가 말하는 걱정거리를 생각하고는 있네만, 크리톤,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리네.

크리톤 그렇다면 이 일은 걱정 말게. 돈을 그다지 많이 내지 않아도, 자넬 여기서 데려 내다가 구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으니 말일세. 게다가 또 그 가짜 고발인이

라는 것들도, 얼마나 싸구려인지, 따라서 그네들 입을 다물게 하기에는 결코 많은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자넨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자넬 위해선 내 돈은 자네 마음대로 써도 좋고, 그것은 넉넉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또 만약 자네가 내 걱정을 해서 내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언제라도 그들의 돈을 쓸 생각으로 있네. 그중의 한 사람이 마침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넉넉히 마련해 가지고 온 테바이의 시미아스 일세. 그리고 케베스 도 그럴 생각으로 있고, 그 밖에도 그런 사람이 매우 많이 있네.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이런 걱정 때문에 자네 자신을 구출해 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또자네가 법정에서 말했듯이, 설사 여길 빠져나간다 해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할는지 모를 것이라는 따위의 괴로움을 갖지도 말게. 왜 그러냐 하면, 자네는 어딜 간들, 반갑게 맞이해 줄 곳이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일세. 그리고 만약 자네가 테살리아에 갈 생각이라면, 거기엔 내 친구들이 있으니, 그들이 자넬 소중히여기고, 자네를 안전하게 보호해서, 테살리아 하는 자넬 괴롭힐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줄 걸세.

⁷ 시미아스: 테바이의 부유한 시민으로서, 소크라테스를 존경하여, 아테나이로 와 있었다.

⁸ 케베스: 역시 테바이의 유복한 시민으로서, 시미아스와 함께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되었다.

⁹ 법정에서……: 《변명》 27장을 보라.

¹⁰ 테살리아: 희랍 북쪽의 땅으로서, 산들에 둘러싸여서 외부의 침략을 면할 수가 있었지만, 그 조건은 또 문화의 교류가 어려웠다는 사정도 된다. 독자적인 문화가 생기긴 했지만, 아테나이 사람들은 오히려 후진국으로 보고 다소 업시여기는 빛이 있었다.

5.

게다가 또, 소크라테스, 자네가 하려는 일은 옳게 생각되지가 않네. 자넨 스스로 구할 수가 있는데도, 자네 자신을 등지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그건 자네의 적이 자넬 파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루고 싶어 하고 또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 내려고 힘써 온 것을, 자네 스스로 열심히 자신에 대해서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것일세. 게다가 또 자넨 자기 자식들 말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되네. 왜 그러냐 하면, 자넨 그들을 키우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도,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일세. 그러 너 자네 소견대로라면, 그들이 어찌 되건 자넨 조금도 개의치 않는 셈이 되네. 그리고 그들은 고아가 고아의 처지에서 겪는 일을 아마 당해야 할 걸세. 아예, 처음부터 애를 만들지 않았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데 따르는 고생을 견뎌야 하는데도, 자넨 가장 편한 길을 택하려는 듯이 보이네. 그러니택하려면, 훌륭한 덕을 갖춘 용감한 사람이 택하는 길이라야 할 걸세. 어쨌든 평생을 통해서 덕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말해온 자네로서는 더욱 그렇지. 그래서 나는 자넬 위해서도 또 자네의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건 부끄럽다고 생각되네. 은왜 그러냐 하면 자네에 관한 이번 사건이 전체로서는 우리 측에게 용기가 없었던 결과라고 생각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일세. 우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번 사건을

¹¹ 자기 자식들 : 소크라테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막내는 아마 아직 어렸을 것이다. ((변명)의 주석57 참조)

법정으로 끌어들인 일이라든지, 또 재판의 진행 자체도 그 꼴이고, 그리고는 필경사건 전체에 대한 비웃음이라고도 말할 이런 결과는, 다 우리들이 뭔가 무능하고비겁해서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고 남들은 평할 걸세. 결국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쓸모가 있었다면 자네를 족히 구해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것을, 우린 자넬 구하지도 않았고, 자넨 자네대로 자신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네. 그러나, 소크라테스, 이렇게 되면 자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욕스러운 일이 되겠으니, 제발 그러지 않도록 정신차려 주기 바라네. 자, 깊이 생각해 주게나. 아니, 이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닐세. 오히려 생각은 끝을내야 하네. 게다가 방책은 오직 하나뿐일세.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밤 안에 모든 일을 해치워야 하니 말일세. 만약 우물쭈물하다가는 그건 불가능하게 되고 일은 당패를 보게 되네. 그러니, 소크라테스, 뭣이고 내 말대로 해주게. 제발 딴 소릴 하진 말게나.

6.

소크라테스 사랑하는 크리톤, 자네의 열성은 크게 존중할 만하네. 다만 그것이 뭔가 바른 길에 따른 것이라면 말일세.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크면 클수록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우린 검토해 봐야 겠네. 왜 그러냐 하면, 나라는 사람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밝혀진 이론이 아니면, 마음속의 어떤 다른 것에도 따르지 않는 성질의 인간이기 때문인데, 이건 이제 새삼스런 것은 아니고 언제나 그렇다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론들을, 지금 이런 운명을 당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네. 오히려 그것
 들은 나에게는 그전과 거의 같아 보이네. 따라서 그전에도 존중했던 그 이론들을 지금도 여전히 존중하고 있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훌륭한 이론을 지금 당장에 말할 수 없을 바에는, 알겠나? 나는 결코 자네에게 따를 수가 없네. 설사, 대중의

힘이 지금보다 더 커져서, 감금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재산의 몰수 따위로 마치 애들을 도깨비로 위협하듯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네. 그렇 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우선 먼저, 자네도 말하고 있는 남들의 의견이란 것에 관해서 본다면, 어떤 의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다른 의견에는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되어 왔는데, 과연 그건 어 d 떤 경우이든 그래도 좋은가, 어떤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가 사형으로 정해지 기 전에는 그 주장이 옳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그저 이론을 위한 이론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농담이며 군소리라는 것이 밝혀졌단 말인가? 그래서 크리톤. 나는 자네와 함께 잘 생각해 보고 싶네. 지금까지의 주장은, 이제 내가 이런 형편 이 되고 보니, 뭔가 나에게는 색다른 주장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같 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또는 그 주장과 작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따 를 것인가를 말일세.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을 하 는 듯이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방금 내가 말한 대로—사람 요가 없다고 말했던 것 같네. 이건, 신들께 맹세코, 크리톤,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한에서는, 자넨 내일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따위에서는 벗어나고 있네. 따라서 당장의 불행이 자네의 판 47 단을 흔들어 놓는 일도 있을 리 없기 때문일세. 그러니, 잘 생각해 주게. 사람들의 의견이란 것은, 다 존중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어떤 것은 존중해야 하지 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 라. 어떤 사람들의 것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 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이 주 장이 훌륭하지 않은가?

크리톤 훌륭하지.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존중할 만한 것은 이로운 의견이고 해로운 것은 그럴 필

요가 없지 않은가?

크리톤 그렇지.

소크라테스 그런데, 생각이 깊은 사람의 의견은 이롭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의 의견은 해롭지 않은가?

크리톤 그렇고말고.

7.

b 소크라테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또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해서는, 우리의 의견 이 어떠했던가? 이를테면, 체육의 연습을 해서 그것을 그의 본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의견이란 것에 마음을 쓸 것 인가, 아니면 단 한 사람의, 즉 의사라든가, 체육 교사라는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쓸 것인가?

크리톤 단 한 사람의 의견에만 마음을 쓰겠지.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그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비난이며, 또 그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칭찬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것은 아니라야 하네

크리톤 뻔한 일이지.

소크라테스 따라서 그는 행동하기에서도, 먹고 마시기에서도, 연습에서도, 오 직 그 한 사람, 즉 그 방면의 전문가가 지도하는 대로 그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한데 묶어도, 그 의견은 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걸세 크리톤 그야 그렇지

c 소크라테스 자, 그렇다면, 그가 만약 그 단 한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고 그의 의견이나 칭찬을 존중하지 않기는 커녕,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러고서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까?

크리톤 해를 입고말고.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그 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어떤 방향에 있는 것이며,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관계가 되는 것일까?

크리톤 분명히 그것은 육체에 관계되네. 그것은 육체를 파멸시키기 때문일세.

소크라테스 훌륭한 말이로군. 그렇다면, 하나하나 들추려는 생각은 없네만, 크리톤, 다른 경우도 이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그렇다면 또, 지금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옳은 것이나 옳지 못한 것, 추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나 악한 것에 관해서도 우린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고 또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까? 아 네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르고 이 한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 전부보다 더 두려워하고 그 사람에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의로는 더욱 선해지고, 부정으로는 망한다고 말했던 그것을 해롭게 하고 파멸시키게 될 것일세,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은 없단 말인가?

크리톤 물론 그건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소크라테스.

8.

소크라테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건강으로 해서 더욱 좋아지고, 병적인 것으로 해서 해를 입고 파멸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파멸되고서도, 그래도 과연 사는 보람이 있을까?¹²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데, 그렇지 않은가?

크리톤 그렇지.

e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우리는 파괴되고 못쓰게 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과연 사는 보람이 있을까?

크리톤 결코 있을 리 없지.

소크라테스 그러나 그렇다면, 부정으로 해롭게 되고 정의로 이롭게 되는 그것이 파괴되고 말았다면, 그래도 과연 사는 보람이 있을까?¹²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는 접어 놓고라도, 어쨌든 부정이나 부정

48 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육체와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우린 생각하는가?

크리톤 결코 그렇진 않지.

소크라테스 오히려 육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아닌가? 크리톤 훨씬 귀중하지

¹² 사는 보람이 : 이런 생각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편 512a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고 《국가》편 445a~445b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여보게. 우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간에, 결코 그다지 신경을 쓸 것은 없고 그보다도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부정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만을, 그리고 진리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하네. 그러니 우선 자네는 말을 잘못 끌어들였네. 자넨 정의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과 반대되는 것에 관해서,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마음을 써야 한다고 말했으니 말일세.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릴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

크리톤 물론,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겠지, 소크라테스. 자네 말이 옳아. 소크라테스 그러나 여보게, 우리가 처음에 말한 주장은, 역시 앞에서와 다름없이 같은 것인 듯이 내게는 생각되네,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봐 주게나.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이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인가 아닌가 말일세.

크리톤 움직일 수 없지.

소크라테스 그런데 잘 산다는 것은, 곧 아름답게 산다는 것과 바르게 산다는 것과 같다는 것도 역시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가,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톤 움직일 수 없네.

9.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일치한 것에 따라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네. 즉 내가 아테나이 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여기서 빠져나가 보려고한다는 것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의 문제일세. 그리고 그것이 옳게 보인다면, 그 역게 해보세. 그러나 옳지 않게 보인다면, 그만두세나. 하지만, 자네가 말하고 있는 돈이 든다든가 남들의 평이라든가 애들을 키우는 일이라든가에 관해서 고찰하는 것은, 크리톤, 실은 저 많은 사람들이 고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들은

지각도 없이 경솔하게 사람을 죽여 놓고, 그리고도 또 가능하다면 되살려 놓으려고 할는지도 모르는 따위들일세. 그러나 우리들은, 이론이 지금 말했듯이 분명해 졌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은 고찰할 수밖에 없이 되었네. 즉 나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치르거나 고맙게 여기거나 해서, 빠져나가거나 또는 서로 데리고 나가거나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모든 짓을 한다면, 실은 부정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는 짓이 분명히 부정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꼼짝 않고 있다가는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뭔가 호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따위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보다 훨씬 나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네.

크리톤 자네 말은 훌륭하다고 생각되네, 소크라테스.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해야 할는지 생각해 주게나.

소크라테스 함께 생각해 보세. 여보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네가 반대할 수 있다면 반대하게나. 그렇게 한다면, 나는 자네의 주장에 따르겠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보게, 아테나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나보고 여기서 떠나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일은 그만두게나.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네를 설득시켜서 행동하는 것이고, 자네가 싫다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세. 자, 그렇다면, 이 고찰의 시작이 되는 것이 자네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지 어떤지 생각해 봐 주게. 그리고 49 서 내 물음에 대해서 자네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대답해 주게나.

크리톤 그렇게 해 보세.

10.

소크라테스 우리들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일부러 부정한 일을 행해서는 안되는가. 아니면 부정을 행해도 좋은 경우가 있고, 행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전에 몇 번이고 동의했듯이, 어쨌든 부정이란 것은 결코 b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가? 아니면, 우리들이 앞서 동의한 그런 따위는 이 며칠 사이에 뒤집히고 말아서, 여보게 크리톤, 우리가 이런 나이로 열을 올리면서 서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와 보니 애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일이 되었던가? 아니면, 그때 우리가 말했던 것은, 무엇이 어떻든 말한 바로 그대로이고 이 세상이 찬성하건 말건, 또 우리들이 지금보다 더 호된 일을 당해야 한다거나, 또는 좀 가볍게 당한다거나, 그런 건 어찌되었건, 적어도 부정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부정을 행하는 사람은 악이며 추하다는 것이 아닌가? 어떤가, 우리들의 주장은 그런가, 안 그런가?

크리톤 우린 그렇게 주장하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이건,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세. 크리톤 물론 그렇지.

소크라테스 그렇게 되면, 설사 부정한 경우를 당한다 해도 대중이 생각하듯이, 부정의 앙갚음을 해서는 안 되네. 어떤 경우에든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되니까.

크리톤 분명히 그래선 안 되지.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어떻겠나? 남에게 해를 끼쳐야 할 것인가, 크리톤, 아닌가? 크리톤 물론 끼쳐서는 안 되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겠나? 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앙갚음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은, 대중이 주장하듯이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치 못한가? 크리톤 결코 정당치 못하지.

소크라테스 그건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 부정을 행하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 때문일세.

크리톤 옳은 말이야.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사 자기가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부정으로 앙갚음을 한다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되네. 그 d

리고 조심해 주게, 크리톤 자네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인 정이 되어서는 안 되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일세.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 렇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는. 서로 공통으로 하는 생각이란 없네. 그들은 상대방 의 생각을 알고서, 서로 업신여길 것이 틀림없네. 그러니 자네도 잘 생각해 주게. 자넨 내게 찬성해서 의견을 가질 것인지 어떤지 말일세. 그리고 우선 어떤 경우이 든, 부정을 행하거나 부정의 앙갚음을 하는 것도, 해를 입고서 앙갚음으로 해를 끼 치는 따위의 자기 방위도, 역시 다 옳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앞으로의 우리들의 생각을 진행시켜 가야 할 것인가. 어떤가? 아니면. 자넨 입장 e 을 바꿔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을 건가?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어 쨌든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 네만, 자네가 만약 뭔가 다른 생각에 이르렀다면, 그걸 말해 주고, 또 설명해 주게 나. 그러나 만약 자네의 생각이 그전과 변함이 없다면, 다음 얘기를 들어주게. 크리톤 내 생각은 여전하고, 자네에게 동의하네. 그러니 얘기를 계속해 주게. 소크라테스 자. 그렇다면 다음 얘길 하겠네. 아니. 그보다도 자네에게 묻겠네. 이제 가령,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 옳다고 해서 동의를 했다면, 그것을 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의 동의를 무시해도 되는가? 크리톤 실행해야 하네.

11.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잘 생각해 보게. 이제 우리가 나라의 동의를 연 얻지 못한 채로, 여기서 달아난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우리가 해를 입히는 일이 되지 않을 자?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건가? 또 우리들은, 우리들이 옳다고 동의한 것에 대

해서 충실한가, 아닌가?

크리톤 자네의 물음에는, 소크라테스, 대답을 할 수가 없네.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 말일세.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게나. 이제 여기서 도망치려고—도망이라고 부르든 어떻든—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나라의 법률이 나라와 함께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세. "말해 주게, 소크라테스, 도대체 그대는 무엇을 하자는 건가? 그대가 해보려는 그 행위는, 우리들 법률과 나라 전체를, 그대 마음대로 무너 b 뜨리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댄 한 나라에서, 한번 정해진 판결이, 아무 힘도 없이, 개인의 마음대로 무효가 되어서 엉망이 된다 해도, 그 나라는 여전히 존립하여, 멸망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이 물음에 대해서, 또 그 밖에도 이런 따위의 물음에 대해서, 크리톤이여, 우린 뭐라고 대답할 건가?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내려진 판결은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법률이 파괴되려고한다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든, 특히 변론가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일세. 아니면, 우리는 나라의 법률에 대해서 "이 나라야말로 우리들에 C 게 잘못을 저질러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할까? 그렇게 말할까, 아니면, 어떻게 말할까?

크리톤 제우스께 맹세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려는 것일세, 소크라테스.

12.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나라의 법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나? "소크라테스, 우리와 그대 사이에서, 그런 일까지 합의를 보았던가, 아니면, 오히려 나라가 내리는 판결을 충실히 지킨다는 것에 동의가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만약 법률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놀라고 있다면, 법률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지. "소크라테스, 우리가 말한 것에 놀라지 말고 대답해 주게, 그대는 묻거나 대답하기에 익숙

해지고 있으니 말일세. 자. 그대는 우리와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d 를 파멸시키려고 하는가? 우선 첫째로 그대를 태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던 가? 즉 우리를 통해서 그대 아버지는 그대 어머니와 결혼해서 그대를 낳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게, 우리들 중에는 결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뭔가 비난을 하는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라고 나 는 대답하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태어난 다음. 그대도 받은 그 양육(養育)이나 교육에 관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건가? 또는 우리들 법률 중에서 이런 일을 담당 한 법률이, 그대에게 음악과 체육으로 가르칠 것을 그대의 아버지에게 명령한 것 e 은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잘된 일입니다"라고 나는 말하겠지. "좋아. 그렇다 면, 그대는 태어나고, 양육되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우선 그대 자신과 그대의 조 상도, 다 같이 우리들에게서 태어난 자손이며 노예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을 까? 그리고 또 그것이 부정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대와 우리들 사이에 동등한 권 리라는 것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그대에 대해서 뭔가를 하 려고 할 경우에, 그대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되갚아 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 각하는가? 아니면, 그대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혹시 주인이란 것이 있다면, 그 주 인에 대해서도 정의가 동등하고 따라서 그대가 뭔가 받으면 무엇이든 그것을 되갚 아 주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서, 욕설을 들었다고 해서 욕설로 갚거나, 맞았다고 해서 때리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따위를 해서는 안 되면서도, 조국이나 나 라의 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락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정당하 다고 믿고서 그대를 파멸로 이끌려고 한다면. 그대도 역시 우리들 나라의 법과 조 국을 그대가 힘껏 파멸로 이끌어 보려고 하고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위 라고 주장하게 될 것인가? 정말로 덕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대가 말일세. 아니 면, 조국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 밖에 모든 조상보다도 더욱 존귀하고 엄숙하고 거룩하여, 그것은 신들이나 지각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엇보다도 크게 존중되 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는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지혜롭단 말인가? 따라서 사람은

13.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 소크라테스"라고 아마 나라의 법은 말할 걸세. "그대가 지금 우리에게 할 셈으로 있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우린 말하고 있는데, 그건 진실인가 아닌가를 말일세. 왜 그러냐 하면, 우린 그대를 낳고 키우고 가르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그대에게도, 국민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도, 그래도 아테나이 사람들 중의 누구든, 자유 를 달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일세. 즉 성년이 되어, 이 나라의 일이나 우리들 법률이란 것을 본 다음에, 만약 우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자기 재물을 가지고 어디든 저 좋은 곳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말일세. 그리고 그대들 중의 누군가가 우리들 나라의 법이나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면, 식민지로 가고 싶어하건, 어딘가 딴 나라로 옮겨 살고 싶어하건, 제 것을 가

지고 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방해도 않고 막지도 않네. 그러나 그대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행하고, 또 그 밖에 정치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래도 여기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동으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명령하는 것을 뭣이든 한다고 동의했다고 우리들은 주장하네. 따라서 여기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의미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세. 즉, 어버이인 우리들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키워 준 우리들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복종하겠다고 동의를 해놓고도 복종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는 행위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들을 설득하지도 않기 때문일세. 그런데 우리들은, 뭣이건 우리들이 명령하는 것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제시해서, 우리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실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맡기고 있는데도,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네.

14.

그래서, 소크라테스, 만약 그대가 할 속셈으로 있는 일을 한다면, 이런 비난을 그대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주장하네. 게다가 그 비난은, 아테나이 사람들 중에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것일세"라고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대체, 왜 그런가요?"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아테나이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당연히 나를 반박할 걸세. 즉, 그들은 이렇게 말할는지도 모르지. "소크라테스, 우리들과 우리 나라가 그대의 마음에 들었었다는 강한 증거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이 각별히 그대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면, 그대는 다른 아테나이 사람들과는 월등히 다

르게 이 나라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을테니 말일세. 그대는 단 한 번 이스트모스 ¹³ 에 갔던 일 말고는, 이 나라 밖으로 나가서 축제를 구경한 일조차도 결코 없었고, 전쟁을 위해서 출국한 일¹⁴은 있었지만, 다른 어느 곳에도 간 적이 없었고, 남들이 하듯이 여행을 한 일도 없었고, 또 딴 나라의 일이나 그 법률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적도 없었으니, 그대에게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나라가 만족할 만한 것이었네. 이토록 강하게 그대는 우리들을 택했고 또 우리들이 정한 대로 국민 생활을 하는 것에 동의해 왔던 것일세. 그뿐만 아니라, 그대는 이 나라에서 애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그대가 이 나라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네. 게다가 또 이번 재판에서도, 만약 그대가 원하기만 했다면, 나라 밖으로의 추방형(追放刑)을 신청할 수도 있었고, 지금 그대가 국민의 허락도 없이 하려는 일도, 그때라면 나라의 동의를 받아서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일세. 그런데도 그대는, 그때는 사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허둥대는 일은 없다는 듯이 큰 소릴 쳤고, 추방보다는 사형을 택한다고 말했었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대는 그 말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들 나라의 법률을 무시해서 이를 파멸시키려고

¹³ 이스트모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이어지는 곳. 소크라테스가 이곳에 갔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가 평생 아테나이를 떠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된다.

¹⁴ 출국한 일: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 포테이다이아, 암피폴리스, 델리온 등의 싸움에 참가했었다. ((변명) 28e를 보라)

하고 있네. 도망치기를 꾀하다니, 그건 가장 천한 노예나 할 짓을 그대는 하려는 것이라서, 그대가 국민으로서 지킬 것을 우리들에게 맹세한 그 서약(誓約)이나 동 의에 어긋나는 행위일세. 그러니 우선 뭣보다도 이 물음에 대답해 주게. 그대가 말 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들을 따라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해 간다는 것에 동의했다 고 우리들은 주장하는데, 그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진실이 아닌가?" 여기 대해 서 우린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 크리톤? 우린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크리톤 그릴 수밖에 없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어떨까?"라고 그들은 말할 걸세. "그대는 지금, 우리들 자신에 대한 서약과 동의를 짓밟으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강제로 동의한 것도 아니고, 속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억지로 짧은 동안에 결심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만약 우리들이 그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동의가 그대 보기에 옳지 못했다면, 여기를 물러날 수 있도록 허락된 동안은 70년이나 되네. 그런데도 그대는 그 대가 좋은 법률이 행해지고 있다고 늘 말하는 라케다이몬¹⁵이나 크레테도, 또 헬라스나 헬라스 밖의 다른 어떤 나라도 택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세. 오히려 절름발이나 소경이나 그 밖의 불구자들만큼도 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었네. 그만큼 그대에게는 다른 아테나이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나라와 우리들 법

¹⁵ 라케다이몬:스파르타의 딴이름.

률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분명한 일일세. 왜 그러냐 하면, 법률이 없는 나라가 누 군들 마음에 들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제 와서 이미 동의한 것을 지키지 않을 셈인가? 우리들 말하는 것을 그댄 지켜주겠지, 소크라테스. 그렇게 하면, 그대가 이 나라에서 달아난다 해도.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 걸세.

15.

왜 그러냐 하면, 잘 생각해 보게나. 만약 그대가 그 합의본 것을 짓밟아서, 뭔가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 자신과 그대의 친지들에게 무슨 좋은 일 이 될 것인가를 말일세. 그대의 친지들 자신까지도 아마 추방을 당하고, 제 나라를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하는 위험한 경우를 당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일세. 또 그대 자신만 하더라도, 만약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중의 어딘가로, 이를테면 테바이에건 메가라¹⁶에건—이 두 나라는 다 훌륭한 법률이 행해지고 있으니—그리로 간다면, 소크라테스, 그대는 그 나라의 체제에 대한 적으로 생각될 걸세. 그리고 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를 나라의 법의 파괴자로 보고서, 의심스럽게 흘겨볼 걸세. 그리고 그대는 그대를 재판한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셈

16 메가라: 테바이와 함께 소크라테스가 도망가서 살기에 적당한 곳으로 꼽히고 있었다.

이 되어, 그 판결을 내린 것은 옳았다고 생각하게 될 걸세. 왜 그러냐 하면, 나라의 c 법을 파괴하는 사람이고 보면, 틀림없이 젊은이들이나 지각없는 사람들을 파멸시 키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일세. 그렇다면, 그대는 훌륭한 법이 행해지 고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더할 수 없이 단정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도, 그대에겐 과연, 인생이 살 보람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대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뻔뻔스럽게도 말을 주고 받겠다는 건가?—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가? 소크라테스. 혹시, 여기서 벌였던 것과 같은 것, 즉 덕이라든 가 정의라든가, 준칙(準則) 기이라든가, 나라의 법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지 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하는 짓이 몰골사납게 보 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 나 그대는 이 고장들을 떠나서. 테살리아에 있는 크리톤의 친구들에게라도 가서 몸을 의탁하겠지,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는 최대한으로 무질서와 방종이 있고, 따 라서 그들은 그대가 하는 말을 아마 기꺼이 들어 줄 것이기 때문일세. 그대가 무슨 옷인가를 몸에 걸치고 이를테면, 털가죽이라든가, 그 밖에 뭔가 탈옥자(脫獄者)가 흔히 입는 것을 입고서, 그대 자신의 모습을 바꿔, 탈옥한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 웠는가의 얘기 말일세. 그러나 그대는 늙은 몸으로, 아마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¹⁷ 준칙: 그 원말인 nomimos는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성문(成文)으로 되진 않은 채로 지켜 내려온 관습이나 관례.

고 보이고 있는데도, 뭣보다도 중요한 법을 짓밟기까지 하면서, 이렇게도 끈질기 _ e 게 삶에 애착을 보였다고 말할 사람은, 과연 한 사람도 없을까? 아마, 없겠지, 그 대가 남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만 없다면 말일세.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소크라 테스,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까지도 많이 듣게 될 걸세. 그렇게 되면, 그대는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노예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걸세, 게다가, 도대체 테살리아에서는 좋은 음식이나 먹는 일밖에는 무엇을 하 고 살아갈 것인가? 마치 음식 대접이나 받으려고 테살리아까지 도망간 꼴이 아닌 가? 그래서 정의라든가, 그 밖에 덕에 관한 우리들의 얘기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4 그러나, 그대는 역시 애들을 위해서, 그들을 키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대는 살고 싶다는 건가? 그렇다면, 어떻겠나? 그들을 테살리아로 데려가서, 키우거나 가르 치기 위해서 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어, 결국 외국인의 맛을 보게라도 할 것인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서 키워진다 하더라도, 그대가 살아 있기만 하다면,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그들을 훨씬 더 잘 키우고 가르 치게 될 것인가? 그대의 친지들이 그 애들을 돌보아 줄 것이니 말일세. 그 친지들 은. 그대가 테살리아로 떠나면 돌보아 주지만. 저승으로 떠나가면 보살펴 주지 않 는다는 건가? 적어도 그대의 친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라도 쓸모가 있는 사 b 람이라면, 어떤 경우이건 똑같이 보살펴 준다고 믿어야 할 걸세.

16.

그러니, 소크라테스, 그대는 그대를 키워준 우리들의 말에 따라야 하네. 그리고 애들 일이건, 살아가는 일이건, 그 밖에 어떤 일이건, 정의보다 더 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네. 그렇게 하면, 그대는 저승으로 간 다음에, 그곳을 지배하는 자들 앞에서 스스로 모든 것에 관해서 해명할 수가 있을 걸세. 왜 그러냐 하면, 이승에서도 그대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대를 위해서도, 또 다른 그대의 친지 중의 누구를 위

해서도, 더욱 좋다든가, 더욱 정의롭다든가, 더욱 경건하다는 것이 있다고 보이지 도 않고 또 저승에서도 더욱 좋다는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일세. 그런데, 어쨌거나 그대가 이제 이승을 떠난다면, 우리들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에 게서 부정을 당한 사람으로서 떠나가는 걸세. 그런데도 만약 그대가 추악하게도 부정이나 피해의 앙갚음을 해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동의하고 서약한 것을 짓밟고, 무엇보다도 해를 입혀서는 안 될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이나 조국이나 우리들 법률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의 노여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저승으로 간다해도, 우리들의 형제뻘이 되는 저승의 법이 반갑게 맞아 주진 않을 걸세. 그 법은 그대가 제 마음대로 우리들을 없애버리려고한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일세. 그러니, 그대는 우리들보다도, 자기 주장을 행하도록 하려는 크리톤에게 설득당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네."

17.

소크라테스 여보게, 사랑하는 크리톤. 내게는 이렇게 들려오는 듯이 생각되네. 그건 마치, 축제에 취해서 날뛰는 코리반테스¹⁸의 귀에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듯이

¹⁸ 코리반테스: 프리기아 지방의 여신인 키벨레를 모시는 신도들로서, 시끄러운 피리 소리와 떠들썩한 춤으로 사람을 열광시켰다고 한다.

생각되는 것과 마찬가질세. 그리고 내 귀 속에서도 지금의 말이 울려대서, 딴 소리는 들리지도 않게 하네. 그러니, 어쨌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한다면, 자네가 이것과 어긋나는 말을 한다 해도, 그건 헛소리가 될 걸세. 그래도 더 뭔가 될성부른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말해 주게나.

크리톤 아냐, 소크라테스, 내겐 할 말이 없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크리톤, 그것으로 됐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세 e 나. 신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옮기이의 머리말

역자가 《잔치》를 우리말로는 처음으로 옮겨서 내놓은 것이 1959년이었다. 번역은 그 몇 해 전부터 손을 댄 일이었으나, 1957년에 내가 하버드 대학교로 연구차 불려 가게 되어, 더 세밀히 손질을 못 했고, 귀국하자 이미 책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도 워낙 이 방면의 책이 소개되지 않고 있었던 때라, 다음 해에는 다시 찍어내는 일까지 있게 되었다.

당시의 번역에서는 Loeb Classical Library의 희랍어 · 영어 대역판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고, 또 내 희랍말 능력도 좀 의심스런 때인지라, 희랍말에서 옮겼는지 영어에서 옮겼는지 잘라 말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었다. 그래도 우리말로써 읽기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번역일 수 있도록 무던히 힘을 기울였었다. 그래서 그나마 학생들에게 꽤 많이 읽히고, 불편을 적지 않게 덜어 준 일이 되었던 것 같다. 그 후 15년이 흘러, 다시 볼수록 마음에 차지 않는 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크게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에 가자마자 서둘러 마련했던 J. Burnet의 교정본인 Platonis Opera(Oxford Classical Texts)를 원본으로 한 개역판을 내게 되었다. 그것이 1974년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역보다는 물론 많은 진전을 보였겠지만, 나중에 또다시 두고 두고 검토해 보니, 출판사의 편집인이 표현이나 기호(記號) 등에서 역자의 의견과 는 달리 고집을 피운 점과 인쇄가 잘못된 점 등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역자가 고지식하게도 원본의 인쇄 체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에 는 읽기에 좀 거북한 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어느 역자나 느끼는 일이지만. 그동안 다시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보니. 학생들이 읽고 이해 하기에 좀 더 편한 체재와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었다. 주석과 해설에서도 고치거나 보태고, 새로 붙여야 할 필요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일들은 역자 개인만의 소망이 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과 젊은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길이라고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새 개역판에서는, 낱말이나 문장을 근본적으로 크게 고친 것은 물론이 고, 또 현대어 번역판에서 흔히 보듯이, 우선 각 장(章)을 새로 나누었고, 긴 절 (節)은 적절한 데서 단락을 짓기도 했다. 그리고 문장이 길어서 원문의 쉼표를 마 침표로 바꾸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서슴치 않고 그렇게 했다. 문답 문의 글줄의 체재도, 오늘날의 문예작품의 형식을 따랐다. 이런 점들로 하여. 시 각적으로도 이 고전에 접근하기가 매우 쉬워졌음은 물론, 내용의 이해에도 도움 이 되리라고 믿는다. 또 전에는 플라톤의 저작의 인용에서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Stephanus판의 페이지만을 본문 밖에 여백에 표시했었지만, 이번에는 각 페이지 들 사이에 a b c d(단, a는 생략)의 다섯 부분을 표시해 놓았다. 주석도 많이 늘어 나게 되었고, 또한 내용의 줄거리를 새로 정리해서 넣었다.

책 이름을 '잔치'라고 옮긴 것은, 주석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symposion의 원

뜻을 제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해당되는 우리말이 없다면 모르려니와, 굳이 한자말을 남의 나라에서 이어 받아야 할 까닭도 없고, 또 그런 시기는 이미 멀리 지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한글의 '향연'이 반드시 symposion만을 가리키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잔치'라는 역어에 대해서는, 한글 전용론자가 아니더라도 수긍이 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 불후(不朽)의 고전에 거듭 개역의 손을 대다 보니, 어쩌면 한 세대에 가까운 그 세월은, 곧 나의 학문의 도정(道程)의 한 갈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하다. 이번의 새 개역에서, 다시는 또 손을 대지 않을 작정으로 힘을 기울였지만, 그 성과는 독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는 다만, 고전만이 우리의 심성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신념의 길에서 작으나마 하나의 일을 이루었다는, 고생어린 기쁨으로 만족할 따름이다.

1983년 3월 조우현

잔치1

나오는 사람들 : 이폴로도로스 친구

1.

172 아폴로도로스² 자네들이 묻고 있는 일에 관해서는 나도 미련이 없진 않다고 생각하네. 실은 며칠 전에 팔레론³에 있는 내 집으로부터 시내로 올라오고 있으려니까, 마침 잘 아는 어떤 친구가 뒤에서 나를 알아보고 멀리서 부르면서, 게다가실없는 소리로.

- 1 '잔치'의 원말 symposion은 syn(함께)+posia(마심)에서 온 것으로서, 글자 그대로는 '술잔치'의 뜻. 희랍에서 기원전 8세기 중엽부터 있었던 풍습으로, 저녁을 마친 후에 그것과 따로 베푸는 술잔치, 흔히 직업적인 음악가나 무용가의 여흥을 곁들인다. 좌장(座長)을 뽑고, 그가 술(포도주)에 물을 타는 분량(대개 포도주 1에 물 3)이나 술잔의 크기 등을 정한다. 그러나 아테나이에서는 술은 대개 형식적인 것이었고, 갖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상한 대화나 토론이 오가는 것이 중심이었다. 이 잔치는 흔히 혼인, 생일, 우승 등의 경사와 친구의 송영(送田) 때 열렸다.
- 2 이 《잔치》는 이폴로도로스(Apollodoros)가 아가톤의 집에서 있었던 잔치에 참석했던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다시 친구의 부탁에 따라 얘기하는 형식이 되고 있다. 플라톤이 이 사람을 간접 전달자로 택한 것은 그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말을 남김없이, 그리고 더함도 덜함도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의 것이다.
- 3 팔레론(Phaleron)은 아테나이에서 5킬로미터쯤 떨어진, 가장 오래된 항구. 아테나이의 한 행정구역.

"여보게, 거기 가는 아폴로도로스, 팔레론 사람아, 거기 서지 못하겠나!" 하고 말하길래,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자 그 사람은 "아폴로도로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자네를 찾고 있던 중일세. 소크라테스 님이나 알키비아데스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아가톤의 집에서 함께 모였 던 일, 특히 사랑에 관한 그들의 얘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듣고 싶었단 말 일세

하기는 그 일에 관해서 필리포스의 아들인 포이니크스⁵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내게 다시 전해 준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사람 말로는 자네도 알고 있다고 하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조금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를 못했단 말일세. 그러니자네가 얘기를 해 주게나. 자네야말로 자네 친구⁶의 얘기를 전하기에는 가장 알맞은 사람이니. 하지만 우선 말해 주게, 자네 자신도 그 모임에 참석했었던가, 안했었던가?"

그는 이렇게 말하데, 그래서 나는 대답하길,

⁴ 알키비아데스(Alkhibiades): 아테나이의 명문 출신. 뛰어난 미모와 재능을 가졌고, 펠레폰네소스 전쟁 당시 장군이며 정치가로 활약. 아심에 찬 파란의 일생을 겪고, 한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떨어져 나갔다. 변화에 적응도 잘했지만, 지조 없는 일생을 보내다가, 필경 망명해 갔던 소아시아에서 암살당했다.

⁵ 포이니크스(Phoinix)라는 사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지고 있지 않다.

⁶ 소크라테스를 가리킨다.

"그러고 보니 자네는 그 사람에게서 분명한 얘기는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한 모양이로군. 자네가 묻고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요새 있었던 일이고—그래서 나도 거기 참석했었으리라고 자네가 생각한다면 말일세."

"그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그는 말하데

"그건 또 무슨 까닭인가, 글라우콘⁷? 아가톤⁸이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된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소크라테스 님과 가까이 사귀면서, 무엇이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는 것을 알려고 나날이 마음을 써온 지가 아직 3년도 채 안 된다는 것도 자네는 모르는가? 그때까지 나는 건성 아무 데나 뛰어다니면서도, 제법 뭔가 한 구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누구보다도 딱한 사람

⁷ 글라우콘(Glaukon)은 아폴로도로스가 들은 얘기를 다시 전해 듣고 있는 상대자라는 것 밖에는 더 알려진 바가 없다. 222b에 나오는 카르미데스의 아버지 글라우콘도 아니고, 《국가》에 나오는 플라톤의 형제인 글라우콘도 아닌 것 같다.

⁸ 아가톤(Agathon)은 3대 비극 시인의 뒤를 잇는 아테나이의 비극 시인으로서 뛰어난 여성적인 미남. 파우사니아스의 애인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다. 기원전 416년에 비극의 경연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30 남짓이 되었으리라 한다. 이 잔치도 그 우승의 축하로, 같은 해에 있었던 일. 기원전 400년쯤에 죽었다 한다.

이었지. 지혜를 사랑⁹하기보다는 차라리 뭣이든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자네 못지않게 말일세."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빈정대지 말고. 그 모임이 언제 있었는지나 말해 주게."

하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내가.

"그야 우리가 아직 어렸을 적 일이지. 아가톤이 그의 첫 비극 작품으로 우승을 해서, 그의 가무단(歌舞團)과 함께 승리의 제물을 바친 다음날이었다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꽤 오래된 일이로군. 그런데 그 얘길 누가 하던가, 소크라테스 님 자신 이던가?"

라고 그는 말하데.

"제우스에 맹세코. 그렇진 않아."

하고 내가 말했지.

"그건 포이니크스에게 그 말을 해 준 바로 그 사람이야. 언제나 맨발로 다니고, b

9 회랍 말의 philosophia는 philia(사랑)+sophia(지혜)로 된 말이다. 그것이 술어(武語)적으로 철학이라 하여 매우 좁은 학술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희랍에서, 특히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는, 널리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사랑해서, 그것이 실천에까지 걸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의 사랑"이라고 옮겼다.

몸집이 작은 키다테나이온¹⁰의 아리스토데모스¹¹라는 사람일세. 그는 그 모임에 참석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도 그때 소크라테스 님을 열렬히 숭배하던 사람일세. 그래도 역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들은 애기 중 몇 가지를 소크라테스 님께 알아보았더니. 그분도 그 얘기가 틀림없다고 인정하시데."

"그렇다면 왜 그 얘기를 들려 주지 않는가? 게다가, 시내로 올라가는 길은 걸으면서 얘기를 주고받기에 꼭 알맞네."

라고 그는 말하데.

c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걸으면서 그 일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일세. 그러니 내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그 일에 관해서 내가 마련이 없진 않단 말일세. 그래서 자네들에게도 굳이 그 얘기를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지. 게다가, 나로서는 나자신이 얘기하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그것이 철학에 관한 얘기라면, 거기서 이득을 본다는 따위의 생각은 그만두고라도, 한없이 기쁘기 때문일세. 하지만 뭔가다른 얘기들, 특히 자네들 같은 부자나 장사꾼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 자신도 역계원을 뿐만 아니라, 친구인 자네들도 불쌍하게 생각된단 말이야. 자네들은 아무것

¹⁰ 키다테나이온(Kydathenaion)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남쪽에 있는 아테나이 시내의 한 행정구역.

¹¹ 아리스토데모스(Aristodemos)는 직접 이 잔치에 참석했었고, 그 사실을 아폴로도로스에게 들려 준 사람. 아폴로도로스가 다시 그 얘기를 글라우콘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폴로도로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아리스토데모스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라스토데모스는 오래전부터 소크라테스의 열렬하고 충직 소박한 제자로서 맨발로 다니는 것까지 그의 스승을 본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도 안하는 주제에, 뭔가 큰 일이나 하고 있는 듯이 생각하니 말일세. 그렇지만 자네들 처지에서 보면, 아마 나를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 하긴 그렇게 생각 여하는 자네들이 옳을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는 자네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네.

친구 자넨 여전하군, 아폴로도로스. 자네는 늘 자신이나 남을 헐뜯고 있어. 내가 보기엔 자네는 아마 소크라테스 님을 빼놓고는, 자네 자신을 비롯해서 누구나다 딱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말일세. 도대체 어째서 자네가 미치광이¹²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네는 입만 열면 언제나 그 모양이거든. 소크라테스 님 말고는 자네 자신에게나 누구에게나 화풀일 한단 말이야.

아폴로도로스 그렇다면 여보게, 나 자신에 관해서나 자네들에 관해서나, 내가 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미치광이요, 돌았다는 건가?

친구 아폴로도로스,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말다툼해 보았자 별 수 없네. 딴말 말고 우리가 방금 자네에게 부탁했듯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이나 말해주게.

아폴로도로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대강 이러하였네—차라리 그보다도, 그 174 친구가 내게 얘기한 대로 나도 처음부터 얘기해 보기로 하겠네

^{12 &}quot;미치광이"의 원말은 manikos. malakos(약골)라고 읽으려는 학자도 있지만, 앞뒤의 의미로 보아 manikos가 옳을 것 같다.

2.

그 친구 말로는, 바로 목욕을 마치고 신발까지 신은 소크라테스 님을 자기가 만났는데, 이건 그분으로서는 아주 드문 일이지. 그래서 그렇게 말쑥하게 차리시고 어딜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아가톤의 집으로 저녁 먹으러 가네. 사람들 붐비는 것이 끔찍해서 어제는 그 축하 연에서 빠져나왔지. 하지만, 그 대신 오늘은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해놨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아름답게 차리고 가고 싶었기 때문일세. 그런데, 자넨 어떻

b 게 하겠나, 불청객으로 그 연회에 가볼 생각은 없겠나?"

라고 하셨다데.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 말씀대로 하죠"

라고 대답했다 하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데.

"그럼, 함께 가세나. 그리고 그 속담을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 버리세. '선량한 사람 은 선량한 사람의 잔치에 자진해서 가느니라'고. 아마 호메로스는 이 속담을 뒤집 었을 뿐만 아니라 더럽히기까지 하고 있는 듯싶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아가멤

여기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데.

"그러면, 아마 저도, 소크라테스 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호메로스의 시에 있듯이, 보잘것없는 주제에 현명한 사람의 잔치에 불청객으로 참석하는셈이 되겠지요. 그러니 저를 데리고 가시려거든, 무엇인가 핑계댈 말씀을 생각해주십시오. 저는 오라고 하지도 않은 걸 온 것이 아니라, 실은 선생님께서 초대하셔 d서 왔다고 말하겠으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¹⁶어떻게 말해야 할지 의논하세. 자, 어쨌든 가 보세"

¹³ 아가멤논(Agamemnon)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희랍의 트로이아 원정군 총사령관으로서 출전하는데, 늘 아킬레우스만 못한, 용감은 하지만 결단력이 없고, 이기심이 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14 &}quot;훌륭한"(agathos)이라는 말이 아가톤의 이름과 소리가 같기 때문에 말장난을 한 것이다. Agathon은 agathos의 복수 2격과 같은 꼴이다.

¹⁵ 메넬라오스(Menelaos)는 아가멤논의 아우. 《일리아스》 XVII. 587~588.

^{16 《}일리아스》 X, 224에 "두 사람이 함께 가면, 서로 재빠르게 형편을 살펴서, 편리한 꾀가 나온다"는 말을 좀 바꿔서 쓴 것.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데.

대강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다데.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길을 가면서도 뭔가 홀로 생각에 잠겨서 뒤떨어져 계셨다더군. 그래서 안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은 어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다데. 이렇게 그 친구는 아가톤의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좀 우스운 장면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건 다름 아니라, 안에서 마중나온 한 종아이¹⁷가 그를 맞아들여, 그 친구를 다른 손님들이 누워 있는 곳¹⁸으로 인도했는데, 그땐 벌써 음식을 먹기 시작할 참이었다던가. 그런데 아가톤은 그 친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데.

"아아, 아리스토데모스인가? 어서 오게. 마침 잘 왔네. 저녁이나 같이 하세. 무슨 다른 볼일이라도 있어서 왔거든, 그건 다음으로 미루세. 실은 자네를 초대하려고 바로 어제도 찾아다녔지만 만나질 못하고 말았네. 그런데 어째서 소크라테스 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뒤에 오시던 소크라테스 님은 아무 데서도 보

¹⁷ 종아이란 노예 사동을 말한다.

^{18 &}quot;누워 있는 곳"이란, 일종의 반(半)침대라고 할 수 있는 Kline를 말한다. 로마에서도 그랬지만, 희랍에서는 침대 비슷하면서 윗부분이 좀 들린 와상(臥床)에 왼팔을 접고서 상반신을 누이고 탁자를 마주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풍습이었다. 그러나 여자는 오늘날과 같은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들었고, 여염집 부인은 잔치 같은 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지를 않았다네. 그래서 그는,

"소크라테스 님께서 여기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내게 청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왔던 걸세."

라고 말했다데.

"그거 참 잘 했네. 그런데 그분은 어디 계실까?"

라고 아가톤은 말했다데.

"방금 내 뒤를 따라오고 계셨는데. 그거 참 이상하군. 어디 계실까?"

"얘야, 소크라테스 님을 찾아서 모셔 오지 않겠니? 그리고 아리스토데모스, 자네는 에리크시마코스¹⁹ 옆에 자리잡게나."

175

3.

그래서 종아이가 그의 발을 닦아 주고 20 누울 수 있도록 거들어 주었다데. 그러자 그때 다른 종아이가 들어와서,

¹⁹ 에리크시마코스(Eryximakhos)는 의사의 아들이며, 자신도 의사. 파이드로스의 친구이고, 소피스트인 히피아스의 가르침도 받았다.

²⁰ 정작 소크라테스는 이날 신을 신었는데, 그의 추종자인 아리스토데모스는 평소의 스승을 본받아 맨발로 왔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이웃집 문간으로 되돌아가셔서 거기서 계신 채, 들어오시라 고 해도 들은 체도 안하십니다."

라고 전했다데.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구나. 너 다시 가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려라. 되돌아가 시도록 해선 안 된다."

라고 아가톤은 말했다데.

그러나 그때 아리스토데모스가 이렇게 말렸다고 하데.

b "그건 안 되지, 그냥 계시도록 하게. 그것이 그분의 버릇인걸. 이따금 길을 비켜서 아무 데나 서 계시는 수가 있어. 내 생각으론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도록 해 드리게."

"좋아, 자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야 그렇게 해야겠지."

라고 아가톤이 말했다데.

"그러면, 얘들아, 어쨌든 우리만이라도 저녁을 먹도록 해다오. 너희들은 감독하는 사람이 없더라도—내가 감독 따위를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너희들 마음대로 차려 내오고 있더라. 그러니 어디 지금은 나나 다른 손님들을 너희들이 초대한 셈 c 치고 잘 대접해서 칭찬을 받도록 해 봐라."

그리고 나서 (아리스토데모스의 말로는) 그들은 저녁을 들기 시작했는데도 소크라 테스 님께서는 들어오시지 않았다데. 그래서 아가톤은 가서 소크라테스 님을 모셔오도록 몇 번이고 일렀지만, 그 친구가 말렸다더군. 그런데 그분은 여느 때처럼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고, 식사가 대강 반쯤 지났을 무렵에 오셨다고 하데. 그래서아가톤은—그는 마침 끝자리에 혼자 앉자 있었는데—이렇게 말했다데.

"이리 오세요, 소크라테스 님. 제 옆자리에 앉으십시오.²¹ 선생님께 붙어 앉아서, d 옆집 문 앞에서 선생님 머리 속에 떠오른 그 지혜의 혜택을 저도 좀 받고 싶으니까요. 정녕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찾아내서 꼭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자리를 떠나셨을 리가 없지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자리에 앉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데.

"그야, 아가톤, 지혜라는 것이, 마치 물이 가득찬 그릇으로부터 털실을 타고 비어 있는 그릇 쪽으로 흘러들어 가듯이, 우리도 서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들 중에서 가득찬 쪽으로부터 비어 있는 쪽으로 흘러들어 가듯 하는 것이라면야 얼마나 좋겠나. 지혜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이라면, 내가 자네 옆에 자리잡은 일을 매우 귀하 여기겠네. 자네에게서 나오는 많은 훌륭한 지혜로 내가 가득 채워질 것 같으니 말일세. 내 지혜 따위야 보잘것없고 게다가 아마 꿈이나 다름없이 의심스러운 것

21 이 잔치의 자리차지와 연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W.H.D. Rouse에 따름)



이겠지만, 22 자네 것은 빛나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일세. 아닌게 아니라, 그끄저 께도 3만 명이 넘는 헬라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직 젊은 몸으로 그토록 찬란한 빛을 나타냈었지."

"누굴 놀리시는 겁니까, 소크라테스 님?"

하고 아가톤은 말했다데.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좀 있다가 디오니소스를 심판자로 해서 선생님과 저와 결판을 내도록 하시죠 ²³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음식이나 드시죠"

4.

그런 다음에 소크라테스 님께서 자리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마치고 176 나서, 모두들 헌작(獻爵)도 하고, 신²⁴의 찬송가도 부르고, 그 밖에 늘 하던 대로

^{22 &}quot;내 지혜 따위···"라는 말은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자각"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주관적 상대적인 지식의 허망함을 의미했을 것이다.

²³ 디오니소스(Dionysos) (라틴 말로는 박쿠스, Bacchus)는 술의 신. 술을 마실 경우, 어느 쪽이 지혜가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으리라는 뜻. 원래 디오니소스와 제사를 위해서 상연하는 비극의 우승자인 아가톤이 이 신을 들먹인 것은 그럼싸한 일이다.

²⁴ 디오니소스를 가리킴.

의식을 치른 다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데. 그 때 파우사니아스²⁵가 입을 열어 대 강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마실 수 있을까? 바른 대로 말하면 나는 어제 너무 마셔서 아주 괴로워 못 견디겠어. 그래서 좀 쉬었으면 하네. 여러분도 대개는 그렇겠지. 어제 참석들 했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편하겠 ▷ 는지 생각들 해주게."

그러자 아리스토파네스²⁶는 말했다데.

"파우사니아스,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마시도록 하자는 것은 좋은 말일세. 실은 나도 어제는 술에 아주 젖었던 사람이니까."

이 말을 듣고서 아쿠메노스²⁷의 아들인 에리크시마코스가 말했다데.

"과연 모두들 옳은 말일세. 그런데 나는 자네들 중의 또 한 사람은 어떨는지 듣고 싶네. 아가톤은 어떨까? 마실 기운이 있을까?"

"아냐, 나 역시 전혀 안 되겠는걸."

²⁵ 파우사니아스(Pausanias)는 당시 아가톤의 열렬한 애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밖에는 자세한 것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²⁶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B.C. 445?~385?)는 대표적 희극 작가. 12편의 희극 작품이 전부 남아 있다. 그중 《구름》에 소크라테스가 익살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그의 보수적 태도가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들과 같게 보고 위험시했기 때문이다.

²⁷ 아쿠메노스(Akoumenos)도 그 아들과 함게 아테나이의 유명한 의사. 둘이 다 소크라테스와 교분이 있었다.

하고 말했다데.

"자네들 같은 큰 술꾼들이 더 마실 수 없다면야 그건, 나든, 아리스토데모스든, 파이드로스든, 그 밖에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이든, 우리들에겐 천만다행한 일일세. 우리는 늘 술에 약하니까. 하지만 소크라테스 님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 이분은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이니까, 어느 쪽으로 정하든지 만족하실 거야. 그건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자네들은 누구든 별로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술에 취한다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바른 대로 말해도 아마별로 싫증을 내지는 않겠지. 굳이 말한다면, 술에 깊이 취하는 것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것은 나의 의술(醫術)에서 분명해진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나 자신도 구태여 과음할 생각도 없지만, 남에게 권하고 싶지도 않아. 게다가 어제 너무 마셔서 아직도 머리가 무거운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미리누스²⁸ 사람인 파이드로스²⁹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했다데.

"그렇고말고, 나는 자네 말에는 언제나 순종하기로 하고 있어. 특히 의술에 관해서 말할 경우엔 더욱 그렇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 생각만 한다면 그렇

²⁸ 미리누스(Myrrhinous)는 앗티카 지방의 한 행정 구역.

²⁹ 파이드로스(Phaidros, B.C. 450?~400)는 변론가인 리시아스를 숭배하는 변론술에 열중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의 아테나이의 유수한 지식인. 소크라테스의 측근자이긴 하지만, 제자로까지 치긴 어렵다. 여기서는 아직 젊었을 때이다.

게 할 걸세."

이 말을 듣고 모두들 오늘의 모임에선 만취가 되도록 마실 것이 아니라, 그저 즐거 약을 정도로 마시고 말자는 데에 합의를 보았다 하데.

그래서 에리크시마코스는 이렇게 말했다데.

"그렇다면, 모두들 억지로 권하질 말고 제가끔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기로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한 가지 안을 내겠네. 방금 들어온 피리 부는 여자는 내보내서 저혼자 불고 있게 하거나, 혹시 그 여자가 원한다면 안에 있는 부인들³⁰에게나 들려주게 하고, 우리는 오늘, 이 모임에서 서로 얘기나 하면서 보내자는 것일세. 원한다면, 어떤 얘기가 좋을지 내가 제안해도 좋겠네."

그러자 모두들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그가 제안하기를 재촉했다데. 그래 177 서 에리크시마코스는 말하기름.

"내 이야기의 실마리는 에우리피데스의 멜라니페가 말한 것³¹을 흉내내는 것일세. 즉 내가 하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파이드로스의 것이란 말일세.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에게 화를 내며 하는 말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에리

³⁰ 부인의 방은 안쪽에 있었다.

³¹ 에우리피데스(Euripides, B.C. 485~406)는 아이스킬로스 및 소포클레스와 함께 희립의 3대 비극 작가 중의 한 사람. 여기서는 《여성학자 멜라니페》(오늘날엔 일부만 남아 있음)를 말하고 있다.

크시마코스, 시인들이 다른 신들을 위해서는 찬미가³²나 송덕가(頌德歌)³³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오래되고 그렇게 위력이 있는 사랑의 신인 에로스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숱한 시인들이 나왔으면서도 그중에서 단 한 사람도 찬가(讚歌)³⁴ 한 편조차 지은 이가 없으니 말이야. 그러나 그뿐인가, 그 뛰어난 지혜의 선생들³⁵을 생각해 보게, 그들은 헤라클레스³⁶나 그 밖의 신들을 위해서는 산무(散文)으로 송

- 32 찬미가(hymnos)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 33 송덕가(paion)는 피리에 맞추어서 말귀의 되풀이로 이루어진 기원과 송덕의 노래. 때로는 춤이 따르기도 한다. 처음에는 아폴론신에게, 나중에는 다른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 34 에로스에 대한 찬가. 이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파이드로스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 아마 젊은 혈기로 일부러 무시했는지도 모른다.
- 35 소피스트들을 말한다. 그들은 직업적인 교육가로서 희랍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기원전 450년 이래로 두드러진 인물들이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넘나들면서, 보수를 받고 교육있고 야망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설득적인 변론술, 문예, 전통적 도덕 등을 가르치고 다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따라서 보수도 받지 않았는데도, 흔히 소피스트들과 혼동되는 수가 많았다. 플라톤은 이것부터가 못마땅해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론적 진리와 실천적 덕을 함께 구하는 애지자(愛智者)와, 단순히 제자들을 실생활에서 성공케 하기를 목적으로 해서, 결국은 회의(懷疑)에 빠지는 소피스트들과의 사이를 밝혀 가르기에 늘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프로타고라스》편에서 플라톤은 프로디코스를 포함한 여러 소피스트들의 풍자된 모습을 나타내고, 《고르기아스》편과 《국가》편의 첫째 권에서든 훨씬 더 격렬하고 날카롭게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
- 36 혜라클레스(Herakles)는 힘과 용기와 인내력과 좋은 인품과 동정심에 뛰어난 가장 유명한 영웅. 열두 가지 고역을 치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년 혜라클레스》라는 설화(說話)의 저작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덕'의 매력은 '악'의 매력을 이기고 있다.

덕문을 쓰고 있네. 이를테면 특히 훌륭한 프로디코스³⁷ 같이—하지만 이것은 그다 지 놀랄 것도 못되네. 그러나 언젠가 나는 우연히 어떤 현인(賢人)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소금이 쓸모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 기막힌 찬사를 바치고 있는 것이 있었네. 그 밖에도 수많은 그런 것들이 거기서 찬미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걸세.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극성스럽게 열을 올리면서도. 에로스신께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누구 하나 마땅히 있어야 할 찬미가 c 한 편조차도 바친 사람이 없었단 말일세. 그렇게도 위대한 신이 그토록 푸대접을 받고 있네 '나는 파이드로스가 이렇게 말한 것을 지당하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나 는 이 사람을 도와서 기쁘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신을 찬미하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네. 그 러니 자네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야기 거리는 넉넉할 걸세. 그래서 내 의견을 d 말한다면, 왼편으로부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에로스 를 찬미하는 얘기를 해야겠는데. 우선 파이드로스부터 시작해야겠네. 첫번째 자리 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이 얘기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아무도 자네에게 반대 투표는 안 할 걸세. 에리크시마코스." 하고 소크라테스 님께서 말씀하셨다데.

³⁷ 프로디코스(Prodikos, 기원전 5세기 때 사람)는 그 온건한 사상으로 당시의 아테나이에서 영향력이 컸던 소피스트.

"내가 사랑에 관한 것 밖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늘 주장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으며, 또 아가톤이나 파우사니아스도 아마 그럴 것 이고 더욱이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에 관해서만 일삼고 있는 아리스토파네스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고, 여기 있는 그 밖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걸세. 하기야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공평하지가 못하지만, 앞사람들이 남김 없이 훌륭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네. 자, 그럼, 신들의 도움으로 파이드로스부터 시작해서 에로스를 찬미하게나." 여기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찬성하고 소크라테스 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부탁했다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아리스토데모스도 다 기억해내지는 못했고 나 역시 그가 말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도 않네. 그래서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된 사람들의 얘기를 차례대로 전하기로 하겠네.

6.

지금도 내가 말했듯이, 먼저 파이드로스가 대강 다음과 같이 얘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데.

"에로스는 위대한 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나 신들 사이에서나 경탄할 분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지만, 가장 뚜렷한 것은 그의 출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신들 중에서 오래고 또 오래된 분이라는 것은 영예스런 일이기 때 문입니다(그는 이렇게 말했네). 그 증거로서는, 에로스에게는 부모가 없고 산문가 (散文家)이건 시인이건, 아무도 그것에 관해서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헤시

오도스38는 말하기를, 태초에 카오스39가 생기고—

다음에 생긴 것은 영원히 모든 것을 자리잡게 하는 넓게 펼쳐진 가이아, ⁴⁰ 그리고 에로스

아쿠실라오스 41 도 헤시오도스에게 찬성하여 카오스 다음에 이 둘, 즉 게에 42 와 에 로스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남에 관해서 파르메니데스 43 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신들보다 먼저 에로스를 생각해냈다.

³⁸ 헤시오도스(Hesiodos)는 기원전 700년 무렵의 서사시인(敘事詩人). 호메로스 보다 좀 뒤의 사람. 그의 저서로서 남아있는 것은. 《일과 나날》、《신통기(神統記》) 둘뿐이다.

³⁹ 카오스(Khaos)는 혼돈(混純).

⁴⁰ 가이아(Gaia)는 게에(Ge)라고도 한다. 땅을 말하며, 여신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⁴¹ 아쿠실라오스(Akousilaos)는 페르시아 전쟁 이전(B.C. 500?)에 살고 있었다 하며, 해시오도스의 시를 산문으로 고쳐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계보(系譜, Genealogiail》를 편집하였다.

⁴² 주석40 참조.

⁴³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B.C. 510? 출생)는 남부 이탈리아의 엘레아 학파의 대표적 자연 철학자. 서사시 형식의 교훈시로 학설을 표현했다.

이와 같이 에로스가 가장 오랜 신이라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랜 신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젊었을 때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훌륭한 사람⁴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또 그 사람으로서는 사랑하는 소년⁴⁵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적어도 훌륭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이끌어 주는 것을, 가문(家門)도 영화도 부귀도 그 밖에 어떤 것도, 사랑만큼 훌륭하게 심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추한 것을 부끄러워 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명예를 겨루는 마음이 곧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나라도 개인도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사랑을 하는 남자는 무엇인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남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겁이 나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의 아버지나 친구나 그 밖에 누구에게 들킨다 하더라도. 사랑

- 44 "사랑해 주는 사람"(erastes)이란, 남성끼리의 연애에서 사랑을 주는 어른을 의미한다.
- 45 "사랑하는 소년"(paidika)이란 erastes(사랑을 주는 사람)의 사랑을 받는 소년. 당시의 희합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미소년(美少年)을 좋아했고(그것을 philopais라 함),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소년과의 연애(paiderastia)가 관습화 되고 있었다. 여성은 애를 낳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되고 있었던 것 같다. 플라톤은 이런 소년애나 동성애를 자연스럽지 못한 악습이라고 배척했으며, 단순히 관능信節(이나 정신의 일시적 탐낙(歌弼)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향상하는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소년애를 정신적으로 높여서 순화했기 때문이다.

하는 소년에게 들킨 것만큼 괴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장담합니다. 그와 마찬 은 가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들킨다면, 그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유난히 부끄럽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어떤 수단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나 군대를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모든 추한 것을 피하며, 서로 겨루어 체면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는 길은 여기서 더한 것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싸운다면, 179 작은 군대라 하더라도 온 천하를 이겨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는 자기 자리를 떠나거나 무기를 버리는 것을, 사랑하는 소년에게 들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들키기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이며, 그보다는 차라리 몇 번이고 죽기를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소년을 버린다든가 또는 위급한 때에도 구해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에로스 자신에게서 용기의 영감을 받아서, 그 결과로 나면서부터 가장 용감한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될 수 없을 만큼, 비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호메로스는 신이 어떤 영웅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⁴⁶고 말했 b 는데, 그것이야말로 에로스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7.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남을 위해서 죽음도 꺼리지 않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펠리아스의 딸인 알케스티스⁴⁷가 헬라스 사람들 앞에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에게는 부모도 있었지만, 오직 그 여자만이 남편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까닭에 남편에 대한 그 여자의 애정은 친부모보다 훨씬 강했으며, 그결과 부모는 그 아들에게 남이나 다름없고, 다만 명목만의 혈육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행위는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신들

- 46 기원전 378년에 고르기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300명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테바이의 '신성대'(神聖隊, hieros lokhos)는 스파르타를 상대로 테기라에서 싸웠고(B.C. 375), 레우크트라에서 공격을 했다(B.C. 371). 상상으로만 얘기했던 것이 여기서 실현된 셈이다.
- 47 테살리아의 페라이의 왕인 아드메토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대신 죽어 주면 그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나기로 신과 약속되어 있었지만, 대신 죽어 줄 사람은 없고 부모조차도 자신을 위해 죽기를 꺼려 하자, 그의 아내 알케스티스가 대신 죽게 해달라 하여, 아드메토스는 살아나고 알케스티스는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때 헤라클레스가 찾아와서, 그 일을 알고 죽음의 신과 격투를 하여, 알케스티스를 저승으로부터 되살려 내왔다는 것이다.

에게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위를 한 숱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영혼이 저승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각별한 혜택을 신들에게서 받은 사람은 매우 적은데도, 신들이 그 여자의 행위를 기특하게 여긴 나머지, 그 영혼을 돌려 보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신들도 사랑의 열성과 용기를 여가장 높이 칭찬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오이아그로스의 아들인 오르페우스 48가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갔었을 때, 신은 그 그림자만을 보여 주었을 뿐, 아내 자신은 돌려주지 않고, 그를 저승으로 헛되이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탄금자(彈琴者)로서 겁장이이며, 또한 알케스티스처럼 사랑을 위해서 죽을 용기가 없고, 산채로 저승에 들어가려고 꾀를 부린 듯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들도 당연한 벌을 주어 그를 여자들의 손에 맡겨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테티스의 아들인 아킬레우스에게는 영예를 주어 '행복한 사람들의 섬⁴⁸⁹ 은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약 핵토르를 죽이면 자기도 죽지만, 죽이지 않으

⁴⁸ 오르페우스(Opheux)는 호메로스 이전의 트라케 지방의 전설적인 음악가. 그 음악의 매력으로 그의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저승에서 되살려내기에 성공했었지만, 이승에 올라올 때까지 그 아내를 되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아내를 잃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전설을 파이드로스는 여기서 함부로 바꿔 놓고 있다.

^{49 &}quot;행복한 사람들의 섬"이란 호메로스의 작품 속에서, 대다수와 사람의 운명에 끼어 있지 않은 축복받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죽은 뒤의 생활을 말한다. 극락極樂)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섬들은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에서는 지구 위의 서쪽 대양(大洋)의 어딘가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나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아킬레우스는 그 섬에 가질 못하고, 다른 용사들과 함께 저승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용감하게도 그가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를 도와서 그의 원수를 갚 고 난 다음에, 오직 그를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의 뒤를 따라서 죽기 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신들도 그에게 매우 감탄하여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다고 해서, 그에게 남다른 영예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데 아이스킬로스는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사랑했다고 말했지만⁵⁰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파트로클로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모든 영웅들보다도 아름다웠고 게다가 아직 수염도 나지 않았으며, 호메로스도 말하고 있듯이, 그보다 훨씬 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신들께서 사랑의 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욱 감탄하시며 존중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와 소년들을 사랑할 경우보다도, 오히려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애정을 보일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신이 들려서 사랑을 받는 소년보다 더욱 신적(神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아킬레우스에게는 알케스티스보다 더 큰 영제를 주어, 그를 '행복한 사람들의 섬'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장합니다. 즉 에로스는 신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존귀한

⁵⁰ 아킬레우스(Akhilleus)와 파트로클로스(Patroklos)는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절친한 친구 사이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연애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 후에 만들어 낸 이야기이다.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덕과 행복을 얻기 위한 가장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8.

신이라는 뜻)이다.

대략 이렇게 파이드로스는 얘기를 했는데, 파이드로스에 이어서 몇 사람의 얘기가 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친구는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의 얘기는 제처 놓고, 파우사니아스의 얘기에 관해서 말해 주었네. 그는 이렇게 말했다더군. "파이드로스, 이렇게 덮어놓고 에로스를 찬미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내놓은 얘기의 조건은 탐탁치가 않습니다. 에로스가 단 한 분 뿐이라면야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실은 한 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이 아니라면, 어떤 분을 찬미해야 할 것인지, 미리 말해 두는 편이 훨씬 더 옳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을 바로잡아서, 우선 어떤 에로스를 찬미해야 할는지를 밝히고, 다음에 그 신에게 여합당한 찬사를 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아프로디테⁵¹는 에로스와 떠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51 아프로디테(Aphrodite, 라틴 이름은 베누스, Venux)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풍요(豊饒)의 범(汎) 희랍적인 여신.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크로노스가 그의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음부를 잘라서 바다에 던졌을 때, 그 정액이 흘러서 거품이 일었고, 거기서 태어난 것이 아프로디테(aphros는 거품, 따라서 거품에서 태어난 사랑의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한 분이라면, 에로스도 한 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여신은 두 분이니까, 52 에로스도 두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이 여신이 두 분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한편은 손위의 여신으로서 어머니 없이 우라노스53에게서 태어난 딸로서 우리가 우라니아54라고도 부르고 있는 분입니다. 다른 편은 손아래로서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우리는 그를 판데모스5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에 협조하는 에로스도 불가불 '판데모스 '에로스'라고 불러야 하고, 다른 편을 '우라니아 · 에로스'56라고 부르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누구나 모든 신들을 찬미해야 하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두 신이 각각 어떠한 구실을 하는 것인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모든 행위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것만으로서는 아름다울 것도 없고, 추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술을 마신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어느 것이고 그것만으로서는 하나도 아름다울 것이 없지

52~56 우라노스(Ouranos)는 하늘의 신. 우라니아(Ourania)는 우라노스의 여성형(形)으로서, 여신 아프로디테의 딴 이름이다. 판데모스(Pandemos)는 "대중적인" 또는 "속된"이라는 형용사로서, 역시 아프로디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아프로디테를 두 가지로 구별한 것은, 크세노폰의 《잔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는, 그들은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신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여신들의 두 신전은 기원후 2세기에 희랍의 여행가이며 지리학자인 파우사니아스로 말미암아 확인되었지만 "판데모스"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분명치 않다. 어쨌든 이 두 여신들의 본성에 관한 추리는 아마 플라톤 자신의 것이리라. 참고로, 에로스는 남성이다.

만, 오히려 그런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그 성질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바르게 이루어지면 아름답고,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것도 에로스도다 아름답고 찬미할 만한 것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사랑을 하도록 하는 분만이 그러합니다.

9.

그런데 '판데모스·아프로디테'에 속하는 에로스는 과연 저속해서, 무엇이건 무작 b 정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한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첫째로 소년을 사랑하듯이 여성도 사랑합니다. 다음에는 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보다도 육체를 사랑합니다. 끝으로 그들은 가장 분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적을 이루기에만 마음이 있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가, 않는가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그들은 선한일이건 그렇지 못한 나쁜일이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게 됩니다.왜 그러냐 하면 이 신은 또 하나의 여신보다 훨씬 젊고 여성과 남성의 피를 함께 c 받고 있는 여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에로스는 우라노스의 여신에게 속하는 것이며, 이 여신은 첫째로는, 여성의 피를 받지 않고 오직 남성의 피만 받고 있고 이것이 소년에의 사랑인데 둘째로는, 나이가 위이며, 방종에 흐르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랑에서 힘을 얻은 사람은 남성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굳세고보다 더 이지적인 사람을 그들이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에대한 사랑에서까지도 순수하게 이 사랑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만 소년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여것이 아니라, 그 소년들이 이미 이성을 갖게 되는 시절에 비로소 사랑하게 되기 때

문입니다. 그것은 겨우 수염이 날 무렵을 말합니다. 그것은 생각컨대, 이 나이 때 부터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한평생 그 사랑하는 소년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이 언제까지나 그와 함께 지낼 각오는 있을망정. 어릴 적의 철없는 틈을 타서 차지하 여 속인 끝에, 비웃고서 다른 소년에게로 버리고 달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치도 못한 일에 공연히 애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철도 안 든 소년을 e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도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년의 앞날 을 끝에 가서 그 정신에서나 육체에서나 과연 좋은 것이 될는지 나쁜 것이 될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런 법 률을 스스로 정하지만, 이것은 마땅히 저속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강요되었 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분이 자유로운 부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한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사랑에 대해서 좋지 못한 평을 가져 오게 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의 뜻에 따 르는 것 57을 욕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분별없고 옳지 못 한 짓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도있고 법에 맞게 하는 행위라 면, 부당하게 책망을 받을 까닭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57 &}quot;뜻에 따른다"함은, 정신적으로는 무조건 따르고, 육체적으로는 몸을 맡기는 것.

그리고 또 사랑에 관한 풍습⁵⁸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규정이 단순해서 알기가 쉽지만, 우리 나라의 그것은 복잡합니다. 즉 엘리스⁵⁹나, 라케다이 b 몬⁵⁰이나, 보이오티아⁶¹나 그 밖에 말재주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풍습이 아주 간단하게 정해지고 있으며, 또한 늙은이건 젊은이건 아무도 그것을 창피스런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말로 타이르는 수고를 풍습으로 덜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오니아의 여러 지방이나, 그 밖에 외국인의 지배 밑에 있는 여러 고장⁶²에서는 그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외국인에게서는 그들의 독재 정치 때문에, 지혜의 사랑이나 c 체육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⁵⁸ 관습 또는 준칙(準則)의 뜻인 nomos는 원래 민간에서 통용되는 하나하나의 생활 규범이었으나, 나중에는 성문화(成文化)된 법률의 뜻이 되었다.

⁵⁹ 엘리스(Elis)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서북 지방.

⁶⁰ 라케다이몬(Lakedaimon)은 스파르타를 말한다. 호메로스 시대에는 두 가지 이름을 다 썼지만,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는 라케다이몬이 공식 명칭이 되었다. 여기서는 특히 동성 연애로 악명이 높았는데, 그것은 국민들을 군대 안에 가둬 놓은 결과이리라 한다.

⁶¹ 보이오티아(Boiotia)는 앗티카 지방에 인접한, 희랍 중부의 한 지역, 사람들이 우두하기로 유명했다.

⁶² 외국인이란 특히 페르시아 사람을 말한다. 기원전 387년 이래로 소아시아 연안의 희랍계(系) 주민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밑에 있었지만, 희랍 말을 못한다 하여, 그들을 업신여겨서 barbaroi라고 불렀다.

지배를 받고 있는 민중 사이에서 큰 뜻을 품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는 굳은 우정과 단결이 생기는 것은 지배자에게는 불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히 사랑이 심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독재자들이 실제의 경험에서 배우고 있는 일입니다. 즉 아리스토게이톤의 사랑과 하르모디오스의 굳은 우정은 독재자들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63 이와 같이 사랑을 주는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을 창피스런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정한 사람의 악덕, 즉 지배자의 탐욕과 지배받는 사람들의 비겁으로 하여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외곬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인정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정한 사람들의 정신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나라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정해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⁶³ 하르모디오스(Harmodios)와 그와 애인 아리스토케이톤(Aristogeiton)은 기원전 514년에 이미 고인이 된 아테나이의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B.C. 560~527)의 아들들인 히피아스와 히파르코스를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사전에 탄로가 나서, 히파르코스는 찔려서 당장 죽었지만, 히피아스는 도망을 쳤다. 이 사건에서 하르모디오스는 현장에서 살해당했고, 아리스토케이톤은 잡혀서 사형당했다. 그러나 히피아스의 정권은 그의 학정(修政)때문에 기원전 510년의 혁명으로 무너졌고, 그들의 계획의 동기는 비록 개인적 모욕에 대한 복수에 있었던 것 같지만, 독재자를 타도했다는 크나큰 명성을 죽은 뒤에까지도 얻었고, 자유를 위한 희생자의 전형적인 본이 되어 영웅으로서 숭배를 받게 되었다.

10.

이런 경우를 깊이 고찰한다면. 이것이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남모르게 사랑 하기보다는 떳떳하게 사랑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비록 얼 굴은 못생겼더라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한층 더 아 름답다고들 한다든가. 또 모든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激勵)는 놀랄 만한 것이라서 뭐가 추잡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차례가 가지 못한다든가. 그리 고 연애의 성공은 아름답지만 실연은 창피한 일이라고들 한다는 것 말입니다. 또 ෙ e 는 우리의 관습은 망측한 짓을 한다 해도 그것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랑 을 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행동을 할 자유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일까 지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실은 만약 어떤 사람이 무슨 다른 목적을 위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짓이라면. 철학으로부터 매우 준엄한 비난을 받지 않 을 수 없을 것입니다—왜 그러냐 하면. 가령 지금 누구에게서 돈을 얻고 싶다든가. 또는 무슨 벼슬자리나, 그 밖에 권세를 차지하고 싶다는 속셈으로 마치 사랑을 하 는 사람이 그 소년에게 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한다면, 즉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서 애걸복걸하며 맹세를 하거나 대문 앞에 누워서 밤을 새거나. 노예조차도 싫다 고 할 굴욕적인 일을 견뎌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친구도 적도 그런 짓은 못 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들은 그의 아첨과 노예 근성을 욕 b 할 것이고 친구들은 그에게 충고를 하여 그의 행실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경우에는, 세 상에서는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우리의 관습에 따라. 마치 뭔가 매우 훌륭한 일 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조금도 책망받지 않고 그런 행동이 허락되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막힌 일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건대, 맹세한 것을 어 겨도 오직 사랑을 주는 사람만은 신들에게서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그것은 사 랑의 맹세는 맹세가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신들 도 사람들도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관습에 나타나 있듯이. 온갖 자유 c

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그러고 보면, 이 나라에서는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한다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일로 인정되고 있다고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는 사람들은 가정교사⁶⁴를 붙여,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들이 사 랑을 주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가정교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 니다. 또 동갑내기나 친구들도 그런 따위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것을 나무라고, 게다가 다른 편, 어른들도 그렇게 나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 d 이 옳지 못하다고 가로막거나 꾸짖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누군가가 보았다 면, 앞서와는 반대로 이 나라에서는 다시 없이 추잡한 일로 알려져 있다고 생각될 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이럴 것입니다. 즉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서, 처음에도 말했지만, 도대체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다든가 추하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아름답게 행하면 아름답고, 추하게 행하면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하게 행한다는 것은 좋지 않게 행하는 좋지 못한 사람의 사랑을, 아름답게 행한다는 것은 선량하 에 행하는 선량한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사람이란 영혼보다도 오히려 육체를 사랑하는 저속한 애인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가 사

⁶⁴ 가정교사(paidagogos)는 소년의 교육 책임을 진 노예를 말하는데, 학교에 따라다니고 일상 행동을 감독하였다.

랑하는 것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 자신 또한 영속적인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즉, 그가 사랑하던 육체의 꽃다운 시절이 지나자마자, 그는 온갖 말이나 약속을 저버리고 훌쩍 "날아가고 맙니다." 그와 반대로 고귀한 품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속적인 것과 어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관습도 이런 사람들을 엄격히 따져서, 어떤 사람들의 뜻은 받아들 184이고 어떤 사람들의 뜻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까닭으로 해서, 그것은 한편은 쫓아가고, 다른 편으로부터는 달아나도록 권해서 이것으로 서로 견주게 하여, 거기 따라 그들 가운데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어느 쪽이고 또 사랑을받는 사람은 어느 쪽인지를 따져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첫째로, 너무 쉽사리 상대방에게 빠지고 마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흔히 일을 가장 잘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 보아야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돈이나 정치적 권세에 굴복하는 것도 치욕스런 일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천대를 받더라도 움츠리고 기를 펴지 못하는 경우이건, 또는 돈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b반는 혜택을 욕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이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이 모든 것들 중에서는 고귀한 애정이 결코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은 그

^{65 《}일리아스》 II, 71.

만두고라도, 그런 것들은 어느 것이고 확고한 것도 영속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소년이 사랑을 주는 사람의 뜻에 아름답게 따르려면 우리의 관습으로 보아 단 한 가지 길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즉 우리 나라에는, 사랑을 주는 사람의 경우에,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서는 자진해서 어떠한 노예적인 일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것은, 아첨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라는 관습이 있었듯이, 또 하나의 자발적인 복종이 창피하지 않은 일로 남아 있습니다. 덕을 위해서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11.

사실 사람이 무슨 지혜에 있어서나 또는 턱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전보다 더욱 훌륭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면, 이 자발적인 복종 역시 굴욕이나 아첨은 아니라고 우리 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랑받는 소년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따르는 일이 결국 칭찬할 만하다는 것을 밝히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습, 즉 소년을 사랑하는 일에 관한 것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든가, 그 밖의 덕에 관한 것을 서로 맺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을 주는 사람과 그가 사랑하는 소년이 같은 목표로 향해서 나아갈 때, 즉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관습에 따라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르는 소년에 대해서 어떠한 봉사라도, 그것이 옳다면 꺼리지 않고, 또한 소년은 자기를 슬기롭고 훌륭한 사람으로만들어 주는 사람에게 어떠한 봉사라도, 그것이 정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할 때, 더욱이 사랑을 주는 쪽은 식견이나 그 밖에 모든 덕을 높이기에 이바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받는 소년 쪽은 교양과 그 밖의 지혜를 얻고 싶어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이 두 가지 관습이 하나로 맺어진다면, 이런 때만은 사랑을 받는 소년이 사랑을 주는 사람의 뜻에 따르는 일이 아름답지만, 다른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

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아도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경우 에는 속았건 속지 않았건, 그 사람에게는 다 창피한 노릇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을 부자라고 믿고 재물 때문에 그의 뜻에 따랐 다가 그가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제 꾀에 빠져 돈 한 푼 얻지 못했다면, 역 시 창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어, 돈 때문이라 면 상대가 누구이건 무슨 봉사라도 꺼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람인데. 이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못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령 어떤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에 대한 우정으로 자기 자신도 더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가. 그가 악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 러나서 속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속은 것은 역시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 b 면, 그 사람도 덕을 위해서는, 또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무 슨 일이라도 기꺼이 한다는 그의 본바탕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덕 을 위해서 상대방의 뜻에 따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그러 냐 하면, 그 사람도 덕을 위해서는, 또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에게 나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한다는 그의 본바탕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상(天上)의 여신에게 속하는 사랑(에로스)으로서 그 자신도 천상

이것이야말로 전상(天上)의 여신에게 속하는 사랑(에로스)으로서 그 자신도 전상적인 것이며, 나라에도 개인에게도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는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덕을 얻기 위하여 참되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랑(에 오로스)은 모두 이것과는 다른 '저속한 여신'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이, 파이드로스, 자네에 대해서 에로스에 관하여 당장에 나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일세."

파우사니아스가 그쳤을 때⁶⁶—나는 이렇게 같은 소리를 겹쳐서 말하는 것을 소피 스트들에게서 배웠지만, 아리스토데모스의 말로는 다음엔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해 야 할 차례가 돌아왔는데, 그는 마침 그때 과식을 했는지 또는 다른 까닭이 있었는 ^d 지, 딸꾹질이 나서 연설을 할 수 없게 되어—그의 다음 자리에 의사인 에리크시마 코스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이렇게 말했다데.

"에리크시마코스, 자네는 당연히 내 딸꾹질을 고쳐 주거나, 아니면 그칠 때까지 내대신 연설을 해주어야 하겠네."

그러자 에리크시마코스가.

"좋지, 내 두 가지 다 해 줌세. 내가 자네 대신 이야기를 할테니, 딸꾹질이 그치거든, 내 차례 때는 자네가 해야겠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동안, 좀 길게 숨을 죽이고있기만 하면 그칠 걸세. 그래도 안 되겠거든 물로 양치질을 해보게나. 심한 것 같거든 콧구멍 속을 건드려서 재채기를 하면 되네. 그것을 한두 번 거듭하면 제아무리 심한 딸꾹질도 그칠 걸세."

라고 말하니까.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럼 나는 그렇게 할 터이니. 자네는 곧 이야기를 시작해 주게."

⁶⁶ 원문은 "Pausaniou de pausamenou"로 되어 있는데, pausamenou는 pauo(그친다)에서 나온 분사(分詞)형. 파우사니아스라는 이름과 소리가 같은 일종의 말장난이다. 고르기아스가 유행시켰다 한다. 플라톤의 《크라틸로스》 396에 이런 문제에 관한 대화가 보인다.

라고 말했다데.

12.

여기서 에리크시마코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데.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은, 시작은 훌륭했지만 만족스럽게 마무릴 짓지 못했으니까, 내가 불가불 그 연설의 끝을 맺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6

그가 에로스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과연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에로 스는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것으로서, 아름다운 소년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여러 가지를 향해서도 있고 모든 동물의 육체 안에도, 땅에서 나는 초목 안에도, 말하자면 온갖 것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전문인 의술에 b서 얻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은 위대하고 놀라운 신으로서 사람의 일이건 신들의 일이건, 온갖 것 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나의 기술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우선 의술로부터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육체의 본성은 이 두 가지 에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상태와 병적 상태는 같은 상태가 아니라, 다른 것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것으로 향하는 애욕과 병적인 것으로 향하는 애욕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파우사 여니아스가 말하였듯이,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의 애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름답지만, 방탕한 사람의 애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연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 자체의 경우에도, 모든 육체 안에 있는 훌륭하고 건강한 부분의 애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름답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나쁘고 병적인 부분의 애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적어도 명의(名醫)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런 애욕을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술이라는 것은,

요컨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애욕을 채워 주느냐 비워 주느냐의 작용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능한 의사란, 이런 작용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 과 추잡한 사랑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신체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한편의 애욕을 버리고 다른 애욕을 얻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애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육체 안에 그것은 심어줄 줄도 알고, 이미 속에 있는 나쁜 애욕을 몰아낼 줄도 아는 사람은 훌륭한 명의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는 신체 안에서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서로 친하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가장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찬 것에 대해서 더운 것, 쓴 것에 대해서 서 단 것, 마른 것에 대해서 젖은 것, 이런 따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안에 애욕과 조화를 만들어 넣을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인들도 67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듯이, 우리의 원조(元祖)인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의술을 창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했듯이, 의술은 전적으로 이 신의 지배를 받고 있

음악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임은. 누구이건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인 사람에게

67 그 자리에 있는 시인 아가톤과 아라스토파네스를 가리킨다.

는 분명한 일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⁶⁸도, 갈피잡기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아마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서로 다르면서도 스스로 자기에게 일치한다', '마치 활이나 리라의 화음(和音)처럼'⁶⁹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화음이 서로 어긋난다든지, 또 더욱이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마 이런 뜻으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화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서로 다 한른 것이었지만, 다음에 음악의 기술로 말미암아 일치되었을 때, 그런 소리에서 조화가 생긴 것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아직 서로 다르면서, 거기서 조화가 생길 까닭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화라는 것은 합음(合语)을 말하는 것이며, 합음은 협화의 한 가지입니다—그런데 협화는 서로 불협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불협화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서로 어긋나고 협화되지 않는 사이에서 화합이 나올 리는 없는 것입니다—

68-69 여기서 말하는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기원전 500년쯤에 활동한 자연 철학자)의 학설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긴장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이치를 설명하기에 활(弓)의 예를 잘 들었는데, 활에서는 반대되는 긴장이 활과 그 시위(줄)로써 동시에 작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에리크시마코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 전체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서로 대립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공존(共存)하고 서로 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라톤은 다른 곳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의미하는 바를 완전히 잘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에리크시마코스가 큰 오해를 범하게 하여 그를 풍자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율동이 빠른 것과 느린 것에서, 즉 처음에는 서로 어긋나다가 나중에는 협화하게 된 것에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에 협화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앞서의 경우에는 의술이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우에는 서로 사랑과 화합을 일으키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화음과 율동에 있어서의 사랑의 작용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화음이나 율동의 짜임새 자체에 있어서 사랑의 작용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고, 여기엔 아직 두 가지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율동과 화음을 써야 할 때, 이른바 작곡이라는 창작이 있어서건, 또는 이미 만들어진 선율(旋律)과 가락을 바르게 쓰는 교양⁷⁰이라는 것에 있어서건, 그런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고, 능숙한 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와 같은 생각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즉 아직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욱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단정한 사람들의 뜻에 따르고 그들의 사랑을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며, 천상의 것이며, 무
 사⁷¹인 우라니아에 속해 있는 에로스입니다. 그러나 폴리무니아⁷²에 속해 있는 에로스는 저속한 것이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쓰려면 그 사랑에서 쾌락은 받아들인다

⁷⁰ 여기서 paideia라는 교육 또는 교양의 의미는, 음악의 반주가 따르는 문에 교육으로서, 체육과 함께 당시의 교육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음악 교육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⁷¹ 무사(Mousa)music)는 시, 문학, 음악, 춤, 그리고 나중에는 천문학, 철학, 그 밖에 모든 지성적 탐구의 신.

⁷² 무사 폴리무니아(수많은 찬가)는 악기와 농업을 발명한 신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서정시와 춤, 때로는 기하학, 때로는 역사를 다룬다고도 생각되었다. 에로스의 어머니로 보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방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서 우리의 의술에서도 좋은 음식에 대한 식욕을 바르게 이용하여, 병들지 않고서 그 즐거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음악에서도 의술에서도, 그 밖에 사람의 일이건, 신의 일이건, 온갖 것에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데까지 두 가지 에로스를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안에 각각 에로스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13.

또한 계절(季節)의 순환에도 이 두 가지 에로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 18에 말한 더운 것과 찬 것, 마른 것과 젖은 것, 즉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단정한 사랑으로 맺어져서 적절히 조화와 혼합을 얻는다면, 그것들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번성(繁盛)과 건강을 가져다 주며, 조금도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 방자 무도한 에로스가 계절에 대해서 힘을 떨치게 되면, 숱한 것들이 망하고 화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염병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병이 동물이나 식물에 생기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리나 우박이나 곰팡이도, 사랑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 사물 사이의 탐욕과 혼란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체의 운행이나 계절의 순환에 관한 이 사랑의 현상의 지식은 천문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의 사랑을 살피며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술은 사람의 연애가 신의 법 과 경건에 어느 만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앎으로써, 신들과 사람과의 사이에 친애의 정을 생기게 하는 창조자입니다.

이렇듯 에로스는, 여러 가지 위대한 힘을, 아니 오히려 전능한 힘을, 요컨대 전체 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절제의 덕과 정의의 덕을 가지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신들 사이에서도, 그 힘을 다하는 에로스야말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주며, 우리 인간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위대한 신들과 사귀게 하여,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 그런데 아마 에로스의 찬미에서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세. 어쨋든 만약 내가 다하지 못한 것이라도 있거든, 아리스토파네스, 그걸 보충하는 것은 자네가 할 일일세. 그렇지 않고 자네가 달리 이 신을 찬미하려거든, 그렇게 하게나. 자네 딸 꾹질도 이젠 그쳤으니."
- 189 이 말에 이어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데.

"과연 그건 그쳤지만, 재채기를 해서 고치기 전까지는 그치질 않았었네. 그래서 나는 어째서 몸 안의 단정한 것이, 재채기 따위의 그런 요란스럽고 간지러운 것을 요구하는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 어쨌든 재채기가 나도록 하니까, 딸꾹질이 당장 그쳤으니 말일세."

그러자 에리크시마코스는,

"여보게, 아리스토파네스"하고 말했다데. "무슨 소릴 하는 건가! 이제부터 연설을 해야 하는데도, 농담을 하고 있다니, 싫어도 내가 자네 연설의 감시자가 돼야겠네. 자넨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데도 무슨 우스개 소리나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일세." 그러자 아리스토파네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데.

"에리크시마코스, 과연 옳은 말일세. 지금 내가 한 말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 두게. 어쨌든 감시만은 그만둬 주게. 나는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익살스 런 소리나 하지 않을까가 걱정이 아니라 익살이라면 그건 도리어 내 이득이겠고 우리들의 무사의 독차지이기도 하니까—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말이나 하지 않을 까, 그것이 걱정일세."

그러자 에리크시마코스는 말했다데.

"여보게, 아리스토파네스, 한 대 먹여 놓고 묘하게 달아날 셈이로군. 그보다도 조심해서, 이치에 맞는 것만을 말하도록 하게. 하기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마 용 여서해 줄 수도 있겠지."

14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데.

"에리크시마코스, 나는 자네나 파우사니아스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할 작정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에로스의 위력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일 세. 만약 알아차렸다면, 이 신을 위해서 아주 굉장한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차려 서, 가장 성대한 제물을 바칠 것일세. 그런데 이젠 이 신에 대해서 그 어느 하나도 행해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 무엇보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사실 에로스는 신 d 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다정한 분이고, 인간을 구제하는 분이고, 그리고 온 인류 가 더없이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의 의사이 기 때문일세. 그래서 나는 이 신의 위력을 자네들에게 설명해 보려고 생각하네. 그 리고 자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바라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먼저 여러분이 배워 두셔야 할 것은, 사람의 본래의 상태와 그 후에 변한 상태입니다. 즉 옛적의 사람의 본래의 상태는 오늘날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성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처럼 남 연 나라는 두 가지 성뿐만 아니라. 셋째 번 성. 즉 두 성을 함께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이름은 남아 있지만, 그 자체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그 당 시에는 어지자지⁷⁸라 하여, 모양으로 보거나 이름으로 보거나, 남녀의 두 성을 합 친 하나의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만 그 이름이 욕하는 말로나 남 아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그 당시에는 사람마다 온몸이 둥근 꼴을 하고 있어서. 등과 허리가 그 둘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넷, 발도 손과 같은 수이고 또 등 190 근 목 위에는 똑같이 생긴 얼굴이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뒤를 붙이고 있는 얼굴 위에는 단 하나의 정수리, 거기에 귀가 넷, 음부(陰部)가 둘, 그리고 그 밖의 것은 다 여기 따라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처럼 일어서서 어 떤 방향으로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달리고 싶으면. 마치 곡예사가 두 다리를 거꾸로 세우고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뛰듯이. 그 당시 가 지고 있었던 여덟의 손발로 버티고 둥글게 구르면서 날쌔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남성은 원래 해에서, 여성은 땅에서, 그리고 두 가지 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달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도 두 성을 겸해 가지고 있으니까 요. 그들은 그 어버이를 닮아서 몸도 걸음걸이도 둥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은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품도 매우 도도하여, 신들에게 덤벼들었던 것

⁷³ 남-여(androgynos)는 aner(남성)+gyne(여성)로 된 말. 우리말의 '어지자지' 또는 '남녀추니'에 해당.

입니다. 그래서 호메로스가 에피알테스와 오토스와의 일⁷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즉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을 두고 ⓒ 하는 말입니다.

15.

그래서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의논했지만, 아무 도리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거인(巨人)들⁷⁵에게 했듯이, 인종을 모조리 번갯불로 때려 없앨 수도 없고—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간이 신들에게 바치는 존경도 제사도 끊어지고 말 것이니까요—그렇다고 해서, 그런 버릇없는 짓을 못 본 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겨우 생각해 낸 끝에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으로는 인간들을 그대로 살려 두면서, 지금보다는 약하게 하여, 그 건방진

⁷⁴ 에피알테스와 오토스는 거신(巨神)으로서, 올림포스 산에다 오사 산을, 다시 오사 산 위에다 펠리온 산(모두 희랍의 가장 높은 산들)을 올려 놓음으로써 하늘로 기어오르려 했다. 그러나 아폴론에게 죽음을 당한다.((오디세이아) XI, 305; (일리아스) V, 385)

⁷⁵ 거인들(Gigantes)이란,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그의 아버지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랐을 때, 거기서 흐른 피가 땅의 신(Gaia)에 떨어져서, 거기서 태어난 용감한 거인들을 말한다. 그들은 올림피아의 신들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신들은 제우스를 받들고 헤라클레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을 패망시켰다.

- d 성질을 없앨 수단이 있을 것 같다. 즉 이제 그들을 각각 절반으로 갈라 놓겠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지금보다 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 수효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 다리로 서서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무엄하고 버릇이 없다면, 나는 한 번 더 그들을 둘로 갈라 놓겠다. 그렇게 하면 다리 하나로 깡충깡충 뛰어다니게 되겠지."
- e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마치 소금에 절여 두기 위해서 오온나무⁷⁶의 열매를 쪼개듯이, 또는 머리카락으로 달갈을 가르듯이, 인간을 절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한 사람을 가를 때마다, 사람이 자기의 갈라진 자리를 보고 좀 더 온순해지도록, 얼굴과 목의 반을 갈라진 쪽으로 돌리게 하고 다른 데도 치료해 주라고 아폴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은 사람의 얼굴을 돌려 놓고, 오늘날 배라고 부르는 것 쪽에서 여기저기서 살가죽을 끌어당겨 마치 염낭이라도 졸라매듯이, 배의 한가운데에 구멍 하나를 만들고 거기서 꽉 졸라맸습니다. 이것이 지금 배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름살도 대개는 펴서 마치 화공(靴工)이가죽을 골에 껴서 주름을 펼 적에 쓰는 것 같은 연장을 가지고 가슴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배의 주름살과 배꼽의 주름살만은, 그 옛날에 당했던 일의 기념으로조금만 남겨 두었습니다.

⁷⁶ 능금나무와 마가목류로서 유럽에서 나는 나무(ca). 여름 한철에 희고 작은 꽃이 피고, 그 열매(con)는 빨갛다. 아마 반으로 갈라서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식후에 먹었던 것 같다.

그런데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그처럼 둘로 갈라진 다음부터는 양쪽이 다 다른 반 쪽을 그리워하여, 한몸이 되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껴안고 서 b 로 얽혀서, 굶주림과 그밖에 게으름 때문에 죽어 갔던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서는 아무 일에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죽고 다른 쪽이 살 아남는 경우에는, 그 살아남은 것은 다른 반쪽을 찾아서 껴안았던 것입니다. 그것 이 지난날의 온전한 여자의 반쪽—오늘날 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만났을 경우이 건, 온전한 남자의 반신을 만났을 경우이건, 그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 은 이렇게 해서 차츰 멸망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께서는 이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다른 수단을 생각해 내신 끝에. 그들의 음부를 앞으로 옮겨 놓으셨습니 다-그때까지는 그것은 바깥쪽에 달려 있어서 상대편의 몸 속이 아니라. 마치 매 c 미처럼 땅 속에서 잉태(孕胎)시키고 낳게 했던 것입니다—그래서 그렇게 앞쪽으로 옮겨 놓으셨고. 그것을 써서 남성이 여성의 몸 안에 생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는, 서로 껴안고서 애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비록 남자끼리라 하더라도. 서로 함께 있고 싶은 욕망만은 어떻게든 채우고나 서. 자기의 일거리로 돌아가고 그 밖의 살림살이도 돌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애는 그렇듯, 먼 옛적부터 사람에게 뿌리박혀 있어서, 그것은 둘 을 하나로 만들고 애초의 상태로 되돌려서 본래의 몸이 되도록 치료하는 것입니다. d

16.

그런 만큼 우리는 누구나 가자미⁷⁷처럼 하나가 둘로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의 부신(符信)⁷⁸입니다. 그래서 서로 늘 자기의 나머지 반쪽 부신을 찾아서 구합니다. 따라서 남자 중에서도, 그 옛날 어지자지라고 불리는 공통의성(性)을 가진 사람의 반쪽인 남성은 모두 여색을 좋아하며, 간부(姦妹)는 대개 이 족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도 사내를 바치는 간부(姦婦)들은 이 족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서도 여자의 반쪽인 것들은, 남자에게는 전혀 마음이 끌리지 않고, 오히려 여자에게 더욱 마음을 기울입니다. 동성애를 하는여자들은 이 족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반쪽은 다 남성을 쫓아다니고, 어려서는 남성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어른이 된 남자를 사랑하여 함께 자고 껴안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청소년 중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본바탕이 가장 남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들을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답하고 용감하며 남성답기 때문

⁷⁷ 이것은 난생(卵生)과 태생(胎生)을 혼동한 옛 희랍 사람들의 잘못이다.

⁷⁸ 부신(symbolon)이란 우리 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옛 희랍에서는 우정을 맺은 두 사람이 기와나, 골패나, 나무쪽이나, 반지 따위를 둘로 쪼개서 각각 한쪽을 지녔다가. 훗날에 서로 만났을 때, 그것을 맞추어 보고 지난날의 서로의 관계의 증거로 삼았다.(본문 193æ에도 "골패 조각"이란 말이 있다.)

에, 동성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라서 남성답게 정계 (政界)에 진출하는 것은 오직 그런 남자들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는 소년을 사랑하고, 결혼이나 애를 만드는 일에는 그 본성으로 보아 아무 관심 b도 없고, 그저 인습에 끌려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할 따름입니다. 그들은 결혼을하지 않더라도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언제나 동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소년이 됩니다.

그런데 소년을 사랑하는 사람이건, 그 밖에 누구이건, 마침 그들 자신의 반쪽을 만나게 되면, 그때야말로 그들은 우정과 친밀감과 사랑에 참으로 놀랄 만큼 이끌려, 오말하자면 한때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평생을 변함없이 둘이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말할 줄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교가 바로 그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교 때문에 그렇게까지 서로 열렬히 하나가 되기를 기뻐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영혼을 뭔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d 그가 바라는 것을 짐작해서 어렴풋이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령 그들이 같이 자

고 있는 자리 옆에 헤파이스토스⁷⁹가 연장을 가지고 와서.

'인간들아, 너희들은 대체 서로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냐?' 고 물어 본다 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렇게 묻는다 합시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아마 될 수 있는 데까지 한몸이 되어, 밤이고 낮이고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정말 너희들의 소원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녹여서 한몸으로 해주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두 사람이 한사람이 되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한 사람처럼 함께 살고, 또 죽어서는 저승에서도 둘이 아니라 한사람으로서 함께 지낼 수 있겠지. 어떠냐, 너희들은 그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만족하겠느냐?' 라고.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싫다 할 사람이나, 무슨 다른 소원을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두말없이 전부터 바라던 바로 그것을, 즉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껴안아 둘이 하나가 되고 싶었던 소원을 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애초의 모습이 그러하였고—우리가 완전한 것이었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을 그리워하고 욕구하는 마음을, 우리는 연애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3

⁷⁹ 헤파이스토스(Hephaistos)는 불, 특히 대장간의 불의 신.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애초에는 하나였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부정(不正)으로 하여, 신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르카디아 사람들이 라케다이몬 사람들로 말미암아 서로 헤어진 것처럼. ⁸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신들에게 버릇없이 굴면 한번 더 찢겨서, 마치 둘로 잘린 골패 조각 모양으로 코 한가운데를 따라 세로로 잘려, 묘비(墓碑) 위에 불룩하게 새겨진 반면상(半面像) 같은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헤매다녀야 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신들을 공경하도록 권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편의 운명을 피하고 다른 편의 운명을 얻기 위한 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로스는 우리의 지도자이며 사령관입니다. 이 신께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신을 거역하는 것은 신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는 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왜 그러냐 하면, 이 신과 친하게 되어 다정히 지내면, 우리 자신의 소년을 발견하여 함께 사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에리크시마코스에게 부탁이지만, 내가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

⁸⁰ 이것은 기원전 385년에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르카디아 지방의 도시인 만티네이아가라게다이몬(스파르타) 사람들에게서 당한 학대에 관한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만티네이아의 도시 성벽은파괴되고, 주민들은 다른 다섯 마을로 강제 분산을 당했다. 플라톤이 이 대화편 안의 이야기를 기원전 416년, 즉 아가톤이 우승한 해에 있었던 것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시대 착오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 대화편이 기원전 385년 이후에 씌어졌다는 증거가 된다.

해서, 내 연설을 웃음거리로 삼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과연 그들도 아마 그 드 문 사람들에게 속하고 둘이 다 원래 남성임에는 틀림없겠지만—그러나 나는 오히려 모든 남녀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각각 사랑의 뜻을 이루어, 자기의 소년을 만나고 애초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는 행복하게 될 수가 있으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오늘날에 있는 일 중에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필연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소년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원인이 되는 신을 찬미한다. 그것은 당연히 에로스를 찬미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를 한 핏줄로 이끌어 주시어, 가장 큰 혜택을 베풀고 계시고, 또 장래에도 우리가 신들을 공경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크나큰 희망을 갖게 하여주십니다. 즉 그는 우리를 애초의 모습으로 되돌려서 치료하여 축복받은 것, 행복한 것으로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리크시마코스, 이것이, 자네 연설과는 좀 다르지만, 에로스에 관한 나의 연설일세. 앞서 부탁했듯이 제발 내 연설을 놀리지는 말아 주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이야기도 들어야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야, 아가톤과 소크라테스 남만이남았으니,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일세."

e 라고 그는 말했다데.

17.

그러자, 에리크시마코스가 말했다데.

"좋지, 그럼 자네 말대로 하겠네. 자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으니, 그리고 내가 소크라테스 님과 아가톤이 연애에 관한 일에 능통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상 당히 여러 가지 연설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할 이야기가 없지나 않을까 걱정도 했겠지만, 이젠 안심이 되네."

그러자, 소크라테스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데.

"에리크시마코스, 그건 자네 자신이 벌써 훌륭하게 경기를 끝냈기 때문이야. 그러 194 나 자네가 지금의 내 처지에 있다면, 아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아가톤까지도 훌륭하게 연설을 끝마친 다음에, 내가 있는 처지에 자네가 있다면, 자네도 꽤 걱정이 돼서, 지금의 나처럼 당황할 걸세."

그래서 아가톤은 말했다데.

"선생님께서는 저를 홀리려고 하시는군요. 소크라테스 님, 딴 사람들이 제가 훌륭한 연설을 하려고 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이 생각하도록 해 놓으시고서, 저를 낭패케 하시려고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가톤, 자네 작품을 상연하기 직전, 자네가 배우들과 함께 무대로 올라가서⁸¹ 그렇게 많은 관중을 맞바로 보면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을 때,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늠름한 모습을 이 눈으로 본 내가, 그런 자네를 지금 이 몇 사람 때문에 낭패할 b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건망증에 걸렸다고나 말해야 할거야."라고.

⁸¹ 작품을 공연할 경우, 그 작가는 시작하기 조금 전에 출연자들을 거느리고 무대로 올라가서 관중에게 인사를 했다.

아가톤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크라테스 님. 분별있는 사람에게는 무식한 대중들보다 생각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더 두렵다는 것을 모를 만큼, 제가 관중 때문에 들떠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라고.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셨다데.

"아가톤, 내가 자네에게 무슨 무례한 생각이라도 품고 있다면, 과연 내가 잘못이 겠지. 그러나 자네가 생각하기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중보다는 그들 이에게 더 마음 쓴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우리들은 설마 그런 지혜로 운 사람은 아닐 거야—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 대중 축에 들 걸세—그러나 만약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면, 자네는 아마 그들에게 부끄럽게 느낄 걸세. 무슨 부끄러운 짓이라도 한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야. 그래, 자넨 무엇이라고 말하겠나?"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데.

"그러나 자네가 뭔가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생각될 경우, 자넨 대중 앞에는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기서 파이드로스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다데.

d "여보게, 아가톤, 자네가 소크라테스 님께 대답하고만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따위는 무엇이 어떻게 되든, 저분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일세. 다만 누군가 말벗만 있으면, 게다가 특히 아름다운 상대가 있기만 하다면 말이야. 나로 서는 소크라테스 님의 대화를 듣는 것이 물론 즐겁지만, 그러나 지금은 에로스신의 찬미에 마음을 쓰고 자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설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네. 그러니 두 사람이 각각 이 신께 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대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네."

"과연 옳은 말일세, 파이드로스. 나로서는 연설하기에 아무 지장도 없네. 소크라 데스 님과 이야기할 기회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라고 아가톤이 말했다데.

18.

"우선 나는 어떻게 얘기할까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하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모두 그 신을 찬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신에게서 받은 혜택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다고 찬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베푼 그 자신은 과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든지, 모든 찬미의 단 한 가지 올바른 195 방식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거기서 오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이론을 가지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로스를 찬미할 경우에도, 역시 먼저 그분이 어떤 성질을 가진 분인가에 관해서 찬미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베푸시는 혜택을 찬미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들은 다 행복하시지만, 에로스야말로—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고, 또 나무랄 일도 아니라면—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또한 가장 행복한 신입니다. 그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파이드로스, 신들 중에서 가장 젊습니다. 이 말에 대한 큰 증거는 그 신 자신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가 재빨리, 필요 이상으로 재빨리 우리에게 닥쳐오는 늙음으로부터 성큼 도망가기 때 b 문입니다. 늙음은 에로스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며, 멀리서도 좀체로 다가가 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 자신도 젊습니다. 같은 것 끼리 가까이한다는 옛말은 과연 옳습니다. 나는 다른 점에서는 대체로 파이드로스

- c 에게 찬성하지만, 다만 에로스가 크로노스⁸²와 이아페토스⁸³보다 오래됐다는 점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신들 중에서도 가장 젊고 또한 영원히 젊고, 또 해시오도스나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신들 사이의 옛일이 그들의 말대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에로스로 해서가 아니라, 아낭케⁸⁴로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신들 사이에 에로스가 계셨더라면, 서로 음부를 자르거나⁸⁵ 결박을 짓거나, 그 밖에 숱한 사나운 짓도 일어나지 않고, 에로스가 신들을 다스리신 다음부터는. 오늘날과 같이 사랑과 평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d 그리하여 이 신은 젊습니다. 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드러운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을 그려 보이기 위해서는, 호메로스 같은 시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메로스는 아테⁸⁶가 여신이며 부드럽다는 것을—적어도 그 다리가부드럽다는 것을—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⁸² 크로노스(Khronos)는 하늘의 신(우라노스)과 땅의 여신(가이아)과의 사이의 막내아들로서 제우스의 아버지.

⁸³ 이아페토스(Japetos)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맏아들로서 프로메테우스(불의 신)의 아버지. 여기서는 아주 오랜 옛날, 태고(太古)적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

⁸⁴ 아낭케(Ananke)는 무자비한 필연의 여신. 정의나 질서와는 상관없이 폭력만 휘둘러 불안을 일으킨다.

⁸⁵ 주석51 참조.

⁸⁶ 아테(Ate)는 제우스의 딸로서 신들이건 인간이건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옳고 그른 것, 이롭고 해로운 것을 분간 못하고 맹목적으로 행동케 하는 광기(狂氣)의 여신((일리아스) XIX, 90 이하).

그 다리 매우 부드러워, 다가오기에도 땅을 밟지 않고, 사람들의 머리 위를 걸으니.⁸⁷

그렇기는 해도, 이 여신이 굳은 것을 밟지 않고, 부드러운 것 위를 걷는다는 것은, 훌륭한 증거를 들어서 그 부드러움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 에로스의 부드러움에 관해서 같은 증거를 들어 보겠습니다. 즉 에로스는 땅 위도 머리 위도 밟지 않고—머리는 결코 부드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모든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안에서 걷고.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들이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그 거처를 정하고—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혼 안에서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어진 마음을 가진 영혼을 만나면 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만나면 거기서 사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발뿐이 아니라, 온 몸으로 부드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것에 접촉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가장 부드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가장 젊고, 가장 부드럽고, 게다가 그 몸매도 나긋나긋합니다. 만 196 약 이 신의 몸이 굳어져 있다면, 여러 가지로 몸을 접기도 어렵고, 남모르게 살며

87 《일리아스》 XIX, 92~93.

시 어느 영혼 속에든지 드나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몸매가 얼마나 잘 균형잡히고 유연한가의 훌륭한 증거는 그 귀티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볼품 없는 몰골과 에로스 사이에는 늘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살갗의 아름다움은, 이 신이 꽃밭에서 살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거나 시든 곳에서는 육체에도 영혼에도, 그 밖에 어디에도 에로스는 머물지 않지만, 꽃 피고 향기로운 곳, 거기서 그는 앉기도 하고 머물기도 합니다.

19.

이 신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아직도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이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엔, 에로스의 덕에 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에로스가 신께 대해서도 인간에게 대해서도 옳지 못한 일을 하지도 않고, 또 신으로부터든 인간으로부터든 옳지 못한 일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일을 당한다 해도, 그 자신은 폭행을 당하지는 않습니다—폭력은 에로스를 건드리지 못하니까요—또 그가 무엇을 한다 해도, 폭력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다, 모든 일에서 에로스에게는 자진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진해서 찬동한 일은 정의라고, '나라의 왕인 법'⁸⁸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덕 말고도, 에로스는 매우 높은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쾌락과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절제의 덕인데, 에로스보다 강한 쾌락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신보다 약한 것이라면, 그것들은 에로스의 지배를 받고, 반대로 에로스는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쾌락이나 욕망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에 있어서는, 에로스에게는 '아레스조차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⁵⁸ 그 d까닭은, 아레스는 에로스를 잡을 수 없지만, 에로스는—전하는 말로는, 그것은 아프로디테에 대한 사랑인데—아레스를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잡는 자는 잡히는 자보다 강합니다. 다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자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또한가장 용감한 셈입니다. 이 신의 정의와 절제와 용기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지만, 그러나 그 지혜에 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나는 될 수 있는 데까지 조심하여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도,

⁸⁸ 고르기아스의 제자인 변론가 알키다마스(기원전 5세기쯤에 활동)의 말(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修辭學》) 1406 a), 또 판다로스(Pindaras, B.C. 518~438)의 "법은 모든 멸하는 자와 멸치 않는 자의 왕이니라."

⁸⁹ 아레스(Ares)는 전쟁의 신. 성격이 포악하고 무계획하여 전쟁이라기보다는 전투의 정신을 신격화한 것. 소포클레스의 《타에스테스(Thyestes》》 에 "필연에는 아레스도 당할 수 없다"라고 있는 말을 빈 것.

에리크시마코스가 그의 전문적인 기술을 존중한 것처럼, 우리들의 기술을 존중하 e 기 위해서 말한다면, 이 신은 매우 훌륭한 시인이라서, 다른 사람까지도 시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한번 에로스의 손이 닿기만 하면. '비록 지 금까지는 무사 신과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시인이 됩니다. 이것을 증거로 해서, 에로스는 무릇 예술에 관계되는 창작에 있어서 훌륭한 창작가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적절합 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주거나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더욱이 모든 생물을 생산하는 것이 에로스의 지혜로 되는 일이고 보 면, 그것으로 모든 생물이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러나 또 모든 기술적인 일을 보더라도. 이 신을 스승으로 삼는 사람은 뛰어나고 빛 나게 되지만, 에로스가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어둠속으로 묻히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활을 쏘는 기술이나 의술이나 예언술을 아폴론이 발 b 명한 것은, 욕망과 사랑에 지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신도 에로스의 제자 이고, 또한 음악에서의 무사의 신들이라든지, 대장일에서의 헤파이스토스라든지, 직조술(織浩術)에서의 아테나라든지, 또 '신들과 사람과의 통치'에 있어서의 제우 스라든지, 다 그러합니다.

그런 만큼, 신들의 사건에도 에로스가 관여하시어,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추한 것에 대한 사랑이란 없으니까요—그들 가운데에 나타난 다음의 일이며, 그전에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하는 바로는 신들 사이에서도 무서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아낭케가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신들에게도 인간에게도,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에서 모든 좋은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c 그래서, 파이드로스, 에로스는 첫째로 그 스스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시며, 다음에는 남에게도 자기와 같은 성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이 신께서는, 사람에게는 평화를, 바다에는 고요함을, 폭풍에는 잠자리를, 괴로움에는 잠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서로 어색한 마음을 없애서 다정한 마음으로 채워 주 d 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모이게 하시어, 잔치나 춤 이나 제사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그것은 온화하게 하시며, 사나움을 멀리하시는 분. 기꺼이 호의(好意)를 베푸시어, 미움은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 온유하며인자하신 분. 현명한 사람에게는 보일 만하고, 신들에게는 찬미될 만한 것. 혜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러움, 혜택받은 사람에게는 값진 보배. 사치, 섬세, 화려, 우아(優雅), 그리움, 동경의 아버지. 착한 사람들을 돌보며, 악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분. 고난에서, 공포에서, 동경에서, 언론에서는 으뜸가는 키잡이, 전사, 원조자, 구원자, 모든 신과 인간에게 있어서의 질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 모든 신과 인간의 마음을 매혹시키면서 부르는 이 신의 노래에 맞추어, 모든사람은 찬미하며 뒤따라야합니다.

파이드로스, 이것이 이 신께 바치는 나의 연설일세. 때로는 농담도 없지 않겠지만, 때로는 힘 자라는 데까지 진실을 섞어 가면서 했네."

20.

아리스토데모스가 나에게 말한 바로는, 아가톤의 연설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데. 이 젊은 시인이 자기에게도 그 신에게도, 걸맞게 말했기 때문일세. 그런데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에리크시마코스를 보면서말씀하셨다데.

"자, 어떤가, 쿠메노스의 아드님, 내가 아까 걱정한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고 생각되는가? 아가톤은 훌륭한 연설을 할 것이고 나는 난처해질 것이라고 잘도 예언

하지 않았던가?"

거기 대해서 에리크시마코스는 이렇게 대답했다더군.

"한편은, 즉 아가톤이 훌륭한 연설을 하리라고 말씀하신 점은 예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선생님께서 난처해지시리라는 것은 들어맞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데.

- b "그건 또 웬말인가, 이 친구야, 나나 다른 누구나 난처해질 밖에 있겠나? 이렇게 훌륭하고 다채로운 이야기의 뒤를 이어서 말해야 한다면 말일세. 하기야 다른 부분이 다 한결같이 경탄할 것은 아니지만, 끝맺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누가 듣든지 그 아름다운 말씨에 넋이 나가지 않을 수 있었겠나? 나로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말
- 하기란 흉내도 낼 수 없겠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하마터면 달아날 지경이었네. 어딘가 달아날 수만 있었다면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연설은 나에게 고르기아스를 생각나게 했고, 그 결과 나는 호메로스가 말한 것과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일세. 즉 아가톤은 연설을 하면서 웅변가인 고르기아스의 머리를 내 연설에 틀어박고, 나를 말 못 하는 돌⁹⁰(石)로 만들어 버리지나 않을까 걱정했던 것일
- d 세, 그래서 그때 내가 얼마나 우스운 짓을 했는지 나중에서야 깨달았네. 즉 차례가

⁹⁰ 머리털 대신 뱀으로 엉킨 머리를 가진 추악한 여성 괴물 고르고노스(또는 메두사)를 잠깐만 보아도 몸이 돌로 바뀐다는 전설에서 빌어 온 말장난. 아가톤의 스승인 고르기아스와 고르고노스와 발음상 비슷한 점을 농담한 것(《오디세이아》 XI, 633 참조).

오면 자네들과 함께 에로스를 찬미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게다가 사랑에 관해서만 이 아니라, 무슨 일에 관해서든 찬미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무것도 모 르는 주제에 자기는 사랑에 관해서만은 능통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말일세-그런 데 사실 나는 어리석게도. 사람은 무엇을 차미하든지 그 하나 하나에 관해서 참된 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엔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골라 내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조리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찬미하든지 그 참다운 성질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멋진 연설을 할 수 있 으리라고,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일세. 그런데 보아하니,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 가를 아름답게 찬미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것은 사실이 그렇건 아니건 e 다만 그것에 될 수 있는 대로 위대한 것, 될 수 있는 대로 아름다운 것을 갖다 붙이 는 일인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 해도.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이야기된 것은 우리가 각자 에로스를 실제로 찬미하 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찬미하는 듯이 보이려는 것 같았기 때문일세. 그런 만큼 내 생각으로는, 자네들은 온갖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에로스께 돌리고, 그 는 그러그러한 성질을 가지셨고. 또 이러이러한 것을 주신다는 따위의 말을 해서. 그것으로 그를 되도록 아름답고, 되도록 훌륭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단 말이야. 물 론 그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지.—사실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없는 일 이겠으니까-그렇게 해서 그 찬사는 훌륭하고 당당하단 말일세. 그런데 나는 찬미 하는 방법을 몰랐고, 모르면서도 차례가 오면 나도 찬미하겠다고 자네들과 합의했

던 것일세. 그래서 '혀[舌]가 약속했지, 마음은 아니야.'⁵¹ 그러니 그건 없었던 일로 치겠네. 이미 그런 식으로는 찬미할 생각이 없어졌단 말일세─그렇게 할 힘도 없 고─그야 진실 같으면, 자네들이 희망하기에 따라서는 이야기해도 좋지. 하지만 그 b 것도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일세. 자네들의 연설과 겨루기라도 해서, 남의 웃음거리 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파이드로스, 어떻겠나? 자네는 아직도 이런 연 설, 즉 에로스에 관한 참다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 고 있는가? 말씨에 있어서나 구절은 떠오르는 대로 하겠지만."

그러자 파이드로스도 다른 사람들도, 그분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믿는 대로 이야기 해 달라고 말했다데.

"그러면, 파이드로스, 아가톤에게 몇 가지 질문할 것을 허락해 주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와 합의를 보아야겠으니."

라고 말씀하셨다데.

"허락하고말고요. 자, 물어보십시오."

c 라고 파이드로스는 말했다데. 이어서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대개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일세.

⁹¹ 에우리피데스의《히폴리토스》612.

21.

"사랑하는 아가톤, 자네가 우선 에로스 자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한 연설의 첫머리는, 과연 훌륭하다고 생각되었네. 이렇게 시작한 것을 나는 매우 감탄하였네. 자, 그러면 자네는 다른 점에서도 멋지고 당당하게 에로스의 성질을 설명해 주었으니, 어디 다음에 관해서도 말해 주게나. 에로스는 무엇인가의 사랑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의 사랑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에어니에게의, 또는 아버지에게의 사랑인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니야—에로스가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냐고 묻는 것은 쑥스런 일이지—내가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말에 관해서, 도대체 아버지란 누군가의 아버진가, 아닌가? 라는 것일세. 자네가 훌륭하게 대답하려면, 틀림없이 '아버지란 아들이나 딸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할 것일세.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렇죠."

라고 아가톤이 대답했다데.

"어머니의 경우도 그것과 마찬가지겠지?"

그는 여기 대해서도 동의했다데.

"좀 더 대답해 주게. 그러면 내가 말하려는 뜻이 더 잘 이해될 테니까. 가령 내가 은 다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나? '그러면 어떤가? 형제라는 것은 형제인 까닭이되는 것으로서 누군가의 형제인가, 아닌가?'라고."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데.

그렇다고 그는 대답했다데.

"즉 형제나 자매의 그것이겠지?"

여기에도 그는 동의했다데.

"그렇다면 어디, 사랑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보세. 에로스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 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사랑인가?" "그야. 물론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죠."

200 그래서 소크라테스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것을, 즉 '무엇인가의'라는 것을 자네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게. 그리고 지금은 이것만 말해 주게. 에로스는 그 사랑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욕구하는가. 않는가?"

"물론 욕구합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데.

"에로스는 그가 욕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차지했을 때도, 그것을 욕구하며 사랑하는가. 아니면 차지하지 못했을 때인가?"

"아마 차지하지 못했을 때이겠지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게. 욕구하는 자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욕구하며, 없지 않다 면 욕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마'가 아니라 '반드시'가 아니겠나? 나에게는, 아 가톤, 이것은 이상하리만큼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넨 어떤가?"

라고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말씀하셨다데.

"저에게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데.

"좋아. 그렇다면 큰 사람이 커지고 싶다든가, 또는 강한데도 강해지고 싶다고 바람까?"

"그건, 지금까지 동의해 온 것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새삼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을 거야, 지금 사실로 그러하 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데.

"만약 강한데도 강하기를, 빠르면서도 빠르기를, 또 건강하면서도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나 또는 이와 비슷한 모든 경우에, 이미 그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갖고 싶다 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말이네만—이런 사람들은, 아가톤, 자네도 생각해 보면 알려니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욕구하건 않건, 반드시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네. 그런데도 도대체 누가 그것을 욕구하겠는가? 아니 누군가가, 나는 건강하지만 건강하고 싶다, 부자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일세.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체력을 앞으로도 갖고 싶다'는 것일세. 바라든 안 바라든, 적어도 당장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갖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겠지?"

아가톤이 그렇다고 말했다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아직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 즉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것으로 있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겠나?" "과연 그렇지요."

е

라고 그는 대답했다데.

"그런 만큼, 이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누구든 욕구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마음 대로 되지 않는 것이나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욕구하는 것이겠지. 즉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 자신 아직 그렇지 못한 것, 또는 자기에게 없는 것, 그런 것을 욕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지?"

"그렇고말고요."

라고 그는 말했다데.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합의본 것을 되풀이해 보세. 에로스란 다름 아니라, 첫째로 무엇엔가에 대한, 다음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이겠지?" 라고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말씀하셨다데.

201 "그렇죠."

라고 그는 대답했다데.

"그러면 더 나아가서, 자네는 자네의 연설에서 에로스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는지 돌이켜보게나. 원한다면 내가 생각나도록 해주겠네. 자네는 대강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되네. 즉 신들의 일도,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가 되었다, 추한 것에 대한 사랑이란 없기 때문이다, 자네는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아가톤은 대답했다데.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게다가, 여보게, 그것은 아주 적절한 말이었어. 과연 그렇다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고, 추(醜)에 대한 것은 아니겠지?"

여기에 그가 동의했다데.

b "그런데, 사람은 자기에게 없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에 합의를 본 셈이지?"

"그렇죠."

라고 그는 말했다데.

"그러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되 겠군."

"불가불 그렇게 되죠."

라고 그는 대답했다데.

"자, 그러면 어떨까? 아름다움이 없고, 도무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네는 아름답다고 말하겠나?"

- "천만에요."
- "사실이 그렇다면, 그래도 자네는 에로스를 아름다운 것이라고 동의할 수 있겠나?" 그러자 아가톤은 이렇게 말했다데.
- "소크라테스 님, 제가 아까 말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 "그래도 자네 이야기는 아주 훌륭했어, 아가톤. 그건 그렇고 좀 더 말해 주게. 선 야한 것은 또한 아름답기도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만약 에로스에게 아름다운 것이 없고, 게다가 선한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에게는 선한 것도 없다는 셈이 될 걸세."
- "저는, 소크라테스 님, 선생님께는 반대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해 두 겠습니다"
- "아니야, 사랑하는 아가톤. 진리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할 수 없지만, 소크라테스에게 반대하기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22.

d "이젠 그만해 두고 자네를 놓아 주겠네. 그리고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세. 그것은 지난날, 만티네이야⁹²의 디오티미⁹³라는 여자에게서 내가 들은 것일 세. 그 여자는 사랑의 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이었다네─한때 아테나이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하려고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여자는 그들을 위해서 피하려고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여자는 그들을 위해서 그 전염병 ⁹⁴이 닥쳐오는 것을 10년이나 늦춘 일도 있었지. 바로 그 여자가 나에게 사랑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네─그래서 그 여자가 말해 준 것을, 이미 나와 아가톤과 합의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서 힘 닿는 데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네. 그런데, 아가톤, 자네도 밝혔듯이, 첫째로 에로스는 누구이며,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음엔 그가 하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할 걸세. 그렇게 하기에 가장 수월한 방법은, 그 외국 여자가 그전에 나에게 질문하면서 설명해 준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실은 나도 그 당시 그 여자에게, 지금 아가톤이 내게 말한 것과 비슷한 것을 말했네. 즉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며, 또 아름다운 것에 대

⁹² 만티네이아(Mantineia)는 펠로포네소스 반도의 중앙부의 아르카디아 지방 동남쪽 평지에 있는 중요한 도시.

⁹³ 디오티마(Diotinma)라는 여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판 증거는 없다.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이 사람의 입을 벌어서 나타내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⁹⁴ 기원전 430년에 크게 퍼진 페스트, 아테나이의 유명한 정치가 페리클레스(Perikles B.C. 495?~429)도 이 병에 걸려서 죽었다.

한 사랑이라고. 그러자 그 여자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반박한 것과 똑같은 논법으로 즉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에로스는 아름답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것이 된다'고, 나를 반박했던 것일세."

'무슨 말입니까? 디오티마. 그러면 에로스는 추하고도 악하단 말인가요?' 라고 나는 말했네.

'말씀 삼가하세요. 선생께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반드시 추한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여자가 대답하데.

'그렇고맠고요.'

'그렇다면 또 지혜 없는 것은 곧 무지가 되는 셈이로군요? 혹시 지혜와 무지 사이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던가요?'

201

'그게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 이치를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어찌 지식이겠습니까?—또한 무지도 아니라는 것—사실로 있는 것에 들어맞는 것이 어찌 무지이겠습니까?—을 모르십니까? 정녕, 올바른 생각이란 바로 지혜와 무지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여자가 말하데.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네.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반드시 추하고 선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악하다고 b 억지를 부리셔서는 안 되지요. 에로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는 에로스가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신을 추하고 악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 둘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 여자가 말했네.

'그래도 에로스는 모든 사람에게서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요.'

라고 내가 말했지.

'그 모든 사람이란, 그 신을 모르는 사람들 말씀인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인가요?'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물론 그들을 다 합친 모든 사람이죠.'

그러자 그 여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소크라테스 님, 에로스를 신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c 그를 위대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라고 내가 물었네.

'하나는 선생님, 또 하나는 접니다.'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b 그래서 나는 말했네.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야, 뻔한 일이죠.'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은 신은 다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주장하시겠죠? 아니면, 신들 중에는 아름답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분이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천만에, 제우스에 맹세코, 나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래도 선생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야 그렇죠.'

d '그렇지만 선생님은, 에로스는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만큼,

바로 그 없는 것을 욕구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분명히 인정했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도 선한 것도 전혀 차례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신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순 없을 것 같군요.'

'그것 보세요. 선생님도 에로스를 신이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죠?'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23.

'그렇다면 에로스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내가 물었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그건 무엇입니까, 디오티마?'

'위대한 신령(神靈)입니다. 소크라테스 님,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신령적인 것은 신 은 적인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내가 말했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신들에게, 또 신들에게서 나온 것을 사람에게 통역하고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부터는 기원(祈願)과 제물을, 신으로부터는 명령과 그리고 제물에 대한 보답을 전달하고, 또 그 둘의 비어 있는 사이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서로 맺어져 온전한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예언술도 행해지고, 또 제물이나 제례나 기도나 그 밖에 모든 예언이나 요술에 관한 제관(祭官)들의 술법(術法)도 이 신령을 통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신이 사람과 직접 사귀는 일은 없고, 오히려 신들과 사람들 사이의 교섭과 대화는, 깨어 있건 잠들어 있건, 다 이 신령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신령적인 사람이지만, 그 밖에 다른 일에서, 이를테면 무슨 기술이라든가 수공이라든가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속된 사람입니다. 이런 신령들은 수도 많으려니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로스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라고 내가 말했네.

b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데.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을 때 신들이 축하 잔치를 벌였는데, 그중에는 다른 신들과 함께 메티스⁹⁵의 아들인 포로스⁹⁶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난 뒤에, 그런 경우에 늘 있듯이 페니아⁹⁷가 구걸을 하러 와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포

⁹⁵ 메티스(Metis)란, 사려(思慮)의 뜻을 신격화한 것. 신들과 인간들 중에서 가장 지모(智謀)에 뛰어난 여신.

⁹⁶ 포로스(Poros)는 풍부 또는 부유의 신.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술책이 무궁무진하다.

⁹⁷ 페니아(Penia)는 빈곤의 뜻으로서, 그것을 의인화(擬人化)한 것. 신은 온갖 복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페니아의 빈곤으로 보아, 그는 심이라기보다는 에로스의 인간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로스는 신주%(神酒)에 만취해서—포도주는 아직 없었던 시절이니까요—제우스의 뜰에 들어가, 거기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페니아는 c 자기가 가난하니까. 포로스로 하여 애를 낳으려는 꾀를 내서, 그 옆에 붙어 누워 에로스를 배었습니다. 바로 이 까닭으로 해서 에로스는 아프로디테를 따르고 섬겨 모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여신의 생일날에 태어났고, 동시에 나 면서부터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였고. 게다가 아프로디테 자신이 아름다운 신이었 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은 운명을 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늘 가난하며, 흔히들 생각하듯이, 상냥하 고 아름답기는 커녕, 거칠고, 초라하고, 맨발이고, 집도 없고, 언제나 이부자리도 d 없이 땅 위에 눕고, 한데의 문턱이나 길가에서 잠을 잡니다. 이것은 다 어머니 편 의 성질을 받아서 늘 없는 상태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편으로는 아버지도 닮아서, 언제나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넘보고, 용감하고, 대 담하며, 뚝심 세고, 능숙한 사냥꾼이고, 언제나 무슨 계략을 짜내고, 사려 분별을 구하면서 실수가 없고, 평생토록 지혜를 사랑하며, 또 뛰어난 요술사, 마법사, 그 리고 학자입니다. 게다가 그 본성이 죽지 않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고. 하루 사이 e 에도 일이 잘 되면 꽃을 피워 살고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 아버지에

⁹⁸ 넥타르(Nektar)는 신주(神酒). 불사(不死)케 하는 것이라 한다.

게서 받은 본성에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얻으면 늘 잃기가 일쑤인지라, 에로스는 결코 궁하지 않지만,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또 한편 그는 지혜와 무지와의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엔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신이란 어느 분이고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지혜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이미 지혜가있으니까요—그 밖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편무지한 자도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한편무지한 자도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분별력이 있지도 못하면서, 제깐에는 흠잡을 데 없는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여기에 무지라는 것이 어떻게도 다루기 어려운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을 욕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디오티마,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지한 사람도 아니라면.'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러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데.

- b '그야 삼척동자라도 알 만한 일이죠. 그건 그 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데, 에로스도 고중의 한 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혜는 물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의 하나이고,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불가불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며, 또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와 무식한 자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그 원인도 그의 태어남에 있습니다. 즉 그 아버지는 지혜롭고 지략이 넘치는데, 어머니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지략도 없으니까요. 대강 이런 것이 친애하는 소크라테스 님, 이 신령의 본성입니다.
- c 그야, 선생님께서 에로스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신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를 에로스라고 생각하신 것 같군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에로스가 매우 아름다운 자

로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는 정녕 아름답고 섬세하고 완전하고 부러울 만큼 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주는 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24.

그래서 나는 말했네.

'그건 과연 그럴 겁니다, 손님. 당신은 참 훌륭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에로스가 그런 것이라면, 인간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d

'바로 그것을, 소크라테스 님, 이제부터 선생님께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과연 에로스는 이런 분이고,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또 그것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령,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어째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사랑이냐고,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더욱 분명히 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즉 사랑을 하는 자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데, 어째서 사랑하는가? 라고 말씀입니다.' 나는 말했네.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답은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필요로 합니다. 즉 아름다운 것이 자기 것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차례가게 되는가?'

이렇게 그 여자가 말하데.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장은 대답할 수가 없군요.'

라고 말했네.

'그러시다면, 가령, 이렇게 하죠. 누가 질문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 대 e

신에 선한 것이라는 말을 써서, 자, 소크라테스, 사랑을 하는 자가 선한 것을 사랑할 경우에 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선한 것이 자기 것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차례가게 됩니까?' '그거라면 먼저 것보다 대답하기가 더 쉽죠,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네.

'왜 그러냐 하면, 행복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 하여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경우에,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으냐고 더 물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 대답으로 끝이 맺어 지는 것 같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러면 이 의욕과 이 사랑은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선한 것을 늘 차지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죠.'

라고 나는 말했네.

b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님, 만약 사람마다 같은 것을 그리고 늘 사랑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째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를 않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까?' 라고 그 여자가 말하데.

'그건 나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아니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랑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따로 떼내서. 이것에다 전체의 이름을 붙여서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요.' 라고 그 여자가 말했네.

'이를테면?'

하고 내가 물었네.

'이를테면 이거죠. 아시다시피 창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옮아가는 원인이 되는 일은 다 창작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 여 술에 속하는 일도 창작이며, 그런 일에 종사하는 제작자는 다 창작가인 셈이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창작가라고 불리지를 않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즉 음악과 음율(韻律)에 관한 것만을 떼내서, 이것을 전체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이 창작이라고 불리고 또 창작의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창작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런데 사랑에 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선한 것이나 행복에 대한 모 d 든 욕망은, 확실히 '가장 강하고도 함정에 가득찬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다른 길에서, 이를테면 돈벌이라든가, 체육의 애호라든가, 지혜의 사랑이라든가의 방면에서 그리로 향하는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있다거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특정한 한 가지 방면으로 향해서 이것을 열렬히 구하는 사람들만이 사랑이라는 전체적인 이름을, 즉 사랑, 사랑을한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인 것 같군요.'

라고 내가 말했네.

'하기야, 또 하나의 주장으로는, 자기의 반쪽을 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도 과연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으로는, 사 량이 구하는 것은 반쪽도 아니고 전체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뭔가 선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선생님.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부가 병들었다고 믿으면, 손발까지라도 스스로 잘라 버리고 싶어지니까요. 그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누구나 다 애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좋은 것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 자기의 것이라고 부르고, 나쁜 것은 남의 것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선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그 밖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데.

'아닙니다, 제우스에 맹세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고는 무조건 말할 수 있겠지요?'

라고 그 여자가 말하데

'그렇죠.'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러나 어떨까요? 좋은 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사랑한다고 덧붙여야 하지 않을 까요?'

라고 그 여자가 말하데.

'덧붙여야지요.'

'그렇다면, 자기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자기 것이기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 여자는 말했네.

'그것도 덧붙여야지요.'

'그러면 요컨대, 사랑이란 것은 좋은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하

겠습니다.'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25.

'그런데 사랑이 언제나 그런 것일 경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위에서 추구 b 하면, 그 사람들의 간절함과 노력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는 구실은 사실상 무엇이겠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그 여자는 말했네.

'그럴 수 있다면야, 디오티마, 내가 당신의 지혜에 놀라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것 도 아니고 바로 그것을 배우러 굳이 당신한테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저 말씀드리죠. 그건 곧 아름다운 것 안에 생식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건 영혼에건'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언술이라도 있어야겠군요. 알 수 없는데요.' 라고 내가 말했네

'그럼,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실은 모든 사람은, 소크라테스 님, 육체에도 영혼 여 에도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에 이르게 되면, 우리들의 본성은 자연히 애를 낳고 싶어합니다. 물론 추한 것에서는 생식할 수 없고, 아름다운 것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5% 남녀간의 결합도 생식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신적인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죽게 마련인 생물 안에 죽지 않는 것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임신과 출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 안에서는 될어 수 없지요. 그런데 추한 것은 모든 신성한 것과 어울리지 않지만, 아름다운 것은 이것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로네¹⁰⁰가 출산에 대해서는 모이라¹⁰¹가 되고, 또 에일레이티이아¹⁰²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고 있는 자가 아름다운 것에 가까이 가면, 그는 가슴이 용솟음치는 기쁨에 넘쳐서 생식하며 출산합니다. 그러나 추한 것에 가까이 가면, 얼굴을 찌푸리고 괴로워서, 움츠리고, 등을 돌려대고 물러서서, 낳지는 않고, 임신을 한 채로 짐스러워 합니다. 그런 만큼, 임신해서 이미 배가 불러 있는 자는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강렬한 흥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무서운 괴로움에서 풀려나게 해주니까요. 그러니, 소크라테스 님, 사랑의 대상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듯이, 그저 아름다운 것만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⁹⁹ 디오티마와의 대화에서, "생식"이니 "임신"이니 "출산" 등등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혀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기능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진리를 탐구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원동력이 곧 에로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정신적인 진리 출산의 조산워임을 자처했던 것이다.

¹⁰⁰ 칼로네(Kalone)는 아름다움의 여신.

¹⁰¹ 모이라(Moira)는 운명의 여신.

¹⁰² 에일레이티이아(Eileithyia)는 출산의 여신. 모이라는 죽음과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삶과의 관계에서 이 여신과 맺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여자는 말했네.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 안에 생식하며 출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는지도 모르지요.'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고말고요. 그럼 대체 사랑은 어째서 출산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기 마련인 것에 대해서는 출산이 일종의 영원한 것,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들이 이미 합의를 본 것으로 미루어, 사랑이 좋은 것을 영원히 갖고 싶 207 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좋은 것과 함께 죽지 않는 것을 욕구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보아, 불가불 사랑의 목적이 죽지 않는 것에도 있다는 것이됩니다.'

라고 그 여자는 말했네.

26.

그 여자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나에게 이렇게 묻데.

'소크라테스 님, 무엇이 이 사랑과 이 욕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걷는 짐승이건 날짐승이건, 모든 동물은 생식하고 싶어질 때는, 얼마나 격렬하게 흥분하는 b지, 모두들 병든 것처럼 애욕에 빠져, 처음에는 서로 교접하기에, 다음에는 태어난 것을 키우기에, 그것들을 위해서는 가장 약한 것이라도, 가장 강한 것과 싸울 뿐만아니라,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또 그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자기 몸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그 밖에 무슨 일이라도 해내는지, 이런 것을 아시겠죠? 물론 사람의경우에는 신중한 생각으로 분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동물의 경우에 그렇게 애욕에 불타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말씀하실 c

수 있겠어요?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나는 또다시, 모른다고 대답했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말하데.

'그것도 모르시면서, 사랑에 관해서 언젠가는 능통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디오티마 님, 바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나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니 사랑에 관한 이런 일과 그 밖의 모든 일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들이 여러 번 합의를 본 그것으로 향 하는 것이라고 믿고 계시다면. 별로 이상하게 여기실 것도 없겠습니다. 즉 지금의 짐승의 경우도 사람의 경우와 같은 이치에서, 죽기 마련인 것의 본성은, 될 수 있 는 데까지 영원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이것으로만, 즉 생식으로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끊임없이 헌 것 대신에 새 것을 남겨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의 동물이 살고 있다 하 고 또 같은 것으로서 살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이름테면, 사람은 어 려서부터 늙기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결코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머 e 리털도 살도 뼈도 피도. 요컨대 몸 전체에서 늘 어떤 것은 새로워지고 동시에 어떤 것은 잃어가고 있는데도,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욕망이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것이고 결코 같은 것으로 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생기고 어떤 것은 없어집니 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 한 일은, 지식이라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은 생기면서 다른 것은 없어지고—우리 자신이 지식에 관해서도 결코 늘

같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하나의 지식도 그 어느 것이고 같은 것이아닙니다. 복습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식이 떠나가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잊는다는 것은 지식이 나간다는 것인데, 복습은 떠나가는 지식 대신에, 새 기억을 만들어내서 다시 그 지식을 지니고 그 결과 그것을 먼저 것과 같은 지식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죽기 마련인 것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적인 것처럼 언제나 전혀 같은 것으로존재한다는 방식이아니라, 오히려 떠나가는 낡은 것이 자기와 같은 다른 새 것을 처음에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소크라테스 님, 이런 방식으로, 육체의 경우이든 그밖에 모든 경우에, 죽기 마련인 것은 불사성(不死性)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것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본성에서 자기자소을 소중히 여긴다해도, 별로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 불사라는 것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라고 그 여자는 말했네.

27.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나는 경탄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네.

'글쎄, 현명한 디오티마, 정말 그럴까요?'

그러자, 그 여자는 더할 나위 없는 지혜의 선생 같은 말투로 말하데.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님.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가령 사람들의 명예욕 c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죽지 않는 명예를 영원히 누리기'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 얼마나 해괴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를 생각하시고서 또 이런 일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지식을 위한 일보다 더 많이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쓰고 어떤 고생도 견뎌내고, 결국은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도 꺼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모르신다면, 인간의 명예 d

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지 놀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케스 티스가 아드메토스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따라 죽 는다든지. 또는 선생님 나라의 코드로스¹⁰³가 아들들의 왕위(王位)를 위해서 스스 로 목숨을 재촉하는 따위의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들이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그들의 덕에 대한 불멸의 명예를 그들이 생각하 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오히려 불멸의 덕과 그 렇듯 빛나는 명예를 위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이라도 하며, 훌륭한 사람일 e 수록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죽지 않음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임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성에게 마음이 끌려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애를 낳음으로써, 죽지 않음과 추억과 행복을 영원히 갖게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임신하 고 있는 사람들이—왜 그러냐 하면, 육체에서보다 더욱 많이 영혼 안에, 영혼이 임

신해서 출산할 만한 것을 임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럴 만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분별력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덕입니다—그리고 모든 시인도 다 그것들을 산출하고. 제작가들 중에서도 발명가(發明家)라고 불리는 사

209

¹⁰³ 코드로스(Kodros)는 아테나이의 전설상의 왕. 시탁에 따라 도리아의 침략자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되었다.

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분별력 중에서도 특히 소중하고 특히 아름다운 것은 나라와 집안을 다스리는 덕으로서, 그 이름은 절제와 정의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젊어서부터 그 영혼이 신적이어서. 그런 덕을 임신하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차서 b 출산하고 생식하고 싶어질 때는, 이 사람 역시 찾아 헤매면서, 출산할 수 있는 자 리가 될 아름다운 것을 구할 것입니다. 추한 것 안에서는 결코 생식하는 일이 없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임신하고 있기 때문에 추한 육체보다도 아름다운 육체를 더욱 반기지만. 게다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또한 천품이 훌륭한 영혼을 만나면, 그 두 가지¹⁰⁴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을 크게 반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에게 덕이 c 라든가, 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고 그리하여 그 사람을 교육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 는 그는 아름다운 사람과 접해서 그와 사귀어, 오랫동안 잉태하고 있었던 것을 출 산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건 따로 있건. 그를 잊지 않고. 태어난 것을 그와 함께 키 웁니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인간의 자손들로 맺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협동심과 더욱 곧은 사랑을 갖게 됩니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불사적인 자손 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사람 몸에서 나온 자손보다는 오히 d 려 이런 자손을 갖기를 반길 것입니다.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나 그 밖에 훌륭한

¹⁰⁴ 육체의 아름다움과 정신의 아름다움.

시인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그런 훌륭한 자손을 남기고 그 자손은 그 자신이 죽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불사의 명성과 추억을 가져다 준 것을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원하신다면, 리쿠르고스¹⁰⁵에 관해선데, 그가 라케다이몬의, 아니, 헬라스 전체의 구호자(救護者)로서 어떤 자손을 라케다이몬에 남겨 놓았는가를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귀국에서는 솔론은 법률을 산출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디서든지, 헬라스에서건, 외국에서건, 많은 아름다운 일을 남기고 여러 가지 덕을 산출해 낸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자손을 남겼다고 하여, 그들을 위한 신전(神殿)이 이미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손을 낳았다고 해서, 신전이 세워진 일은 아직 없습니다.'라고 그 여자는 말했다네.

28.

'사랑의 신비에 관해서 여기까지라면, 소크라테스 님, 아마 선생님께서도 알고 계 210 셨겠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숨은 신비¹⁰⁶를—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것

¹⁰⁵ 리쿠르고스(Lykourgos)는 스파르타의 기초를 세운 입법가이며 군대 조직의 창설자. 여기서 말하는 "지손"이란 그런 법률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말한다.

¹⁰⁶ 궁극적인 숨은 신비란, 그 보다 앞서는 여러 단계의 종교적 정화(淨化)의 의식을 거친 다음, 신전 안에서 신상(神像)을 통하여 심령적으로 신과 통하는 마지막 신비스런 의식을 말한다.

을 위한 것이었지만—올바른 길을 따라 걷기만 한다면, 선생님께서 그것을 아실수 있을는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군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말씀드려, 저로서의성의를 결코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될 수 있는 데까지저를 따라오시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먼저 아름다운 육체를 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도자가 올바르게 이끌어 준다면, 우선 첫째로 한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말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에 그는 어느 한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른 육체의 아름다움과 형제 사이라는 것을 b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습의 아름다움을 구해야 할 경우에, 모든 육체의 아름 다움을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 달은 바에는, 그 사랑을 모든 아름다운 육체에까지 넓혀야 하고, 어느 한 육체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천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그러뜨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육체의 아름다움보다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 결과, 영혼만 훌륭하다면 비록 육체의 화려함은 c 덜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만족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아서 그 젊은이를 더 욱 선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낳고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또 직업 활동이 나 법규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이 모든 아름다움이 서로 같은 또래임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게 하여. 그 결과 육체의 아름다움이란 하잘 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 활동 다음에는 그를 여러 가지 지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여러 가지 지식의 아름다움을 관찰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이미 많은 아름다움을 주목하여, 마치 노예처럼 한 소년 d 이나 하 사람이나 또하 하 직업 활동의 아름다움에만 만족해서 거기에 예속되어. 그 결과 저속하고 천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아 름다움의 넓은 바다로 눈을 돌려, 그것을 보면서 지혜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수 많은 아름답고 당당한 말과 사상을 산출하여. 드디어 거기서 강해지고 커져서. 다

음과 같은 아름다움에 관한 단 하나의 어떤 지식¹⁰⁷을 보아서 알기 위한 것입니다. ⁶ 자, 이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저에게 정신차려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29.

'그런데 올바르게 차례를 따라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사랑의 신비에 관해서 이 만큼까지 이끌려온 사람은, 드디어 그 길의 끝에 다다르면, 갑자기 놀라운 성질을 가진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도, 소크라테스 님,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언제나 있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둘째로 어디는 아름답지만 어디는 추하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아름답지만 어떤 때는 추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비교하면 아름답지만 저것과 비교하면 추하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추하게 보이듯이, 여기서는 아름답고 저기서는 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에게 얼굴이나 손이나 또는 그 밖에 신체의 어떤 부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

107 이것은 플라톤이 진정한 보편적 학문(mathema)이라고 부른 "변증법" (dialektike).

니다. 또 무슨 말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 안에. 이를테면 동물이나 땅이나 하늘. 또는 그 밖의 것 안에 있 👂 는 것으로서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와 함 께 단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있는 것으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 아름다움을 뭔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가질 때 아름다워집니다. 즉 다른 것들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 은 그것 때문에 늘거나 줄지도 않고, 또 아무 영향도 받지않는다는 방식입니다. 그 래서 만약 사람이 그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출발해서 올바르게 소년을 사랑함으로 써 위로 올라가서 저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거의 궁극적인 것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힘으로나 남에게 이끌리거나 해서 사 c 랑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땅 위의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저 가장 높은 아름다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더욱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마치 층계를 올라가듯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두 육 체로, 두 육체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아름다운 육체로부터 아름다운 직업 활동으로, 다음에는 직업 활동으로부터 아름다운 여러 가지 학문으로, 여러 가지 학문으로부터 저 아름다움 그 자체의 학문인 바로 그 학문에 이르러. 드디어 아름 다움 그 자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삶이 여기에 이르러서야, 친애하는 소크라테스 님,(라고 그 만티 d 네이아의 여자는 말하데) 사람은 아름다움 자체를 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그것을 보신다면, 그 아름다움은 황금이나 옷이나 또는 아름다운 소년이나 청년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열중하여, 선생님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소년을 보면서 늘 이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그를 보고 함께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여자는 말을 이었네. '만약 누군가가 아름다움 그 자체를 다행히 매 e

우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다운, 그리고 사람의 살이나 빛깔이나 그 밖에 수많은 하 치않고 죽어 없어지는 것 따위로 더럽혀지지 않은,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면, 즉 단 하나의 모습을 가진 신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 212 게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리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까? 그 방향으로 눈을 돌려 그것에 맞는 기관(器官)을 가지고 보고, 또 그것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생활을 하치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여자는 이어서 말하데.

'아니라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능¹⁰⁸으로 보는 사람은, 오직 거기서만 그림자에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덕의 그림자가 아니고, 오히려 진리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덕을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다운 덕을 산출해서 이것을 키운 다음에 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죽지 않음이 허락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도 허락된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여자는 말하데

b "이것이, 파이드로스, 그리고 다른 여러분, 디오티마가 이야기해 준 것인데, 나는 그것으로 설득되었네. 설득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도 설득되도록 해보고

있는 것일세. 즉 그런 보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본성으로 보아, 에로스보다 더 좋은 조력자를 찾아 보기란 쉽지 않다는 것 말일세. 바로 그런 까닭으로 해서, 사람은 누구나 에로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네.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랑의 일을 존중하여 열심히 실행하고 있고, 또 남에게도 그것을 권장하고 있네. 그리고 나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에로스의 힘과 용기를 찬양하는 것일세.

어쨌든, 파이드로스 자네만 좋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에로스에 대한 찬사로 $\,^{\circ}$ 생각해 주게. 그야 자네 좋을 대로 하게나. 무슨 이름으로 부르건 또 어떻게 부르 건. 자네 좋을 대로 하게나."

30.

소크라테스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모두들 찬사를 보냈지만, 아리스 토파네스만은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다데. 그것은 소크라테스 님께서 그 얘기 안에서 그의 연설을 빗대놓고 말씀했기 때문이었지.¹⁰⁹ 그러자 갑자기 바깥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정꾼들이나 지르는 것 같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¹⁰⁹ 앞서 205d-e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반신을 구한다고 말한 것을 소크라테스가 반대했었던 일을 가리킨다.

왔다네. 게다가 피리 부는 여자의 피리 소리까지 들려 왔고. 그래서 아가톤은 종 아이들에게.

d "얘들아, 어서 가서 보고 오지 않겠니? 잘 아는 분이거든 모셔 오너라. 아니거든 우린 술은 안 마시고, 이젠 막 잠자리에 들려고들 한다고 일러라." 라고 말했다데

그러자, 얼마 안 되어서, 안뜰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소리가 들려 왔는데, 그 사람은 매우 취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아가톤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아가톤에게 데려가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데. 그러자, 피리 부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의 종들이 그를 부축해서 그들 자리로 데려왔는데, 등꽃과 고목바기꽃으로 총총하게 엮은 화관 e (花冠)을 쓰고, 머리 둘레에는 여러 가닥의 리본을 주렁주렁 매단 그는, 문턱에서서 이렇게 말했다데.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취한 주정뱅이를 술자리에 한몫 껴 주지 않으렵니까? 아니면, 아가톤의 머리에 리본이나 달아주고 그대로 돌아갈까요? 우린 바로이 일 때문에 왔으니까요. 실은 어제는 올 수가 없었지만, 오늘은 머리에 리본을 달고 찾아왔지요. 이것을 내 머리에서 벗겨서 만약 이렇게 불러도 좋다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머리에 달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취했다고 생각해서 비웃으려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비웃어도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멀쩡하게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당장 말해 주세요. 그런 조건으로들어가도 좋은지 어떤지? 같이 마시렵니까, 안 마시렵니까?"

213

그러자 모두들 환성을 올리며 그를 맞아들여,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걸터 눕도록 권했고, 아가톤도 그를 불러 들였다데.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고, 그와 동시에 리본을 장식해 주려고 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눈 앞에 늘어져 소크라테스 님이 보이지 않아서, 아가톤 옆에 소크라테스 님과 그와의 사이에 끼어 앉았었다데. 그건, 소크라테스 님께서 그를 보시고 자리를 내어 주려고 옆으로 비켜 앉으셨기 때문이었다네. 그리고는 자리에 앉자, 아가톤에게 인사를

하고 리본을 감아 주었다데. 그러자 아가톤은 종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데. "얘들아, 알키비아데스의 신을 벗겨 드려라, 세 번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누울테니." 알키비아데스는

"그렇지, 그렇게 해주게나.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란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려 소크라테스 님을 보자.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데.

"아이쿠, 이거 웬일이십니까? 소크라테스 님께서 여기 계시다니? 선생님은 또 이런 데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하기야 결코 안 계시리라고 생각되는 곳에 언제 오나 갑자기 나타나시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여긴 또 왜와 계십니까? 게다가 하필이면 왜 이 자리에 누워 계십니까? 아리스토파네스나그 밖에 어릿광대나, 또는 어릿광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옆으로 가시지는 않고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옆에 자리를 잡으시다니, 잘도 재주를 부리셨습니다."그래서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말씀하셨다데.

"아가톤, 날 좀 도와 주어야겠네. 이 사람의 내게 대한 사랑은 매우 심상치 않은일이 되고 있기 때문일세. 사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 사랑한 다음부터는 단 한 사람의 미남(美男)에게도 거들떠보거나 말을 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네. 그런 일이 d라도 있으면,이 사람은 질투와 시기에서 해괴한 짓을 하여,나에게 욕을 퍼붓고손찌검이라도 할 판일세. 그러니 지금도 무슨 짓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지켜 보고있게. 아니, 그보다도 우리들을 화해시켜 주게. 만약 무슨 사나운 짓이라도 할 것같거든,날 좀 감싸주게.이 사람이 미쳐 날뛰고 사랑에 몸부림치는 데는 아주 소름이 끼치니까."

"저하고 선생님 사이는 화해 따윈 안 됩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한 복수는, 이 다음에 두고 보십시다. 지금은, 아가톤, 그 리본을 좀 나누어 주게. 이분의 은이 놀라운 머리에도 감아 드리고 싶으니까. 내가, 자네는 장식해 주면서, 말에서는이분도 자네처럼 그끄저께뿐만 아니라, 늘 어느 누구고 이겨 오셨는데도, 이분을 장식해 주지 않았다는 따위의 책망은 듣고 싶진 않으니까."

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다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몇 가닥의 리본을 받아서 소크라테스 님의 머리에 달아 드리고 나서. 침상에 누웠다더군.

31.

자리에 눕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데.

214 "그건 그렇고, 여러분, 모두들 조금도 취한 것 같지 않군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걸요. 다 같이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어지간히 취기가 돌 때까지, 이 술자리의 좌장(座長)을 지명합니다. 나 자신을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톤, 큰 잔이 있거든 가져오도록 해 주게. 아니, 그럴 것까진 없어. 그보다도, 얘, 너, 저기 저 술 식히는 물통¹¹⁰을 가져오너라."

그는 보통 잔의 여덟 배도 더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데. 그리고는 거기다 가득히 붓게 하고, 우선 자기가 들이킨 다음에, 소크라테스 님께 따라 드리라고 이르고 이렇게 말했다데.

"여러분, 소크라테스 님께 걸리면, 내 잔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권하는 대로 얼

110 술을 식히는 물통이란, 물을 탄 포도주를 빨리 차갑게 하기 위해서 쓰였다 한다.

마든지 마시고 그러고도 끄떡 없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님은 종아이가 잔을 채우자, 곧 비우셨다데. 그러자 에리크시마코스가.

"그런데, 알키비아데스, 어떻게 할 셈인가? 우린 이렇게 잔을 손에 들고 별로 이 b 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마치 목마른 사람처럼 마냥 마시기만 하자는 건가?"

라고 말했다데.

그래서 알키비아데스는 대답하기를.

"에리크시마코스, 가장 분별력 있는 훌륭한 아버님의 가장 훌륭한 아드님, 안녕하신가?"

"자네도 평안한가?"

라고 에리크시마코스도 말했다데.

"그런데 우린 무엇을 하자는 건가?"

"그저 분부대로. 우리는 자네에게 복종해야겠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사 한 사람은 많은 사람과 맞먹는 까닭에 !!!

그러니 좋을 대로 처방을 내리게나."

"그럼 들어 주게."

라고 에리크시마코스는 말했다데.

"자네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에로스에 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훌륭한 연설을 해서 그분을 찬미하기로 했었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벌써 다 연설을 끝마쳤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 연설도 하기 전에 벌써 마셨으니, 이번엔 당연히 자네가 연설을 해야겠어. 그래서 자네가 끝나거든, 무엇이고 마음대로 소크라테스 님께 부탁을 드리게. 그리고 그분도 오른편 사람에게 또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일세."

"그거 참 좋은 말이로군, 에리크시마코스, 하지만 취한 사람의 연설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설과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평치 못한 것 같군. 게다가, 고맙기도 하여라, 자네는 방금 소크라테스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뭔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실은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실 이분은, 내가 이분 계신 앞에서 누구든 그것이 신이든 사람이든, 이분 이외의 다른 누군가를 칭찬이라도 하였다간, 아마 나에 대해서 손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알키비아데스가 말했다데.

"이 사람, 그만해 두지 않겠나?"

라고 소크라테스 님께서 말씀하셨다데.

"포세이돈¹¹²께 맹세코, 선생님께서 반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을 칭찬하진 않겠으니까요."

라고 알카비아데스가 말했다데.

"좋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게. 소크라테스 님을 칭찬하게나."

라고 에리크시마코스가 말했다데.

"무엇이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에리크시마코스? 이분께 덤벼들어 e여러분 앞에서 복수를 하란 말인가?"

라고 알키비아데스가 말했다데.

"여보게, 자네는 도대체 어쩔 셈인가? 나를 칭찬해서 놀림감으로도 삼으려는 건가? 어쩔 작정인가?"

라고 소크라테스 님께서 말씀하셨다데.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괜찮겠죠?"

"물론이지. 정말이라면야 허락하다 뿐인가, 부탁이라도 하겠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데.

"그러면 곧 시작하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뭔가 사실 아닌 것을 말하거든, 원하신다면 중간에서. 가로막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세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두 215

112 포세이돈(Poseidon)은 바다와 모든 샘물(泉)을 지배하는 신. 맹세할 때 쓰는 말의 한 가지.

서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놀라실 건 없습니다. 이런 취한 상태로 선생님의 남다른 성격을 차례대로 일일이 드러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다데.

32.

"여러분, 나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소크라테스 님을 칭송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분은 아마 희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비유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희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주장합니다 만, 이분은 조각가의 일터에 앉아 있는 실레노스¹¹⁸의 조각상(彫刻像) 그대로 입니다. 조각가는 그런 조각상의 손에 피리나 퉁소를 쥐어주고 있는데, 그 상을 양편으로 열면, 그 안에 놓여 있는 신들의 상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주장합니다만, 이분은 사티로스¹¹⁴의 마르시아스¹¹⁵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것들과 비슷

¹¹³ 실레노스(Silenos)는 언제나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함께 다니며, 대개 나귀를 타고 다닌다. 귀는 말귀 같고 코가 넓적한, 대머리의 언제나 취해 있는 노인. 그러나 영감에 찬 예언자. 허름한 겉차림 속에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

¹¹⁴ 사티로스(Satyros)도 디오니소스와 함께 다니며 반은 사람, 반은 양(羊)으로 되어 있어, 호색(好色)하는 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즐겁게 떠들썩하는 젊은 인상을 주고 있다.

¹¹⁵ 마르시아스(Marsyas)와 그의 애제자인 올림포스는 전설상 소아시아의 프리기아의 능숙한 적수(笛手).

하다는 데에는, 소크라테스 님, 아마 선생님 자신도 별말씀 없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점에서도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부터 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참 짖궂 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다면 증인들을 대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적수(笛手)가 아니시라고요? 그야. 마르시아스보다는 훨씬 더 놀랄 만한 적수이십 c 니다. 하기는 그는 악기를 써서 입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람들을 흘리게 했고 지금 도 그의 곡을 부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올림포스가 늘 불던 곡은 마르시 아스의 작곡이고 그가 가르친 것이라고 나는 말하니까요—그래서 그의 곡을 부는 사람이 능숙한 남자 적수이건, 서투른 여자 적수이건, 그의 곡만이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들이나 신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신들리게 하여. 그들이 누구인가 를 밝혀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악기를 쓰시지 않고 그저 말만으로 그런 일 을 하신다는 점만이 그와 다를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말로 얘 d 기하는 것을 들을 경우. 제아무리 훌륭한 웅변가라 해도 누구 하나 아무렇게도 느 끼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거 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비록 그가 아무리 서투르게 전한다 해도. 그리고 듣는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또는 젊은이건. 우리는 다 놀라며 넋을 잃고 맙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만취한 것 같이 생각되지 않거든, 나 자신이 이분의 말씀으로 대체 무엇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지, 신께 맹세하고 나서 여러분께 말

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심장은 코리바스116들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뛰고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본 바로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나 그 밖에 훌륭한 웅변가의 연설을 들을 때 는 과연 말을 잘 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말한 것 같은 감동은 조금도 겪어 보 지 못했습니다. 심혼이 뒤흔들린 일도. 노예의 처지에 놓인 것 같아서 화가 난 일 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이 마르시아스에게는 몇 번이고 마음이 흔들려. 나의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사는 보람이 없는 것 같은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님, 그건 정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지요. 지금도 역시 이분에게 귀를 기울일 생각이라도 들면, 나는 고집도 부릴 수 없이, 여전히 같은 일을 겪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저 자신에게 아직도 결점이 많은 주제에, 마음을 자기 일에는 쓰지 않고, 아테나이 사람들의 일에 쓰고 있다고 억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사이렌 등 로부터 달아나듯이. 억지로 귀를 막고 도망갑니다. 여기서 이분 옆에 앉아서 이대 로 늙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분에게 대해서만 은, 아마 아무도 내 속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즉 뭔가에 대한 부끄러 움이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이분에게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분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 에게서 떠나면, 곧 대중의 신망을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스스로 잘

¹¹⁶ 코리바스(Konybas)는, 키벨레(소아시아의 프리기아의 여신)를 모시는 제관(祭官)들로서, 그들은 피리나 북을 울리면서 광적인 음악과 난잡한 춤으로 신들린 상태에 빠졌다 한다.

¹¹⁷ 지중해의 한 섬에서 산다는 요녀(妖女)인 사이렌(Seiren)들은 위의 반은 여자, 아래 반은 새의 몸을 가진 괴물들. 그 노래로 항해하는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한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에게서 뛰어 도망갑니다. 그래도 다시 이분을 만나면, 앞서 이분에게 대해서 억지로 인정했던 일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차라리 이 세상에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들 때가 많습 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된다면야, 훨씬 더 많이 슬퍼하리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는지 나로서는 모르겠습니다.

33.

그런데 이 사티로스의 피리 곡조로. 나도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다른 점에서도 내가 비유한 것과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담하지만, 여러분 중 의 어느 누구도 이분을 알지 못하고 있을 터이니까요. 어쨌든 이왕 시작했으니, 내 d 가 밝혀 놓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님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반하길 잘 하고 늘 그들 때문에 바쁘고 넋을 잃고 있으며, 다른 편으로는 무슨 일에든지 무식하고 또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겉보기가 그런 것은 실레노스와 비슷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모르는 체하는 것은, 마치 조각된 실레노스와 마찬가지로—겉에 걸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이 열리면, 술친구 여러분, 얼마나 절제의 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 히려 누구도 믿기 어려울 만큼 그런 것을 업신여깁니다. 또 누가 부자냐 아니냐에 관해서건, 또는 뭇사람들 눈에 행복하게 보이는 다른 어떤 명예로운 것을 가졌는 가 아닌가에 관해서건, 마찬가집니다. 사실 이분은 그런 소유물들이 아무 값어치 도 없는 것이, 또 우리들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이렇게 나는 여 러분에게 장담합니다-그러나 그분은 한평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늘 사람 들에게 농담이나 걸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엄숙하게 그 속을 열어

보일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상(像)을 본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매우 거룩하며 황 217 금 같이 빛나고 또 지극히 아름답고 놀라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는 소크 라테스 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건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 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나의 꽃다운 청춘에 반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는 그것이 뜻밖의 혜택이며 놀라운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 면, 소크라테스 님의 뜻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분이 아시는 것은 무엇이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 청춘의 아름다움에 나는 크게 우 쭐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까지는 하인을 딸리지 않고 혼자서 이 분과 함께 있는 일이 없었지만. 그때는 하인을 돌려 보내고서 이분과 단 둘만이 되 었습니다—여러분에게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겠으니까요. 그러나 잘 들어 주세 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님,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거든 나무라십시오—그래서, 여 러분, 이분과 단 둘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애인과 마주앉 아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듯. 이분이 곧 나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 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느 때나 다 름없이 나와 이야기하며 함께 하루를 지내고 가셨습니다. 그 후에 나는 함께 유동 을 하자고 꾀어서 씨름을 했습니다. 내가 노린 일을 거기서 얻으리라고 기대를 걸 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와 함께 운동을 하셨고. 씨름을 c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 른 일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분은 호되게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되겠고 적어도 한번 시작한 바에는 물러나서는 안 되겠고—이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셈인지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의 애인에게 딴 마음을 품었을 때 쓰는 것과 꼭

같은 수법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이분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장에는 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승낙하셨습니다. 물론처음 오셨을 때는, 식사가 끝나자 곧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 때는 나도 부끄러워서 d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번에는 딴 마음을 품고 식사가 끝난 다음, 나는 밤늦게까지 줄곧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가시려고 했을 때, 늦은 것을 핑계로 억지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식사하실 때 누우셨던 바로 내 옆의 참상에 올라가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우리들 두 사람밖엔 아무도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 @ 음 일은 내게서는 듣지 못했을는지도 모르지요. 만일 첫째로 옛말에도 있듯이, 술 이.(여기에 어린애라는 말이 덧붙건 말건) 정직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둘째로 이왕 소크라테스 님을 칭송하기 시작한 바에는. 그 갸륵한 행실을 모르는 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게다가 독사에 물린 사람의 처지에 나도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흔히들 말하는 것을 보면. 물린 일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일을 겪은 사람 말고는 아무 218 에게도 들려 주기를 꺼려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도 아픈 나머지, 무슨 짓 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만은 알아주고 동정도 해주리라고 생각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보다도 더 지독한 독사에 물린데다 가장 아 픈 데를 물렸습니다--왜냐하면, 마음이랄까, 영혼이랄까, 또는 무슨 이름으로 불 러야 하든지, 어쨌든 지혜의 사랑(철학)에 관한 얘기에 찔리고 물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얘기란 것은 젊고 범상치 않은 영혼을 붙잡기만 하면, 독사보다도 지독 하게 물고 늘어져. 그 영혼에게 무슨 일. 무슨 말이든지 시킵니다—게다가 또 지금 내 앞에는, 파이드로스라든가, 아가톤, 에리크시마코스, 파우사니아스, 아리스토 데모스, 아리스토파네스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 님 b 의 이름은 새삼 들 것도 없고. 그밖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모두 지혜를 사랑하기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입니다—그러니 다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때 내가 한 일도, 이제부터 말하는 것도, 너그럽게 생각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인들이나 그 밖의 속되고 무식한 자들은 다 큼직한 문짝으로 귀를 막아 주게.

34.

c 그런데, 여러분, 등불도 꺼지고, 하인들도 물러갔으니, 이젠 그분에게 멀리 돌려서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한 대로 털어놓고 말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살며시 흔들며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님, 잠드셨어요?'

'아니, 아직.'

하고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체 무엇이길래?'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이죠, 저에게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를 사랑하기에 알맞은 단 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다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터놓기를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아 요. 그렇지만 제 심경은 이렇습니다. 다른 경우, 이를테면, 선생님께서 제 재산이

d 나 제 친구들의 재산을 필요로 하실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에서도 제가 선생님의 욕구를 채워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에게는 될 수 있는 데까지 가장 훌륭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만큼 저에게 힘찬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의 욕구를 채워 드리지 않는다면, 채워드리고서 무식한 대중에게 부끄럽게 느끼기보다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부

끄럽게 느낄 거예요.'

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은 늘 하는 그 독특한, 사뭇 비꼬는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알키비아데스, 내가 과연 자네가 말한 것 같은 사람이라서 자네를 더욱 훌륭하게 할 만한 무슨 힘이라도 내게 있다면, 자네는 과연 바보는 아닌 것 같군. e 그렇다면 자네의 아름다움에는 댈 것도 아닌 훨씬 더 엄청나게 훌륭한 아름다움을 내게서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만약 자네가 그것을 보고 나와 사귀어서 자네의 아름다움과 내 아름다움을 서로 바꿔 가지려고 한다면, 자네는 나보다도 적지 않은 이득을 차지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자네는 겉보기의 아름다움 대신에 참다운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해서, 사실 '구리를 가지고 황금을' 219 바꾸려고¹¹⁸ 생각하고 있는 것일세. 어쨌든, 여보게, 좀 더 잘 살펴보게. 내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자네가 그것을 몰라서야 되겠나. 사실 육안의 힘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가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법이야. 그러나 자네는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말했습니다.

118 《일리아스》 VI, 235~236.

'제가 말씀드리려던 것은 그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선생님께서도 생각해 주십시오. 선생님이나 저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특한 말일세.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일에 관해서도, 그 밖에 다른 일에 한 관해서도, 우리 두 사람에게 과연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서로 의논해서 실행토록 하세나.'

그래서 나는 그분과 이런 말을 주고 받고 하여, 말하자면 화살을 쏘고 말았으니, 이분은 이미 부상당하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그분에게 한 마디도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내 외투를 그분께 덮어 드리고서—겨울이었으니까요—나 자신도 그분의 낡은 외투 속으로 들추고 들어가서, 이 참으로 신령스런 놀라운 분을 두 팔로 껴안고 하룻밤을 같이 누워 지냈습니다. 이것도, 소크라테스 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지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보았지만, 이분은 내 아름다움을 어떻게도 할 수 없이 이겨내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욕했습니다—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선 자신만만했거든요, 재판관 여러분. 소크라테스 님의도도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재판관이니까요—나는 신들과 여신들께 맹세코 말합 나다만,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소크라테스 님과 함께 자고 났지만, 아버지나형과 같이 잤을 때와 아무 다름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35.

그런데, 여러분은 그 뒤의 내 심경이 어땠으리라고 짐작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모욕당했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이분의 본바탕과 절제력과 용기에 탄복했습니다. 지혜와 참을성에서 그만한 분을 결코 만나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겐 화도 낼 수 없고 사귀다가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분을 끌어당길 만한 재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은돈에 대해서는, 아이아스¹¹⁹가 칼에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온몸이 불사신(不死身)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게다가 이분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단 하나의 것을 가지고서도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 할 바를 몰랐고, 또어느 누구든 남에게서 당한 일도 없는, 노예 같은 처지를 나는 이분에게서 당하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다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그 후 우리들은 함께 포테이다이아 의 싸움¹²⁰에 종군했었는데, 거기서는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선 고 생을 견뎌내는 힘으로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이분을 따를 사람이 없 220 었습니다—싸움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딘가 길이 끊겨서 식량 없이 견딜

¹¹⁹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 576. 일곱 겹의 쇠가죽으로 된 아이아스의 방패를 말한 것.

¹²⁰ 칼키디케 반도에 있는 아테나이의 속국인 포테이다이아(Poteidaia)가, 그 모국인 코린토스와의 국교를 단절하라는 아테나이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였다. 3년 동안(B.C. 432~430) 아테나이의 포위 공격 끝에 결국 점련당하고 말았다.

수밖에 없었던 때에도, 참을성 많기로는 이분을 당할 사람이 전연 없었습니다—그러나 또 좋은 음식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즐겁게 먹을 수 있었던 사람도 이분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술에서는 마시고 싶어 하는 일은 없었지만, 권하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아직 소크라테스 님께서 취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제 곧 보실 수 있겠죠.

또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는 참을성에서도—그 고장의 추위는 대단하니까요—그분 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도 언젠가 매섭게 춥던 날, 모두들 밖으로 안 나가거나, 혹 나간다 해도 엄청나게 껴입고 구두를 신고 발을 담요와 털가죽으로 로 싸맬 정도였는데, 이런 형편에서도 이분은 그전에도 늘 입었던 외투를 걸치고 나가서, 구두를 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다니셨던 것 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이분이 자기들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해서, 흘겨보았던 것 입니다.

36.

c 이 얘기는 이만큼 해두고, 어느 때가 그 싸움터에서.

이 용사가 다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견뎌냈는가? 121

그것은 들을 만한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인가 생각에 잠겨 아침 일찍부터 한 곳에 선 채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도무지 풀리지 않아 단념하지 않고 골똘하 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낮이 되니까, 병사들도 눈칠 채고 이상하게 여겨, 소크라테스가 이른 아침부터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선 채로 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결국 날이 저물어 저녁 식사도 끝낸 다음, 몇몇 이오니아 사람들이 이부자리를 들고—그땐 여름이었으니까요—밖으로 나왔습니다. 시 d 원한 곳에서 잠도 잘 겸, 이분이 과연 밤새도록 서 있을 건가 아닌가, 지켜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날이 밝아서 해가 뜰 때까지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태양에 기도를 드린 다음, 그 자릴 떴습니다.

또 싸움터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빛을 갚는 것이 공평하겠으니까요. 장군들이 나에게 훈장을 주게 되었던 그 싸움에서 실은 나를 구해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이분뿐이었습니다. 이분은 상처를 입은 나를 버리려 하지 않고, 내 무기와 내 몸을 함께 구해 주셨습 은 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님, 저는 그 때 훈장은 선생님께 드려야 한다고, 장군들

121 《오디세이아》 IV, 242.

에게 청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께서는 저를 책망하시거나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장군들은 내 가문을 생각해서, 나에게 훈장을 주고 싶어했을 때, 장군들보다도 선생님 자신이 더 열심히, 그것을 받을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고집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군대가 델리온¹²²에서 패전하여, 후퇴할 때의 소크라테스 님은 과연 볼 만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마침 말을 타고 있었지만, 이분께서는 중무장을 한 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가 이미 산산이 흩어지게 되자, 이분은 라케스¹²³와 함께 후퇴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을 보자마자, 걱정말라고 기운을 북돋아 주며, 두 사람을 내버려 두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포테이다이아에서 보다도 더욱 잘 소크라테스 님을 관찰했던 것입니다—나 자신은 말을 타고 있어서, 그다지 두렵지가 않았으니까요—첫째로, 이분의 태연함에서 라케스보다 얼마나 훌륭한가를, 다음에는 그 당시 내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파네스, 자네 말마따나, 이분은 거기서도 여기서나 다름없이, '도도하게 걷고 사방을 흘겨 보며' 침착하게 우리 편과 적을 두루 살펴보면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매우

¹²² 기원전 424년, 보이오티아의 동북쪽에 있는 델리온(Delion)에서 전투가 있었다. 아테나이는 그곳을 점령하였다가 철수할 때, 테바이 군의 공격으로 크게 꽤하였다.

¹²³ 라케스(Lakhes)는 나중에 유명한 장군이었지만, 델리온의 전투에서는 한 병졸이었다. 용감하기 이를 데 없는 장군이었으나, 기원전 418년 만티네이아에서 전사했다.

힘차게 막아 내리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꽤 먼 곳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덕분에 이분도 친구도, 무사하게 물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 약 하면, 싸움터에서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다급하게 줄달음질치는 사람들이 쫓기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님에 관해서는 이 밖에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들어서 칭송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일에서라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옛 사람 중에도, 지금 사람 중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야말로 과연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아킬레우스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브라시다스¹²⁴나 그밖의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겠고, 또 페 d리클레스의 경우에는 네스토르나 안테노르¹²⁵와—그 밖에도 더 있지만—비교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에 관해서는, 그 사람됨에 있어서나 말씀에 있어서나, 이분만큼 별난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람조차 찾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한 대로 그분의 사람됨과 말씀을, 사람 중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실레노스나 사티로스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¹²⁴ 브라시다스(Brasidas)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가장 유능하고 갸륵한 스파르타의 성공적인 장군이었지만, 기원전 422년에 암피폴리스에서 전사했다.

¹²⁵ 트로이아 전쟁 중 네스토르(Nestor)는 희랍 측의, 안테노르(Anterior)는 트로이아 측의 웅변가이며 사려깊은 원로 정치가(《일리아스》 III, 148; VII, 347).

37.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처음에 빠뜨렸던 얘기지만, 그분의 말씀 역시, 문짝이 양쪽 으로 열리게 된 실레노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 소크라테스 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엔 그것이 아주 터무니없이 들릴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마치 건방진 사티로스의 털가죽 같은 말 구절을 겉에 걸친 것입니다. 그분이 입에 올리는 것은 짐 싣는 당나귀나 대장장이나 화공(靴工)이나 제혁공(製革工)에 관한 것이고, 늘 같은 말투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험 없고 우둔한 사람은 다 그의 말씀을 비웃겠지요. 그러나 그문짝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첫째로는 이 세상 언변 중에서 오직 그분 말씀 속에만 이지(理知)가 있다는 것을, 다음에는 그 말씀은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은 훌륭하고 선하게 되려는 사람이 고찰해야 할 매우 많은 것을,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크라테스 님에 대한 나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원망도 섞어 가면서, 그분이 내게 어떻게 섭섭하게 하셨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나만이 아니고, 글라우콘의 아들인 카르미데

스¹²⁶나, 디오클레스의 아들인 에우티데모스¹²⁷나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당했고 이런 사람들을 이분은 마치 사랑을 주는 사람인 체하고 속이면서, 실은 사랑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분에게 속지 않도록 하게. 우리들이 겪은 쓰디쓴 경험에서 배워서, 옛말에도 있듯이, 어린애처럼, 혼이 나고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하게."

38.

알키비아데스가 그렇게 말을 맺고 나니까, 너무도 숨김 없는 말에 웃음이 터졌다[©]데. 그가 아직도 소크라테스 님께 반하고 있는 듯이 보였으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 님께서 말씀하셨다데.

"알키비아데스, 자네는 조금도 취한 것 같지 않은걸. 취하고 있다면야 그렇게 묘하게 말을 돌려 가면서, 지금 자네의 모든 이야기가 노리고 있었던 참다운 목적을 숨

¹²⁶ 카르미데스(Kharmides, 기원전 403년 죽음)는 아테나이 명문 출신으로서, 플라톤의 외숙. 기원전 404년의 반민주적 "3091" 혁명 위원의 한사람. 플라톤에게 같은 이름의 대화편이 있다.

¹²⁷ 에우티데모스(Euthydemos)는 소크라테스보다 연상의 소피스트인 에우티데모스는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재능있는 젊고 열렬한 제자일 것이다.

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덧붙여서 말하는 체하면서 이야기 끝에 와서야 끄집어 내지도 않았을 것일세. 자네 속셈으로는, 나는 자네만을 사랑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아가톤은 자네만이 사랑하고 다른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끝에, 나와 아가톤과의 사이를 떼어 놓으려는 것이야.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네. 사티로스적 또는 실레노스적 연극은 훤하게 드러났네. 그러나, 여보게 아가톤, 자네는 이 사람에게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네. 그보다도 나와 자네 사이를 아무도 갈라 놓지 못하도록 조심하게나."

e 그러자 아가톤은 말했다데.

"소크라테스 님, 선생님 말씀이 옳은 것 같군요. 이 사람이 선생님과 저 사이에 자리잡은 것도 역시 우리 둘을 갈라 놓을 셈이었다고 짐작됩니다. 그러니 그런 수작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선생님 옆에 가서 자리잡겠습니다."

"그렇지, 자, 이리 와서 내 옆자리에 눕게나."

라고 소크라테스 님은 말씀하셨다데.

"아아, 제우스 신이여, 내가 또다시 이 사람에게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다니. 이분은 무엇이든 나를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신단 말야. 이젠 당할 수가 없군. 다른일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발 아가톤을 우리 둘 사이에 앉혀 주세요."

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다데.

"그럴 순 없네. 자네는 이미 나를 칭찬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오른편 사람을 칭찬해야 할 차례이거든. 그런데 만약 아가톤이 자네 다음 자리로 온다면, 물론 그가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할 차례데도, 그보다 앞서서 도리어 내가 한 번 더 칭찬을받게 될 것이 아닌가? 그대로 두어 주게나. 이 사람아, 내가 이 젊은 사람을 칭찬한다고 해서 질투해서는 안 되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

라고 소크라테스 님이 말씀하셨더라네.

못 견디겠으니까."

223

"옳지, 신난다, 알키비아데스. 이 자리엔 더 안 있겠네. 소크라테스 님에게서 칭찬

을 받기 위해서라면야, 당장 자리를 바꾸겠어." 라고 아가톤이 말했다데.

"번번이 이렇단 말이야. 소크라테스 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즐기지는 못한단 말이야. 지금도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옆자리에 앉아야한다는 그럴 듯한 핑계를 얼마나 묘하게 생각해냈는지 보란 말이야."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다데.

39.

그래서 아가톤은 소크라테스 님의 옆에 앉기 위해서 일어섰다데, 그러자 갑자기 b 한 떼의 주정꾼들이 문 앞으로 밀려왔는데, 방금 나가 사람이 있어 문이 열렸기 때 문에, 맞바로 그들이 있는 곳까지 밀려와서 누웠다데, 그래서 온 집안이 떠들썩하 고 이미 질서고 뭐고 없이. 억지로 엄청나게 술을 마셔야 했다데. 그래서 에리크시 마코스, 파이드로스, 그 밖의 몇 사람은 자리를 뜨고 말았다고 아리스토데모스는 ৫ 말하데, 그러나 아리스토데모스 자신은 졸려서, 밤이 긴 때였으니까, 꽤 오래 잠들 었다가 누음 떴을 때는. 이미 새벽녘이 되어 닭이 울고 있었다데. 깨어나 보니. 다 른 사람들은 짐들고 있거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와 소크 라테스 님만은 아직도 자지 않고, 큰 잔을 오른쪽 편으로 권해가면서 마시고 있었 다데, 그리고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그들과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계셨다데, 그런데 아리스토데모스는 다른 일에 관해서는 그 얘기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 d 데—처음부터 이야기에 끼어들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따금 졸기도 하였다니까— 그러나 요컨대, 그 사람 말로는, 같은 사람이 희극도 비극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기술로 해서 비극 작가는 동시에 희극 작가이기도 하다는 것 을 두 사람이 다 승인치 않을 수 없도록. 소크라테스 님께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계셨었다는 것일세.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강요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에 별

로 따라가질 못하고 졸기 시작했는데, 먼저 아리스토파네스가 잠들고, 이미 동이를 무렵에는 아가톤도 잠이 들었다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재워 놓고 일어나서 떠나셨다데. 그리고 아리스토데모스 자신도 늘 하듯이 그분 뒤를 따랐다고 하데. 그리고는 리케이온¹²⁸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여느 때나 마찬 가지로 남은 하루를 보내셨다데. 그렇게 소일을 하시고 나서, 해가 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서 쉬셨다는 것일세.

¹²⁸ 리케이온(Lykeion)은 아테나이의 동북쪽 변두리에 있는 채육장. 소크라테스는 물론 소피스트나 젊은이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 이곳도 소크라테스의 대화의 장소였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원이 되었다.

지은이 소개 I 플라톤(B.C. 427~34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형이상학의 수립자. 정치 지망생이었으나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정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학에 몰두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영혼 불멸'과 문답법을 '선의 이데이(idea)'와 변증법으로 계승했으며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자 평생을 바쳤다. 이상국가의 실현을 위해 학교를 열어 교육에 임했고, 《파이돈》, 《국가》, 《소피스테스》, 《법률》 등 3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다.

옮긴이 소개 I 조우현(1923~1997)

연세대학교 철학괴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52년 피난시절부터 연대 교단에 올라 학생들을 가르쳤고 퇴임 후에도 연세대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미국 하버드대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국민훈장목련장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서양철학사개요), (철학과 생활), (이성과 감성사이에서) 역서로 (국가), (오이디푸스 왕) 등이 있다. "철학은 현실과 밀착, 현실화되어야 한다, 공회전하는 학문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생 희랍철학을 연구한 그의 철학론이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외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2년 11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주준형 박경림

교열 | 서보상

편집디자인 | 캠퍼스헤럴드 (02-727-0681)

아트디렉터 | 김용덕

디자인 | 이현주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67860-6-1 04100

*표지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